

輔仁 2018 110th

Play Boin

BOIN HIGH SCHOOL MAGAZINE



Vol. 20

IN THE HISTORY OF 110 YEARS 110주년 기념 인터뷰, 110주년 기념 행사
SCHOOL HAPPENINGS 2018학년도 기억에 남는 행사
QUEST FOR KNOWLEDGE 김영만 선생님 인터뷰, 보고서 대회 우수작, 백일장 장원 글
TEACHERS AT BOIN 워라벨(Work-Life Balance) 교사, 서정민, 채기석, 한유림 선생님 인터뷰
MOTHERS AT BOIN 2018학년도 보인고 학부모독서모임 후기

2018학년도
보인

BOIN HIGH SCHOOL MAGAZINE

퍼지미디어



자율형 사립고
보인고등학교
BOIN HIGH SCHOOL

05742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길 18
Tel : 02-2043-6021 · Fax : 02-449-8063
<http://www.boin.hs.kr>

열정이 넘치는 학교 · 학생이 행복한 학교 ·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학교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입니다



CONTENTS

MESSAGES

- 04 격려사 | 이사장 김석한
- 06 발간사 | 교장 김종환
- 08 특집 기사 | 조지 워커 부시

IN THE HISTORY OF 110 YEARS



- 14 학교 소개
- 16 인터뷰 ❶ | 이사장님 인터뷰
- 20 인터뷰 ❷ | 동문회장님 인터뷰
- 24 축하인사 | 구자철 선수
- 26 110주년 행사 이모저모
- 30 플래시몹

SCHOOL HAPPENINGS



- 34 1학년 수련회
- 38 2학년 수학여행
- 41 1학년 스포츠클럽(농구)
- 43 2학년 스포츠클럽(축구)
- 44 꽃동네 봉사활동
- 46 보인TED대회
- 47 항공캠프
- 50 엘 시스테마 인터뷰
- 53 OCN 인터뷰

QUEST FOR KNOWLEDGE



- 58 김영만 선생님 인터뷰
- 62 과학 창의 탐구 보고서 대회 우수작
- 64 경제 보고서 대회 우수작
- 66 백일장 ❶ | 1학년 운문, 산문 부문 장원
- 68 백일장 ❷ | 2학년 운문, 산문 부문 장원
- 70 자기주도학습 수기 공모전 우수작

STRIVING FOR DREAMS

- 76 다양한 진로, 적성에 대한 기사

TEACHERS AT BOIN



- 102 영어스터디 | 우리는 아직도 영어가 고프다.
- 104 마라톤 |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 106 기타동아리 | Music Is Our Life
- 110 인터뷰 ❶ | 서정민 선생님
- 113 인터뷰 ❷ | 채기석 선생님
- 115 인터뷰 ❸ | 한유림 선생님

MOTHERS AT BOIN

- 120 2018학년도 보인고 학부모독서모임 후기
- 124 학부모님들의 독서 감상문

ENQUÊTE

- 134 양케트(1,2,3학년, 선생님)
- 143 교지편집부 후기



卍
卍

不行無得

(불행무득)

행하는 삶의 중요성

2018년도는 보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10년이란 장구한 역사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908년에 개교한 보인은 개화기와 근대 사회를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격변기와 급변하는 교육의 풍파에도 굳건히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보인의 뿌리 깊음을 보십시오.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선 법씨를 뿌려야 하며, 세계를 재패하기 위해선 칼을 갈아야 합니다. 행(行)이 없는 곳에는 득(得)이 없습니다. 자연도, 사람도, 교육도, 이는 동일한 법칙입니다. 11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보인의 저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卍
卍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간 삶이 거대한 빅데이터로 환원되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하며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화 시대. 자율주행자동차, 증강현실 기술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바야흐로 디지털 혁명의 시대입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변화의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日新(날로 새롭게)'을 행(行)하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110주년을 기념하며 올해 보인에서 타임머신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풀러볼 타임캡슐 속에 현재를 기억하기 좋은 물건을 담아두었습니다. 여러분, 타임머신의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내일을 바라보고 내년을 예견하며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가진 것과 고단한 생활에 매여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사회에 나가 찬란하게 꿈과 열정을 펼쳐 나갈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맞추어 '又日新(또 날로 새롭게)'을 행(行)하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도전을 행(行)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장님은 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난 15년 간, 보인고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송파의 명문 자사고, 사회의 인재가 되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성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하는 보인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 사회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며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살아있는 도전 정신으로 이사장님의 사업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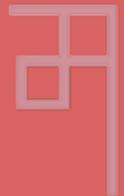
如可意華(여가의화)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꽃이
 色好無香(색호무향) 빛깔은 고우나 향기가 없듯이
 工語如是(공어어시)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말도
 不行無得(불행무득) 행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다. -법구경(法句經) 中-

아무리 좋은 생각과 기쁜 말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공상(空想)과 공언(空言)이 될 뿐입니다. 이사장님은 여러분이, 그리고 보인이 주체성과 도전정신으로 행(行)을 실천하는 역사의 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 가는지 직시하십시오. 저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학교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미래를 주도할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언제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인의 1년을 담아내기 위해 고생한 교직원집부 학생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격려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법인 대주학원 이사장 김석한



우리가 선택한 행복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뜻이지요.

행복한 사람의 달력에는 'today'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사람의 달력에는 'tomorrow'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시계에는 'now'라는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초조한 사람의 시계에는 'next'라는 로고가 찍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인 여러분의 달력에는, 시계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저마다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보인의 꽃 무더기 속에 있기에, 한과가 몰아치는 오늘도 저는 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종종 걸음으로 등굣길을 재촉하고, 생각이 다른 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도 보고, 자투리 시간이 생기면 땀을 내어 공을 차며, 졸린 눈을 부비며 스탠딩 책상에서 책장을 넘겨 밤을 밝히는 꽃. 여러분, 우리 보인의 학생들이 있어 저는 오늘도 봄을 맞으러 가지요.

그런데 얼마 전,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순회하다 복도에서 마주한 학생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무엇일까 걱정되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친구를 데리고 교장실로 내려와 찬찬히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학습 진도, 교과마다 쏟아지는 과제물과 수행평가, 압박한 기말 시험. 문득 간직해온 꿈이 무엇이었는지, 매서운 입시현실 앞에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라는 토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참된 우정이나 진정한 배움은 뒷전 같다며 눈물이 그렇그런한 어린 꽃.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시 '희망'을 말하며 기운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 속에는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가 꾸준한 희망에 의한 것이었던 현실과 타협한 것이었던 이미 선택한 이 순간에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다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얻는 조그마한 발전과 노력은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뜻이지요.

행복한 사람의 달력에는 'today'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사람의 달력에는 'tomorrow'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시계에는 'now'라는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초조한 사람의 시계에는 'next'라는 로고가 찍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인 여러분의 달력에는, 시계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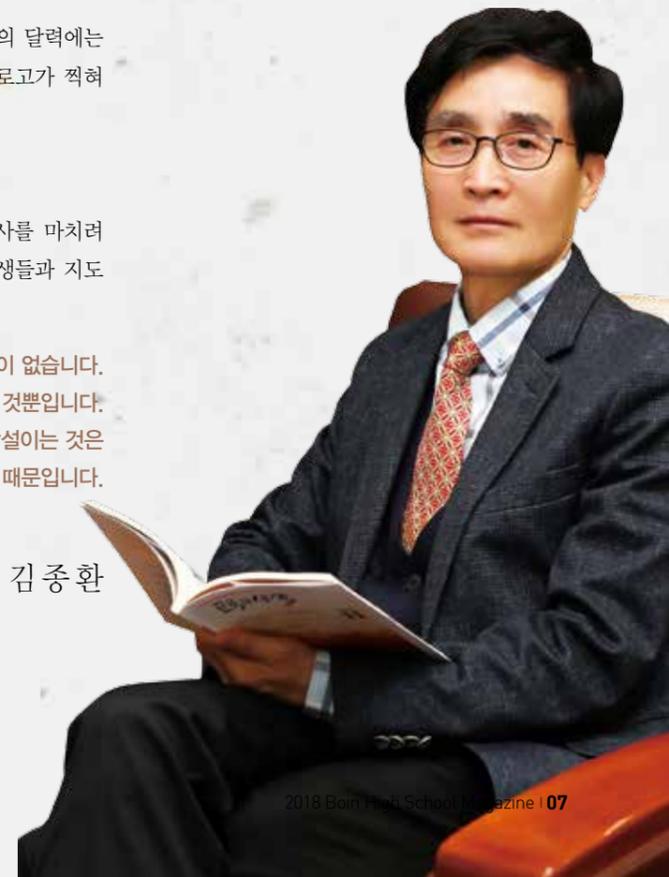
소중한 보인 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법륜 스님의 말씀을 옮기며 발간사를 마치려 합니다. 원고를 내 주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직원집부 학생들과 지도 선생님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인고등학교 교장 김종환





조지 워커 부시의 가슴 뭉클한 글



신사 숙녀 여러분, 공무원, 외국 고위 인사, 친구들 : Jeb, Neil, Marvin, Doro, 그리고 우리 가족을 포함하여 오늘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능한 한 늦게 그러나 짧게 (살다) 죽는 것이 좋다.”라고 이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85 세의 George H. W. Bush가 가장 좋아하던 취미는 그의 보트 Fidelity호의 300 마력의 엔진 세 대를 켜고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즐겁게 날 듯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경호원들의 보트는 그를 따라잡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구요.

90 세의 George H. W. Bush는 항공기에서 낙하하여 Maine 주의 Kennebunkport에있는 St. Ann ‘s by the Sea 교회의 마당에 내렸습니다. 그 교회는 할머니가 결혼한 곳이었고 또한 아버지 자신이 예배에 자주 참석했던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낙하산이 혹시나 퍼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아버지가 그 장소를 선택했다고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90 대 때의 어느날, 그의 친한 친구인 제임스 베이커 (James A. Baker)가 그레이구스 보드카 한 병을 그가 입원해 있던 병실로 몰래 가져왔을 때 그는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Baker가 Morton’s에서 배달 시킨 스테이크와 잘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의 인생에서는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나이가 들수록 존엄과 유머와 친절을 간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주님께 마침내 부름을 받았을 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용기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아빠가 짧게 살다 죽는 방법을 알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젊었을 때 이미 거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침대 었을 때, 포도상 구균 감염으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아군의 구조대가 적들보다 먼저 그를 발견 할 것을 기도하면서 구명보트에 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죽음에 가까이 갔던 경험들 때문에 그는 삶이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야의 활동을 좋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개들이 사냥감들을 찾아내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고 농어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한때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했을 때, 워커 포인트 (Walker ‘s Point) 에 있는 뒷쪽 현관에서 전망 좋은 자리에 앉아 대서양의 거대함을 대해 생각에 잠기는 것을 행복해 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수평선(미래의 뜻)은 밝고 희망적이었고 그는 진실로 낙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관주의가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였고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대담한 결정으로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대학 입학을 보류하고 해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세대 중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공적 인물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될 때까지 자신의 군 복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그가 완수한 임무였던 치치 지마 (Chichi Jima)에 대한 공훈과 그곳에서의 그의 비행기의 격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평생 동안 잊지 못한 그의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락한 동부 해안에서 그의 젊은 가족을 텍사스의 오데사로 옮긴 것입니다. 그와 어머니는 건조한 텍사스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는 관대한 사람이었고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엄마와 제가 사용하던 우리 작은 주택의 욕실을 어떤 여성분들에게도 사용하도록 해주었는데 심지어 그분들의 직업이 ‘밤거리의 여인들’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배경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보다 성격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서 그의 가치를 찾으려 했고 항상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공공 봉사가 고귀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한 정직하게 봉사할 수 있고 신앙과 가족 같은 중요한 가치에 충실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베푸는 사람의 영혼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수천 개의 빛 중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다.

승리했을 때, 그는 공을 나누었고, 패배했을 때 그는 그 비난을 짴어졌습니다. 그는 실패도 완전한 삶의 일부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실패에 의해 구속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는 좌절이 어떻게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망은 어린 자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Jeb과 나는 너무 어려서 우리의 3살짜리 누이가 죽었을 때 그와 엄마가 느꼈을 고통과 고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없는 믿음의 사람인 아버지가 매일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신의 사랑과 우리 어머니의 참되고 오랜 사랑에 의해 지탱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는 소중한 로빈을 다시 안아줄 것이라고 항상 믿었습니다.

그는 잘 웃었는데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웃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남을 팔리고 장난을 치더라도 결코 악의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좋은 농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슨이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전 상원의원 심슨은 이날 추도사를 하면서 많은 농담을 사용하며 부시를 기렸다.) 이메일을 통해 그는 친구들과 최신 농담을 나누거나 받았습다. 농담의 수준에 대한 그의 등급 시스템은 그를 잘 말해줍니다. 드물게 있었던 7 점이나 8 점은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별 재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지 부시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친구가 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대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많은 친구를 만들고 그 우정을 지켜나갔습니다. 그가 친구들을 격려하거나 함께 슬픔을 나누거나 감사하기 위해 수 천 개의 손메모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줄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그들의 삶에서 스승과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위로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친구였습니다. Don Rhodes, Taylor Blanton, Jim Nantz, Arnold Schwarzenegger, 그리고 아마도 가장 예상 외인 사람인, 그를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든 Bill Clinton도 그 중의 한 명입니다. 나와 형제들은 이 그룹의 사람들을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 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는 그 어떤 하루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페이스로 골프를 쳤습니다. 저는 왜 그가 스피드 골프를 주장하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골퍼이기도 했거든요. 음,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빠르게 경기를 하고 다음 행사를 참가하고,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잘 보내고, 또 막대한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겐 단지 두 가지 설정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최대 출력으로 살기, 그리고 잠자기.

그는 훌륭한 아버지, 위대한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에 확고했고 우리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섰을 때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는 격려하고 위로했지만 결코 우리를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내심을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말썰을 피웠다는 뜻) 그러나 그는 언제나 무조건적인 사랑의 위대한 선물로 답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이 "그가 들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빠 사랑해요,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였어요."라고 말했고, 그가 말한 마지막 말은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는 완벽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골프의 솜씨임은 형편 없었습니다. 그는 댄스 플로어에서 Fred Astaire (유명한 댄서)는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남자는 채소, 특히 브로콜리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유전자적 결함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마침내, 73년의 결혼 생활 중 매일매일 아버지는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연인과 결혼했고 그녀를 숭배했고 같이 웃고 울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아버지는 경찰 쇼의 재방송을 보는 것을 즐겨워 하셨습니다. 볼륨을 크게 틀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는 여전히 강하셨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은 엄마의 손을 다시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또 다른 특별한 교훈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봉사하고 용기있게 인도하며 우리 국민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역사가 쓰여진다면, 조지 H.W. 부시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고, 탁월한 기술을 가진 외교관이었으며, 혁혁한 전과를 이룩한 사령관, 존엄과 명예로 그의 직무를 수행한 신사였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미국 제 41 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큰 자동차와 더 많은 돈의 은행 계좌를 남겨 두는 것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자신의 이웃과 마을을 자신이 왔을 때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남겨두는 법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말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 바쁘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 아니면 타인의 아픈 아이가 좀 나아졌는지 물어보기 위해, 그리고 서로 친선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는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요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행동한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품위, 성실, 친절한 영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울고 있지만, 위대하고 고귀한 남자, 최고의 아버지였던 당신을 알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슬프지만, 아버지가 (어려서 죽은 딸) 로빈을 포옹하고 엄마의 손을 다시 잡고 있다는 것에 같이 우리 함께 웃도록 합시다.



IN THE HISTORY OF 110 YEARS



IN THE HISTORY OF 110 YEARS

‘보인(輔仁)’은 ‘훌륭한 덕을 쌓도록 벗끼리 서로 격려하고 도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1908년 내수동 145번지에 세워진 우리 학교는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힘이 교육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당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세워졌다. 그렇게 한일 합방이라는 역사의 암흑기를 지나, 광복과 6.25 전쟁 그리고 현대 사회로 진입하는 데까지 우리 학교는 끝없는 변화와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하여 2007년 정보산업고에서 인문계고로, 2011년 인문계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후 지금은 **명실상부한 송파 유일의 명문 학교**가 되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올해 110주년을 맞은 보인이 또 다른 110년을 기약하기 위한 기틀에는 지난 보인의 역사에 관한 깊은 회고가 응당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진행되었던 110주년 기념행사의 모습과 보인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1908



우리 학교는 1908년 6월 8일에 보인상업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 2006년에 남자고등학교로 학칙을 재변경한 후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발전하였고, 2018년을 기준으로 개교 110년이 되었다. 원래 우리 학교의 교사(校舍)는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1977년 12월 22일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우리 학교의 연혁

- 1908년 6월 8일 보인학교 개교
- 1932년 9월 1일 이종석 선생 교주로 취임(사재기부)
- 1933년 6월 28일 보인재단법인 설립인가
- 1933년 6월 28일 보인재단법인 제1대 이사장에 이종석 선생 취임
- 1933년 10월 1일 보인학교 박영근 선생 제1대 교장 취임
- 1938년 1월 29일 보인상업보습학교 설립인가
- 1938년 12월 22일 보인상업전수학교 설립인가
- 1941년 1월 3일 보인상업학교 설립인가(3년제)
- 1944년 3월 31일 전시교육에 관한 비상조치에 의한 여자상업학교로 전환시설 인가
- 1946년 4월 9일 여자상업학교 폐기 상업학교 학칙변경 인가
- 1953년 12월 20일 보인재단법인 제2대 이사장에 이종국 선생 취임
- 1959년 1월 24일 고등학교 야간 2학급 병설인가
- 1960년 12월 10일 보인재단법인을 재단법인 보인학원으로 정관변경
- 1974년 1월 19일 학교법인 보인학원 제3대 이사장에 황보인숙 선생 취임
- 1976년 1월 1일 학교법인 보인학원 제4대 이사장에 이경숙 선생 취임
- 1977년 7월 25일 새 교사 건축 기공식
- 1978년 8월 22일 송파구 오금동으로 교사 이전
- 1980년 1월 15일 학교법인 보인학원 제5대 이사장에 지봉희 선생 취임
- 1987년 8월 19일 학교법인 보인학원 제6대 이사장에 김석환 선생 취임
- 1990년 5월 8일 학교법인 보인학원 제7대 이사장에 황은순 선생 취임
- 1999년 3월 2일 보인정보상업고등학교 교명 변경
- 1999년 4월 1일 야간학급 폐지 변경 인가
- 2000년 9월 1일 남녀공학으로 학칙 변경
- 2004년 7월 20일 학교법인 보인학원 제8대 이사장에 김석환 선생 취임
- 2005년 6월 27일 학교법인 대주학원으로 법인 명칭 변경
- 2006년 10월 16일 남자고등학교로 학칙 재변경 후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인가
- 2007년 7월 27일 보인고등학교 신축교사 준공식
- 2008년 6월 8일 보인고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 거행
- 2009년 2월 28일 인조잔디 축구장 완공
- 2009년 7월 14일 2011년도 자율형 사립고 지정
- 2010년 7월 31일 개교 100주년 기념 '대주관'신축
- 2011년 3월 1일 보인고등학교 김복현 선생 제20대 교장 취임
- 2011년 3월 2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개교
- 2013년 3월 1일 보인고등학교 서정규 선생 제21대 교장 취임
- 2014년 5월 16일 보인고등학교 김정현 선생 제22대 교장 취임
- 2017년 9월 1일 보인고등학교 김종환 선생 제23대 교장 취임
- 2018년 6월 8일 보인고등학교 110주년 기념행사 거행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인생 여행의 시작, 보인고등학교

110주년 기념 김석한 이사장님 인터뷰



1. 저희에게 이사장님은 학교를 경영하시는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지만, 학교를 사랑하시는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보인에 재학하셨던 당시, 기억에 남으시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 보인상고 시절, 저는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보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이고 보인의 이사장이 되는 것이 마치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학교생활을 주도적으로 했었죠.

학생회장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맨 앞줄에서 5~6번이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반에서 가장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애들 한테만 반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총 학생회장에 출마했죠. 당시 네 명이 후보가 나와서 경합을 했는데 굉장했습니다. 경쟁력은 선거운동과 선거연설에 있겠다고 판단하고 그 두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기호 4번을 받았는데 '작은 거인 김석한'이라고 선거구호를 만들었어요. 학교 담벼락에다 선거포스터를 붙였는데 저는 미술부 친구들한테 가서 선거포스터를 그린 다음에 제대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또 제가 중학교 때 용변을 했습니다. 전교생을 세워놓고 올라가서 연설을 하면 모두 제압됐죠. 그것으로 총 학생회장 선거에서 압승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학생회장이 되어서 활동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죠. 제가 학생회장을 하고 있을 때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최초로 보인고생 전교생을 이끌고 일본대사관으로 갑니다. 광화문 네거리를 활보해서 동아일보 앞에서 성명발표를 했는데 저희 학교 전교생이 거기에 집결한 겁니다. 스크림을 짜서 질서정연하게 갔는데 맨 앞에는 3학년 중에서도 몸집이 큰 학생들을 세우고 가운데는 1학년을 세우고 맨 뒤에는 2학년을 세웠어요.

당시 동아일보사 앞에서 성명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은 겁니다. 마침 세워둔 검은 승용차가 있기에 차 지붕에 올라가서 성명을 발표했죠. 그런 다음에 화신백화점 쪽으로 돌아서 소방서 있는 데까지 가서 집결했는데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쳐서 들어가진 못했죠. 거기서도 우체통 위에 올라가 성명발표를 했어요. 당시 동양방송이라고 TBC가 있었는데 저녁 뉴스에 제가 학생들을 이끌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크게 나왔죠. 장학사들하고 학교 관련된 분들이 전부 따라다닐 정도로 굉장했어요. 그러나 아주 질서정연하게 성명을 발표한 후 교가를 부르면서 학교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2. 이사장님께서 우리 학교를 인수하시고 발전시키시는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를 경영하시게 된 동기와, 우리 학교가 상고에서 인문계고, 사사고로 전환될 수 있었던 혁신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 보인상고 시절에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등록금을 많이 받아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까지 학교를 운영하면서 야간에 공부하는 학교가 되었죠. 그런데 당시에 야간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보인고가 광화문에서 송파로 이전을 했는데 척박한 지역의 환경 때문에 더욱 학교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으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보니까 제가 다닐 때 학교가 아니라 참 마음이 아팠죠. 때마침 축구부가 창단됐기에 이 아이들이 공부로는 한계가 있으니 축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키워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축구후원 회장을 시작했습니다. 1년에 1억~1억5천만원을 지원해야 했는데 선수들이 먹고 자는 것에서부터 타고 다닐 버스를 구입하고, 축구선수로 키나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스카웃 해오는 등의 지원을 해왔죠. 그런데 축구부에 지원을 아끼지 않다보니까 축구부는 날로 발전하는데 학교는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겁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재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재단 이사장은 학교가 설립될 당시 가장 많은 돈을 내놓았던 창설자의 며느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사장께서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별 면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학교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모교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후배들을 보니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학교이사장을 맡았는데 막상 맡아놓고 보니 '정보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전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당시 교육청에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업인으로서 내 모교를 살리겠다는데, 그것도 기업에서 번 돈을 모교에 환원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겠다는데 무슨 제약이 필요하냐고. 교육청 심사위원 앞에서 청문회도 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들, 시민운동단체까지 와서 반대를 했는데 제가 그들을 설득했어요. 인문고 전환 시기도 졸업 101회부터로 맞췄습니다. 상고생이 100회 졸업생으로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101회부터는 인문고생이 되도록 한 거죠.

당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은 상고로 이 나라에 기여를 했다면 새로운 100년은 인문고로 국가 인재를 길러내겠다. 인문고로 전환해서 첫 졸업생 4명을 서울대에 진학시켰는데 이거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년 후에 다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게 된 겁니다.

제가 가진 학교에 대한 애정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이상으로 큼니다. 보인고등학교의 11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문계고교로 전환할 당시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당시에도 우려의 시선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성공의 가능성을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교발전제에 대한

사명감과 투철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의지와 노력은 변함없습니다. 보인고등학교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사학 명문으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최고의 자리를 공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 우리 학교가 현재 굳건히 다져 놓은 지역 사회에서의 입지와 우리 학교의 강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잘 알겠지만 우리학교는 인문계 전환, 자사고 전환과 같은 큰 변화들을 매우 짧은 시간에 경험했죠. 일반적으로 학교는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뒤 늦게 쫓아가는 조직으로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학교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갔다고 봐야겠죠. 그러니 처음에는 지역사회가 의심과 회의의 시각으로 우리의 변화를 보던 때도 분명 있었어요. 그런 지역사회의 시각을 믿음과 확신으로 돌리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는데, 선생님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죠. 열정적으로 수업하고, 따뜻하게 상담하고,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과 동고동락한 결과 학생 학부모님들의 학교

만족도가 올라가고, 입시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대학 진학률도 타 학교에서 견줄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송파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자율형 사립고라는 표현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 지역사회가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제 지역사회는 의심과 신뢰의 단계를 넘어 보인의 교육에 큰 기대를 거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나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지금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학교! 이쯤 정리하면 답이 되지 않을까요.

4. 이렇게 발전을 이룩한 우리 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육철학은 무엇인가요?

● 우리 보인학교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는 잘 알고 있죠? 주권 상실을 목전에 둔 민족의 암흑기에 왜 선각자들이 학교 설립에 뜻을 모았을까요? 왜 교육만이 미래의 희망

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나라는 교육의 힘으로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고, 교육의 힘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성장을 이뤘잖아요. 왜 성공한 사업가가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은 많이 받았는데 답은 늘 똑같아요. 국가적으로는 ‘인재육성’, 사회적으로는 ‘부의 환원’, 개인적으로는 ‘모교사랑’.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역은 누가 될까요? 그 인재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교의 후배들이 보인의 교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미래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꿈꿔요. 선생님들에게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는 타인과의 공감에 능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인성이 바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인의 교육은 ‘인성교육’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면서 큰 꿈과 포부를 가꾸고 ‘날로 새롭게, 바르게 살자, 배움과 살자’를 생활화하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이 이사장님의 교육철학이고 보인의 교육철학입니다.

5.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미래 사회와 교육의 흐름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에 대비하여 앞으로 우리 학교가 바라보아야 할 교육적 목표와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좋은 질문이에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변할 세상의 모습, 삶의 편리성, 변화 속도에 대한 경외심 이런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들이 어떤 교육환경에서 육성될 수 있느냐인데, 창의성을 이야기하면서 학교교육은 지식 습득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전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관심 분야를 찾아 탐구하는 여건은 조성되어 있지 않아요. 수능이라는 큰 시험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개척하고 깊이 파고드는 것이 가능한 교육, 각 개인의 장점이 존중받는 교육, 다양한 개체가 모여 있지만 공동체 속에서 협력과 소

통이 가능한 학교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학교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이 되면 좋겠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여기서 학생들의 자세도 중요한데요. 학생 모두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지만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탐구하고 도전하는 자기 발전을 꾀할 때는 담대하게 그 울타리를 뛰어 넘었으면 좋겠어요. 보인의 모든 학생들이 보인에서 생활하는 3년이 담대히 울타리를 뛰어 넘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6.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국적은 바뀌도 학적은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보인이 나에게 모교인 것처럼 우리 후배들 모두에게도 소중한 모교이죠. 우리 보인의 위상은 결국 학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요. 과거의 역사는 선배들이 만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역사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보인의 역사를 잇는 재학생들이 보인에 대한 애교심을 키우고 자부심을 가져야 2018년 그리고 곧 다가올 2019년 보인의 역사가 아름다워지고 그 역사는 졸업 후에도 여러분과 늘 함께해요. 보인의 역사는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이 말을 꼭 가슴 깊이 새겨 주길 바랍니다.





110주년 기념 이흥재 동문회장님 인터뷰

PLAYBOIN(이하 P) 이흥재 동문회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동문회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흥재 동문회장님(이하 L) 저는 보인상고 32회 졸업생으로 1976년도에 졸업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겠지요.

졸업 후에는 곧바로 특전사(공수부대)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하였고, 전역 후에는 목재사업을 10여 년 경영하다가 목재사업에서 영역을 확장하여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대보종합건설(주)를 설립하여 20여 년 경영하며 현재는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향후 실버타운 조성 등 사업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P 동문회장님께서 어떻게 총동문회장직에 취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L 2016년 2월경, 우연한 기회에 김석한 재단 이사장님을 만나 모교소식을 나누던 중 이사장님께서 모교의 축구발전을 위해서 축구부후원회 회장직을 맡아 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그 후 축구부 후원회장직을 맡아 모교 축구경기가 있을 때마다 전국 각지 대회를 찾아 학부모님들과 열심히 응원한 결과 국내 고교축구대회에서 4관왕을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보인중학교도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고교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을 거둬 보인 축구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한해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축구후원회장직을 맡아 모교 축구부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총 동문회에 깊은 관심과 참여를 하다 보니까 보인총동문회 선·후배님들의 추대를 받아 2017년 3월 보인중·고 총동문회 제13대 회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P 동문회장으로서 특별한 운영 철학이 있으신지요?

L 동문회 운영 철학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동문회장 자리에 오른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해온 것은 동문 선·후배님들의 화합을 통해 모교와 우리 총동문회의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처음 제13대 총동문회장을 맡으면서 총동문회의 화합과 발전을 다하기 위해 '7대 운영방침'을 세웠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문 간에 친목을 강화하고 화합을 위해 노력

둘째, 동문회에 참여하지 않는 동문들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 유도

셋째, 동문 상호 간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

넷째,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자료 수집을 적극 지원
다섯째, 동문들의 직계존비속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슬픔은 나누고 기쁨은 배로

여섯째, 모교 발전과 향후 졸업할 후배 사랑을 실천하여 상업계 선배와 인문계 후배들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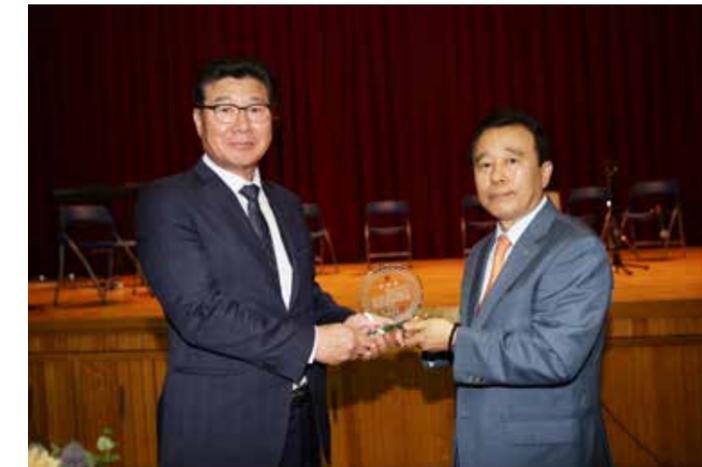
일곱째,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우수한 재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어려운 환경의 동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동문들을 위한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7대 운영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동문 선후배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동문 간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더욱 발전하는 총동문회를 만들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P 우리 학교가 올해 110주년을 맞았는데, 선배님께서 우리 학교 역사의 한 부분을 이어오신 분이십니다. 선배님께서 기억하는 보인고는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L 저의 학창시절에는 모교가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았고 남다른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였습니다. 학교가 일제 강점기 초기에 모교설립에 뜻이 있는 분들과 일부 상인들이 참여하여 '배워야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다보니 운동장이 넓은 편이 아니어서 축구나 야구 등

을 하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재학생들은 탁구와 역도(보디빌딩)를 많이 즐겼는데 특히 역도에서 우리 보인상고가 두각을 나타내 「전국 고교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등에 참가하여 우승을 많이 했었지요. 특히 31회 장용찬 선배님은 전국 고교 미스터 코리아를 비롯해서 전국 대회 일반부 분야를 석권하셨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역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학생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었죠. 보인에는 이렇게 운동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예나 지금이나 참 많습니다. 현재 축구부 후배님들도 전국 대회를 휩쓸며 이러한 보인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P 보인고등학교는 상업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까지, 양적인 성장은 물론 내부적 기틀을 다지며 견고히 발전했습니다. 졸업생으로 또 동문회장님으로서 우리 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 우리 모교는 일제 강점기 암울했던 시절 설립되어(1908년 6월 8일) 수많은 역경을 딛고 오늘날 전국 최고의 명문고로 우뚝 섰습니다. 동문회장이어서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선·후배님들께서 보인고의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보인의 오늘을 만들고 키워가는 후배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시대의 보인학교는 교사도 협소하고 타 학교에 비해 학급 수가 적어서 졸업생의 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 두 가지 일화를 소개해 드리면 7회 졸업하신 조선휘 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님은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공과대학에 입학하시어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기틀을 다지신 분으로 많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교육하셨던 선배님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소문을 내지 않고 해외에 가도 공항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찾아와 일정 내내 에스코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9회에 졸업하신 한환(서울대 상과대학 졸업) 경기도 교육감님은 관선과 민선을 지내셨는데 학교에 시찰나가실 때마다 교사들에게 “보인학교를 졸업한 교사가 계신가요?”라고 물어보시고 보인학교를 졸업했거나 연관이 있는 교사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3회로 졸업하고 4선 국회의원과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을 역임하신 김현욱 선배님과 동두천 시장을 3선 하신 방제환 선배님, 15회로 졸업하고 MBC방송국의 보도본부장과 사장을 역임하신 이득렬 선배님 등 이외에도 모교를 빛내신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교육부 정책의 실패로 상업학교들이 쇠락하였으며 상업학교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로, 어렵게 인문계로,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만들어 대한민국 명문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애써주신 김석한 재단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훌륭하게 지도해 주시는 김종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P 보인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L 최근 후배들이 이룬 성과인 명문대학교 진학률과 전통적으로 보인하면 떠올릴 수 있는 축구부를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부하면 수많은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겠지만, 제가 추억하는 가슴 벅찬 순간은 경북 안동에서 우승했던 2016년 「전국 고교 왕중왕전 축구대회」결승전입니다. 그때 경희고등학교를 3대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기쁘고 생각할수록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모교는 어려운 시대에 사명감을 갖고 학문을 배워야 독립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뜻이 있는 분들과 상인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설립한 학교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110년의 전통을 이어온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몇 학교 없습니다. 이렇듯 보인은 전통이 깊은 학교인 것입니다. 지금 31회 졸업하신 김석한 재단 이사장께서 보인학교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를 발전시켜 우수한 후배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 보인의 큰 자랑거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계셨듯이 지금은 많은 후배들이 모교를 빛내고 있는 것이 역사이고 전통인 것입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있을 수 없듯이 재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가는 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선배로서 기원합니다.

재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 속으로 깊은 정을 느낍니다.

P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L 저의 학창시절 스승님 중 국어를 가르치셨던 안계문 선생님께서는 중국 노나라 시대 사상가인 자사의 말을 빌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쁘다고 너무 기뻐할 것 없다. 내 마음 속에 균형을 유지하고 살아나가길 바란다.”는 말씀을 수업시간을 통해 자주 해주셨는데 이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보려 애를 많이 썼기에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곧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겠지요?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웠다면 위 말씀처럼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보인고등학교가 현재의 명성을 이어 지속적으로 명문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후배님들도 변함없이 모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졸업 후에도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총동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후배가 정을 나누고 모교와 동문들이 화합하여 보인이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주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FC 아우크스부르크
구자철 선수

110주년 기념
축하 인사



안녕하세요. 축구선수 구자철입니다. 그리고 보인고등학교 졸업생 구자철입니다. 올해 학교가 110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 보인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동안 110년을 잘 이끌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배님들도 어디에 가시든 간에 항상 보인고 학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인고의 11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구자철 선수가 말하는 보인고 시절의 나의 모습이란?

●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축구선수라는 꿈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축구에 매진하고, 축구 하나만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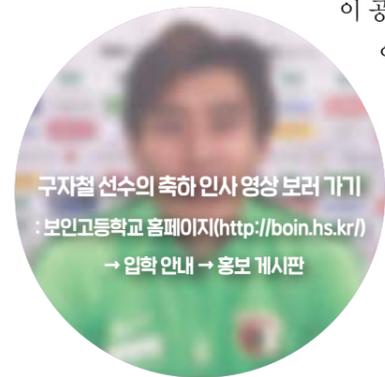
기억에 남는 보인고 은사님들이 있다면?

●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중국어 선생님이신 하지연 선생님께서 제가 1학년인가 2학년 때 학교에 오셨는데, 좋은 학생이라는 인상을 심어 드리고 싶어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도 납니다. 또, 박종배 선생님께서 운동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던 것, 그 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들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인의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한다면?

● 후배들을 위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규율 안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언

제나 그 틀 안에서 하다 보면 당당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고 학교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한 사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안전한 학교라는 틀 안에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작은 사회에서 작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이 공부든 축구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보인 학생으로서 항상 당당하고 멋진 삶을 꿈꾸고,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110주년 행사 이모저모

10131 풍건우

2018년 6월 8일, 보인고등학교 11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던 중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인상 깊어서 가져와 보았다. 정독하면서 독자 여러분도 보인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충실한 학교생활을 해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보인고등학교 교장 김종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사장님과 내빈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인학교 개교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바른 인성을 가지고 실력도 겸비한 수많은 인재가 자라났으며, 지금도 이 나라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하며 훌륭한 민주시민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輔仁學校의 동문이 걸어온 110년은 더 큰 발전을 위한 밑거름과 초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이할 또 다른 미래는 지금 제 앞에서 있는 재학생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열매를 맺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보인중 · 고등학교의 동문,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 해오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매일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유구한 역사의 바탕에서 성장, 발전해가는 보인중, 고등학교의 앞날은 무궁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더욱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도전 속에 우리는 묵묵히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전진은 계속될 것이며 도약과 비상의 시대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는 보인고등학교의 교장으





개교 110주년 기념
타임캡슐
100년 보인, 1000년의 미래를 향한 도약
등기일 : 2018년 6월 8일
예정일 : 2058년 6월 8일
학교법인 대주학원
보인중·고등학교
보인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배움
이상
의
가
치

로서 이제 지나온 110년의 교육 역사를 이어 다가올 110년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우리가 모두 정성스럽게 쌓아온 아름다운 전통과 빛나는 역사를 이어나갈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모두가 각자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사를 마무리하며 우리 학교의 110살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다음 순서로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었다. 축사를 준비하신 듯했으나, 더운 날씨에 모자 하나 없이 밖에 앉아 있는 우리를 보시더니 즉흥적으로 축사를 즐기신 것 같았다. 이사장님이 우리에게 물으셨다. “제가 준비해온 대본이 있는데 그걸 읽을까요? 아니면 파이팅만 하고 끝낼까요?” 여기저기서 짧게 해달라는 아우성이 오고 갔고, 이사장님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짧은 말씀 몇 마디만 해주셨다.

“오늘은 보인고등학교의 110주년 생일날입니다. 우리 보인고등학교의 주인은 학생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

일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110년이라는 무궁한 역사를 가진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들을 다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인고등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가 태동하게 된 역사는 아까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의 힘찬 희망으로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늘 110년의 역사에 자료를 묶어서 타임캡슐을 묻습니다. 그 타임 캡슐은 150주년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40년 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하나만 약속 해주십시오. 40년 후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50대가 됩니다. 50대의 훌륭한 사회인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자리에 와서 개봉에 참석할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약속해주시겠습니까? (학생들의 대답)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더운 날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리신 걸까. 재미 있고 의미 있는 연설에 우리의 얼굴에는 하나둘 웃음꽃이 피어났다.



보인고 110주년을 빛낸 학생들의 플래시몹

11202 강완

플래시몹이란 무엇일까?

플래시몹은 특정 사이트의 접속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플래시 크라우드 (flash crowd)'와 군중을 의미하는 '스마트 몹 (smart mob)'의 합성어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특정한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한 뒤에 모인 후 약속된 행동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흩어지는 모임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왜 플래시몹을 기획하게 되었을까?

1908년 6월 8일 보인 학교 개교 이후 올해 2018년 6월 8일까지, 우리 학교는 개교이래 110주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10년 동안 우리 학교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대표적



으로 종로구 내수동에 있던 보인고를 1978년도에 송파구 오금동에 교사를 이전시키고 1999년에는 남녀공학을 학칙으로 변경하였었지만 2006년에 다시 남자고등학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지닌 보인고등학교의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인고 학생회와 OCN, BBS 그리고 선생님들이 합작해서 플래시몹을 기획했습니다.

플래시몹의 주제와 구성방식은 무엇일까?

보인고의 110주년 플래시몹은 “고등학생들의 힘들고 외로운 삶에서 힘이 되어주는 나의 소중한 친구”, “꿈을 향해 달려나가면 곧 우리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핵심 주제로 춤과 노래가 구성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인 Viva La Vida를 이용한 플래시몹으로 1,2학년 각반에서 신청자들을 모집해서 약 400명가량의 학생들이 춤과 노래를 했습니다. 비교적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춤과 영어로 되어있던 가사를 현재 고등학교의 시점으로 개사해서 주제에 맞는 가사로 구성되어서 보인고 110주년을 기념하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노래였습니다.

플래시몹을 누가, 어떻게, 어디서 구성했을까?

학생회와 선생님들은 플래시몹 아이디어와 전체적인 흐름을 짰고 OCN은 노래에 맞춰서 짠 춤을 1,2학년 플래시몹 신청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BBS는 110주년 기념행사 때 했던 플래시몹을 영상으로 담아서 보인고 110주년을 기념하고 보인고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flash crowd
smart mob



SCHOOL HAPPENINGS



SCHOOL HAPPENINGS

교실 안에서 수업에 집중하며 선생님과 함께 하는 교과 활동에 열심을 다하는 만큼, 교실 밖에서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삶을 배우고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 낸 지난 보인의 1년은 **열정과 패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새 학기 첫 시험이라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모든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 내었던 **수련회와 수학여행**, 주변을 돌아보며 뽀는 우리의 작은 손길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된다는 따뜻한 깨달음을 안겨 주었던 **꽃동네 봉사활동**, 교실 속 3분 스피치를 전체 대 회로 연결시킨 **보인 TED대회**, 그리고 뜨거운 조망만큼 뜨거운 열기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던 **동아리 발표회**, 이 밖에도 스포츠클럽, 동아리 활동, 각종 캠프 등 지난 2018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추억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908



재미와 깨달음,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1학년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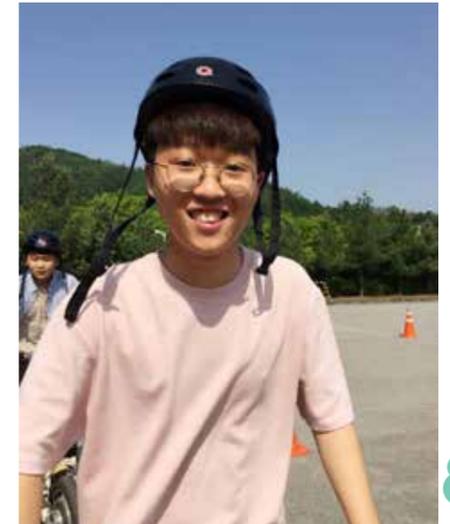
10131 풍건우(1일차), 10119 이동훈(2-3일차)

5월, 우리가 고대하던 수련회 날 아침이 밝았다. 8시 30분까지 버스를 타야 했고, 가벼운 발걸음이지만 늦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보인인(輔仁人)은 매일 6시 30분쯤 기상한다. 그리고, 7시 40분까지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8시 반까지 버스에 오르는 건 일도 아닌 듯하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예외는 있는 법. 대부분 아슬아슬하게 시간을 넘을락 말락 하게 왔고, 우리는 시간 안에 출발할 수 있긴 했다(?). 출발한 지 30분 경과, 이럴 수가. 5분 전까지 노래를 고래고래 불러대며 입을 설 새 없이 움직여대던 친구들이 시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전까지 장덕철의 "그날처럼"을 합창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코골이 합창"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환상적인(?) 코골이 합창을 펼치며 우리는 '치악산 수련원'이라는 2박 3일 동안 우리가 지내게 될 수련회장에 도착했다.

그렇게 처음 도착한 강당. 40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비좁아 보였다. 더군다나 우리는 평균 170 이상의 장신들이 아니던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와중에 늘 하던 입소식을 거행했다.

처음 하게 된 활동은 CPR(심폐소생술) 실습이었다. 대(大)보인고의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고 있었기에 척척 해낼 수 있었다.

저녁을 먹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소원 풍등을 날렸다. 우리의 학업 스트레스도 날아가는 것 같



았다. 숙소에 도착했더니, 밤을 샌다고 큰소리를 뽕뽕 치던 친구들이 모두 기절하여 반 시체(?)의 상태로 엎어지고 말았다. 수련회의 두 번째 날이 밝았다. 모두 이른 시각에 비몽사몽한 얼굴로 지도자님들의 지시를 따라 아침운동을 위한 운동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체조를 하며 소중한 추억을 힘차게 쌓을 준비를 했다. 이날은 특별한 활동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 활동들에 많이 들떠있었고, 힘차게 활동을 하러 나갔다.

'궁 서바이벌'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활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페인트 총으로 하는 서바이벌이라면 많이 들어봤으나, 활을 가지고 서바이벌을 한다니... 하지만 걱정도 잠시, 우리는 마치 자신이 영화 "어벤져스"에서 로키를 겨누는 호크아이가 된 것처럼 늠름하게 활을 잡았다. 모두들 들떠서 양쪽 진영으로 가서 보호구를 착용했다. 방금 전까지는 호크아이라더니 보호 헬멧을 쓰고는 윈터솔져라며 킬킬댔다. 다들 영화 '인피니티 워'를 재미있게 봤나보다. '궁 서바이벌'은 각자에게 화살이 하나씩 주어지고 화살을 주워가며 상대편에게 화살을 맞히는 게임이었다. 시작과 동시에 일부는 멋지게 화살을 날렸고 일부는 병커 뒤에 숨어서 견제하고 있었다. 우리는 팀에게 화살을 주워주고, 상대방을 맞히고, 숨어서 기회를 노리는 등의 각자가 맡은 역할을 멋지게 수행했고, 아쉽게 탈락한 친구들도 자신의 팀을 응원했다.

다음 활동은 '전동 트라이크 활동'이었다. 전

동 트라이크는 어렸을 때 타던 쌍쌍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주어진 트랙을 두 바퀴 도는데 몇몇 친구들은 무섭다면서 조금씩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재활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즐겁게 웃었다. 카트라이더 게임을 하는 것처럼 추월도 하고 싶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추월은 금지되어 있어서 아쉬웠다. 하지만 지도자님들의 눈을 피해 여러 바퀴씩 도는 친구도 있었다. 한편, 트라이크 활동을 하는 지도자님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우리에게 스투럼없이 장난을 치시고 편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나중에는 그 지도자님을 좋아하게 되었다. 수련회가 지난 지금도 그 지도자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는 것을 보면 모두 좋은 기억으로 남았나보다.

지도자님과 장난을 치다보니 '드론 활동'을 하러 갈 시간이 됐다. 드론을 날려서 주어진 위치에 올리는 활동이었다. 집에 드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자신들은 쉽게 성공할 수 있다며 허세를 부렸지만 드론을 처음 날려보는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고장 나는 드론도 많고 벽에 부딪히는 드론도 많았지만 신기하게 바로 바로 올리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런 것도 재능이 있나 싶었다.

'농촌 체험'은 지역 주민들께서 설계하신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됐다. 먼저 각자 5번씩 떡메치기에 참여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천동의 신토르 흉내를 내려고 했으나 너무 위험해서 할 수 없었다. 보기에는 쉬웠는데 막상 쳐보니 옆

으로 빗겨나가고 떡메의 머리가 옆으로 눕혀지기도 해서 어려웠다. 떡메치기 활동을 한 뒤에는 한지로 제기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냥 따라 하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기의 형태를 띠었다. 이어서 황금마차 투어를 했다. 트랙터 뒤에 연결한 곳에 타서 마을을 돌며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다. 비포장도로를 거칠게 달리는 트랙터의 쿵쾅거림과 함께 들렸던 할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점심식사 후 반 구성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 여러 개의 도형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급우들끼리 손을 잡고 여러 도형을 순서대로 만들어서 빠르게 만드는 반이 승리하는 게임이었다. 처음에는 우왕좌왕 하다가 연습이 거듭될수록



시간은 엄청나게 단축됐다. 연습이 거듭되던 도중 지도자 선생님께서 팁을 주셔서 우리가 가볍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다른 반을 보니, 모든 반에게 팁을 준 것 같았다. 연습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 같다. 처음에는 십초대로 걸리던 시간이 마지막에는 7초대로 나온 것을 보니 신기했다.

반 단합이 잘되어 가는 중에, 반의 단합을 더욱 강화시켜줄 프로그램이 우리를 찾아왔다. 'OL'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반 전체가 뒷산을 포함한 수련원 전체에 퍼져있는 문제를 풀며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돌아다닐 때 줄을 잘 맞춰서 걷거나, 만나는 선생님께 반 전체가 큰 소리로 인사하면 가산점을 준다고 했다. 사실 이거에 더 집중했던 것 같다. 문제들의 대부분이 함정만 찾으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나, 인터넷에서 많이 접해본 문제들이어서, 문제 풀기는 뒷전으로 하고 인사만 하고 다녔다. 분명히 인사하면 가산점을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갔던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가산점은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그냥 문제를 더 열심히 풀어서 반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이 나왔을 듯하다.

1반부터 12반 까지 모두 강당에 모이게 됐다. 일정상으로는 시간상으로나 봤을 때, 레크레이

션과 장기자랑 시간이었기에, 우리는 모두 들떠 있었고, 장기자랑에 나가는 친구들은 긴장하여 가사를 외우고 있었다. 레크레이션은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몇 번쯤은 경험해 봤을만한 레크레이션이었고, 장기자랑 전에 분위기를 띄우는 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짧은 레크레이션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기다리던 장기자랑 시간이 다가왔다. 요즘 랩 열풍이 돌고 있는 분위기에 맞추어 장기자랑은 모두 랩 무대로 구성되었다. 같은 노래로 참여한 팀도 있었지만 저마다의 개성을 살리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장기자랑이 끝난 후 숙소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지도자 선생님께서 강당에 남으라고 하셨다. 잠시 후 열심히 놀고 즐겼던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닭강정과 함께 우리의 캡틴 담임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수련회의 축제를 즐겼다. 반터를 입고 열정적으로 즐기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쑥스러운 듯이 즐기던 선생님들도 계셨다. 급우들과 하루 종일 함께 몸을 부딪치며 호흡하고 밤에는 선생님들까지 함께 하니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고 가슴이 벅찬 즐거움을 느꼈다.

수련회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모두 아



쉬웠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가니 어쩔 수 없었다. 모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3일차 프로그램에 영혼을 실었다. 수련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어울마당'이라는 활동이었다. 미니 운동회 같은 느낌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모두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 즐겁게 활동에 임했다. 이틀 동안 신나게 놀면서 체력을 뺏음에도 불구하고, 3일차 이 활동에서도 엄청난 활동량을 뽐내며 승부욕을 불태웠다. 이 활동이 끝난 후, 지도자 선생님들과 친해진 친구들은 지도자 선생님들과 같이 내기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지난 이틀간의 기억을 되살리며 즐거워했다.

우리는 모두 강당에 모여 퇴소식 준비를 했

다. 강당에서 3일 간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어찌면 인생의 마지막 수련회가 될 수 있는 수련회의 끝이라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활기차게 마무리 하려 했다. 퇴소식을 진행한 후, 우리는 모두 버스에 올랐다. 많은 친구들은 다음날부터 다시 하게 될 야자를 생각하며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에 더욱 아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쉬워하기만 하면 진정한 보인인이 아니다. 수련회를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한 만큼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서 충전한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 우리는 힘차게 달렸다.





2학년 수학여행, 설렘을 안고 부산으로 떠나다.

20323 유대건



필렬했던 중간고사가 끝나고 모두가 기다린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 (이하 수학여행)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 부산과 통영 등 경상도로 다녀왔다. 잠시나마 공부에서 벗어나 쌓여있던 여러 스트레스를 털어버릴 기회이기도 했고, 후에 언제든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학여행이었다. 그러기에 가기 전부터 설레는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친구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고 출발 전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고 후회 없이 놀다 오기로 다짐했다. 우리는 들뜬 마음과 함께 부산으로 향하는 SRT에 올라탔다.

필자는 경상 A팀으로 부산거리 스탬프 투어 및 문화탐방, 부산 BEXCO 체험, 해운대, 통영 루지 체험, UN 기념 공원 등 부산을 중심으로 돌아다녔다.

부산 국제시장 및 문화 탐방

이번 수학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대부분 자유 시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덕분에 따분할 수 있는 해설사의 설명이 많지 않았으며, 가이드만을 따라다니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여행할 수 있었다.

부산거리 스탬프 투어에서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시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국제시장 안에 영화 '국제시장'에 나왔던 '꽃분이네'에도 가보았다. 많은 사람이 가게 앞에 북적였고, 우리는 많은 사람 틈 사이에서 수학여행 첫 사진을 찍었다. 시장에 들어서면서 아무 때나 올 수 없는 부산에 온 만큼 부산에서 유명한 음식을 맛보기로 친구들과 이야기했다. 그래서 필자는 밀면을 맛보기로 정했다. 하지만 미리 밀면 맛집을 알아보지 않았던 터라, 나와 친구들은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울 거 하나 없는 청춘 아난가. 눈앞에 보이는 밀면집을 당차게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들어갔더니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드시고 있으셨다. 우리는 마음을 놓고 맛있는 밀면을 먹을 수 있었다. 또한, 부산 시내를 돌면서 지나간 사람들의 경상도 사투리를 들으니 정말 부산에 왔다는 것이 실감나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부산 해운대

부산하면 가장 떠오르는 해운대를 첫날밤에 방문하였다. 유명한 만큼 해운대를 향하는 거리도 매우 번화했다. 하지만 우리가 2년 뒤에 나갈 수 있는 술집들이 대부분인 점이 아쉬웠다. 해운대에 들어서 해운대 바다를 마주하니 우리는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단체 사진 대열로 맞춰 밝은 웃음과 함께 여러 사진을 찍었다.

남고 학생들이 단체로 바다에 온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바다에 빠져야만 한다. 사진을 찍고 나니 많은 눈치가 오고 갔다.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 피하지 못한 친구들은 얇은 바닷속으로 던져졌다. 그때만큼은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가 꾸밈없는 순수한 웃음이 해운대에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담임 선생님을 빠뜨리기 위해 함께 사진을 찍는 척 모여들며 연기를 했지만, 선생님은 우리의 의도가 뻔히 보인다면 다 같이 사진만 찍고 자연스럽게 빠져나오셨다. 짧은 시간으로 해운대를 보낼 뻔했지만 마지막 날 밤에 자유 시간이 생겨 필자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 번 해운대에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으며 해운대를 만끽했다.

통영 루지 체험

가장 기대하던 활동 중 하나였던 통영 루지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루지를 잘 몰라 레일 바이크처럼 정해진 레일을 따라 천천히 운전하며 풍경을 감상하는 활동인 줄 알았다. 하지만 레일보다는 트랙에 가까웠고, 너무 빨라 통영의 풍경을 감상할 틈이 없었다. 우선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기다란 리프트는 우리의 기대치를 더욱 높였다. 높고 빨리 내려가는 만큼 안전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고 출발을 기다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 친구도 있었고, 눈을 처음 본 강아지처럼 마냥 신난 친구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학교생활에

돌아온 지금도 루지를 떠올린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 하이라이트로 저장될 학창시절 마지막 수학여행을 마쳤다. 이번 수학여행은 앞으로 학업에 지칠 때면 꺼내 기억할 설레는 추억으로 모두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2학년 수학여행, 1000km의 전라도 여정기

20126 전승원



5월 9일부터 11일 까지 3일 동안 1, 7, 11반이 전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 마지막 수학여행이라서 더 기대되었다.

첫 번째 활동은 대전 교육활동이었다. 문과인 1반은 국가기록원에 갔고 이과인 7, 11반은 국립중앙과학관에 갔다. 국가기록원에서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과 기록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로 아주 오래된 책도 볼 수 있었는데 상태가 매우 좋아서 신기했다.

그리고 전주로 이동해서 전주한옥마을에 갔다. 거기서 해설사분의 설명을 들은 후 자유 관람을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람하는 것보다 전주한옥마을의 유래와 경기전이 태조의 어진을 모신 곳이라는 사실 등 그 곳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적의 의미에 대해 배우고 나니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옥마을이 넓어서 모든 곳을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한옥들이 즐지어 서있는 거리를 보니 인상 깊었다.

둘째 날은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고흥으로 이동해 나로우주센터 과학관에 갔다. 거기서 나로호의 역사에 관한 3D영상을 관람하는 등 학습적인 내용을 배웠다. 그리고 강진으로 이동해서 연탄 불고기 중식을 먹고 짚트랙을 타러 이동했다. 짚트랙을 타기 위해 3시간 넘게 기다렸다. 비록 1분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땀지만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라서 재미있었다. 짚트랙을 탄 후에 일몰을 보기 위해 해남 땅끝 마을에 갔지만 해가 이미 저버린 뒤여서 아름다운 석양을 보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웠다. 그러나 언제 다시 와볼지 모르는 우리나라의 땅끝이라는 해남 땅끝 마을에서 남긴 친구들과 단체 사진이 의미가 있었고 후에 이 사진을 보며 많은 장면들을 추억할 것 같다.

셋째 날은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에 가서 카트 체험을 했다. 기다리는 장소에는 자동차게임이 마련되어 있어서 재미있게 기다릴 수 있었다. 카트주행코스가 상당히 커서 다른 곳에서 타던 것과는 다르게 더 재미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카트마다 성능차이가 컸다는 것이다. 세 반 모두 카트체험을 마치고 중식을 먹은 후 학교로 돌아왔다.

버스를 무려 1000km 이상 타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고등학교 마지막 수학여행인 만큼 신나게 놀기 위해 노력했고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준 스포츠 클럽- 농구(1학년)

11028 이준혁

친구들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우리 학교의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올해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축구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축구 경기 못지않게 농구 경기에도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쏠렸다. 농구 경기의 규칙은 대한 농구 연맹(KBL)의 경기 규칙에 준하여 진행되었다. 점심시간에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쿼터 당 6분씩 4쿼터를 진행하였고 만약 무승부일 경우에는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3분씩 연장전을 실시하였다. 또 일반 안경 및 장신구를 착용한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많은 변수들을 가져왔다.

예선전 조를 2개로 나눠서 리그전을 통해 각조의 1, 2등이 토너먼트 경기를 펼치는 축구 경기와 다르게 농구 경기는 토너먼트만으로 우승 반을 뽐냈다. 2반, 3반, 4반, 6반이 부전승으로 8강(준준결승)에 올라갔고 남은 반들은 2반씩 경기를 치러서 이긴 반이 8강에 올라갔다. 경기는 대주관 강당에서 진행되었고, 2층 관중석에서 친구들을 향한 응원이 가득하였다. 농구가 격한 운동인 만큼 친구들과끼리의 심한 몸싸움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서로를 존중하여 경기에 집중하였고, 멋진 드리블과 슛들은





경기를 더욱 박진감 넘치게 만들었다.

16강전을 통해 1반, 5반, 8반, 11반이 8강에 진출했고, 8강에 진출한 반들이 부전승을 통해 올라간 반들과 경기를 하여 4강에는 1반, 6반, 8반, 11반이 올라가게 되었다. 치열한 승부 끝에 우승 후보였던 6반과 8반이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었다. 결승전인 만큼 경기 내용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경기는 8반이 주도권을 잡아 경기를 하였고, 멋있는 드리블과 슛을 보여주면서 8반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통해 친구들의 숨겨진 운동 실력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공부에 대한 생각을 잊으며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여 우승을 위해 노력한 즐거운 시간이었다.



열심히 뛰어준 우리들 스포츠 클럽- 축구(2학년)

20712 신우엽



화창한 봄날 중간고사가 끝난 2학년들은 들뜬 마음으로 반 대항 축구 리그를 시작하게 되었다. 스포츠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축구 경기이기 때문에 그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이번 스포츠클럽 대회는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 반을 1군과 2군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했다. 총 12반이 2개의 조로 나뉘어져 리그를 시작하였다.

1반부터 6반까지인 A조에서는 강팀이라고 평가받는 1반이 강력한 전력으로 압도적 조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따라 5개의 반이 도전하여 고군분투 끝에 밸런스가 좋은 5반이 2위를 차지하였다. B조에서는 강팀이라고 평가받는 반이 많아서 어떤 반이 1위를 하게 될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어지러운 대전이 펼쳐졌다. 강팀들의 1군 실력은 대부분 비슷했기에 무승부가 많이 나서 4강 엔트리에 올라갈 수 있는 열쇠는 2군에게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였다. 예상대로 1군은 경기가 대부분 무승부로 마무리되고 2군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2군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7반과 10반은 결국 도합 2승을 챙기게 되어 4강 엔트리에 들 수 있었다.

먼저 A조 1위인 1반과 B조 2위인 10반이 4강전을 치르게 되었다. 2군의 경기가 먼저 있었는데 2군이 강력했던 10반은 1반의 2군을 상대로 1골을 먼저 득점하면서 10반이 1:0으로 앞서 가게 되었다. 그렇게 1점이 유리한 상황에서 1반과 10반의 1군 경기가 시작되었다. 사실 예선전에서 무려 5골이나 넣었던 1반의 한재민 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인해 4강전을 출전하지 못하여 1반의 경기력을 걱정하였는데 걱정과 달리 1반은 뛰어난 호흡을 맞추어 총 3골을 넣으면서 3:1이라는 스코어로 역전시키며 A조 1위의 위엄을 보여주게 되었다.

다음으로 B조 1위인 7반과 A조 2위인 5반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2군이 매우 강력했던 7반은 2군 중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김도현 선수의 활약으로 5반과의 경기에서 3:0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7반의 1군도 만만치 않은 강팀이었기에 사실상 5반의 1군이 30분도 안 되는 짧은 경기시간에 3골을 더 넣어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부담감이 컸던 5반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1군조차도 7반이 2골을 더 넣으면서 총 5:0으로 4강전이 종료되었다.

그렇게 A조 1위인 1반과 B조 1위인 7반이 맞붙게 되었다. 앞선 경기를 통해 7반의 2군이 득점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았던 1반이었기 때문에 1반은 결승전에서 '강한 수비'를 전략으로 들고 나왔다. 공격수들에 전담 마크를 붙여 놓고 라인을 내려 수비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전담 마크를 당해 당황한 7반의 2군 공격진들은 결국 처참히 무너져 골을 넣지 못하고 0:0이라는 아쉬운 스코어로 경기는 종료되었다. 그렇게 마지막 결승전은 결국 1군의 싸움이 되었다. 1반은 한재민 선수가 허리부상으로 인해 경기출전이 불확실 되는 상황이었지만 전반기 7반의 공격이 흐름을 타면서 연속 2골을 넣어 2:0으로 앞서나가게 되었다. 결국 한재민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었다. 하지만 수비가 탄탄했던 7반의 수비진을 뚫기는 매우 버거운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1반이 한 골을 넣어 2:1로 격차를 좁혔으나 7반의 다시 안정된 수비로 인해 1골에서 그쳐 2:1로 7반이 승리하게 되었다.

이번 스포츠클럽은 2군에 참가로 인해서 변수가 많이 생겨 더욱 더 재미있는 경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결승전인 만큼 박빙의 싸움이었기에 이 더운 여름날에도 열심히 뛰어 좋은 경기를 보여준 양 팀 선수 모두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낸다.



가족 같은 분위기, 꽃동네를 소개합니다.

21035 한찬영

짹 짹 사랑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꽃동네에선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곳 가평꽃동네에서는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사랑 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인사한다. 이곳에 계신 가족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때로는 장난도 친다. 화목한 분위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이곳, 꽃동네를 소개합니다.

꽃동네는 1976년 11월 설립된 사회복지단체이며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깊은 산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설립자인 오웅진 신부는 거동 못하는 환자들을 움막에서 돌봐온 최귀동 할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에 감동받아 그해 11월 사랑의 집을 시작으로 여러 단체의 후원을 받으며 시설을 늘려나갔다. 가평 꽃동네는 오웅진 신부의 뜻으로 1989년 7월 17일 설립되었다.

가평꽃동네에 있는 '희망의집'에서 우리 학교 봉사자들은 주방일, 남자병동, 여자병동으로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주방은 주로 건물 내 직원과 봉사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장소였다. 봉사자들은 주로 재료손질을 도맡았다. 병동에서는 평소에 가족들이 챙기기



어려운 점들을 도와주는 일을 주로 하였다. 봉사자들은 스스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을 도와고, 청소를 비롯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위 활동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가족들의 말동무가 되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가족들은 봉사자들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했다. 매번 봉사자들은 달라지만 가족들은 그저 봉사자들을 볼 수 있다는 점, 새로운 사람이 반갑다는 점에서 웃는 모습을 보였다. 봉사자들만 보면 절로 나오는 웃음과 함께 인사를 받고나면,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온다. 봉사자로서 큰 힘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소중한 행복이었다.

이곳 가평꽃동네에서 눈에 띄는 점으로 잘 구축된 시설과 가족 같은 분위기를 꼽을 수 있었다. 외관상 깔끔한 건물과 밖을 내다보면 볼 수 있는 여러 자연물들이 눈에 띄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될 수 있는 요소가 가까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봉사자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닌 한 가정의 모습이 보였다. 서로 장난치고, 서로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서로 아침인사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곳은 행복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봉사자가 꽃동네를 떠나 집에 오더라도, 다른 봉사자가 꽃동네에 방문하더라도 이러한 행복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만 같았다.

꽃동네에 오기 전, 곧은 마음가짐은 꼭 요구되는 사항이다. 사람을 대하기 어렵거나 혹은 불편한 점에 대하여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불편 할 수 있다. 그만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분명 꽃동네에서는 언어갈 내용이 충분히 많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봉사 내용이 즐겁게 느껴질 수 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진심으로 내가 알아가는 봉사활동, 언어가고 배워가는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꽃동네 봉사활동에 참가하길 추천한다.





1학기 보인 TED 대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피치 능력을 확인하다-

10129 진현승



지난 7월 16일 시청각실에서, TED 대회가 열렸다. 1학년 각 학급의 3분 스피치 시간에 가장 좋은 호응을 얻은 1학년 1반 이석주 학생(국내 게임사 양산형 게임의 문제점), 2반 조규현 학생(XXXTENTATION에 대하여), 3반 최정태 학생(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 4반 김준우 학생(스피치를 잘하는 법), 5반 한지용 학생(잠의 중요성과 좋은 수면방법), 6반 권양현 학생(퍼스트 펭귄의 태도를 갖자), 7반 최성우 학생(우리나라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의 행보), 8반 윤진우 학생(제주로 온 예멘 난민), 9반 박상우 학생(TFT와 죄수의 딜레마), 10반 남천우 학생(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부), 11반 이종찬 학생(여행의 중요성), 12반 김정규 학생(뇌와 인공지능의 차이점)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청중의 이목을 끄는 발표를 진행했다.

많은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 참가하게 된 대회인 만큼 발표자들 모두 좋은 발표를 위해 대회 시작 전까지도 PPT 내용을 점검하고 원고를 계속 확인하는 등 열심히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중들과 선생님이 참석한 후, 문지혜 선생님의 축사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TED 대회에서 발표자들은 인공지능, 4차 산업 혁명에서의 교육, 여행, 잠 등, 우리가 몰랐던 내용부터, 그들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연설을 했다.

또한 TED 대회의 조건 중 하나인 흥미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에 맞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와 발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 발표자 학생은 자신의 발표 주제인 우리나라의 극단적 페미니스트와 그들의 행보에 대해 발표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유쾌하게 풍자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고 또 다른 발표자 학생은 자신의 발표 주제인 잠과 관련하여 수면 바지와 눈가리개 등의 소품을 활용해 발표하는 등 재미있고 독특한 발표를 선보였다.

우승은 '버뮤다 삼각지대 미스터리'에 대해 발표한 1학년 3반 최정태 학생이 차지했지만 모두가 우승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학교 학생들의 뛰어난 발표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TED 대회에서는 모든 발표자들이 유익함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훌륭한 연설을 보여주었고 청중 또한 단순히 발표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발표 현장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멋진 발표를 선사해준 12명의 발표자 친구들에게 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항공 캠프 체험기

-하늘을 향해 달려보자!-

10110 박윤서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은 고흥 국립 청소년 우주센터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학교 정문에 모였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국립청소년 우주센터였다. 거리도 거리이고, 월요일인데다 등교하는 학생들보다 일찍 나왔기 때문에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잠든 학생들도 있었다.

그렇게 약 4시간 정도 버스를 타 첫 목적지인 국립청소년 우주센터에 도착하였다. 외관상으로도 특이하고, 우주에 관련된 건물이다 보니 건물 안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보기 힘든 구조물들을 볼 수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고 조금의 쉬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을 빨리 먹은 학생들은 우주 관련 기사나 여러 사진들을 구경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비행기 조종 시뮬레이터 활동을 하였다. 먼저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이 방향과 고도를 움직이는 스틱, 속도를 조절하는 법 등 5분가량 설명을 하시고 난 뒤, 반을 나누어 받은 4D 체험, 받은 각자 기계에 탑승하여 비행기 시뮬레이터 활동을 하였다. 비행기 시뮬레이터는 처음 경험 해보는 사람에게 쉽지만은 않았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아무 탈 없이 지정 코스를 돌며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학생들에게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다. 4D 체험은 4D 안경을 쓰고 지정 장소에 들어가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다. 체험 전, 우리는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 활동이라 재미가 없어도 크게 반응 해달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웃음을 보였다. 하지만 활동이 시작되





고, 안에서 들리는 다양한 비명소리는 역지로 지르는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체험을 한 학생들은 모두 재밌어 했고 한 번 더 타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두 번째 활동에서 비행기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 항공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비행기와 관련된 양력이란 단어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양력은 날개에 작용하게 되는데, 날개 위쪽의 공기의 흐름 속도가 아래쪽의 속도보다 빨라 윗면의 압력보다 아랫면의 압력이 더 커지게 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 때문에 날개가 위로 들어 올려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날개 윗면의 기압은 대기압보다 낮아져서 날개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하며, 아랫면의 기압은 대기압보다 높아져서 날개를 아래서부터 밀어 올리는 작용을 한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날개에 작용하는 압력은 작아진다. 그리하여 날개에는



아래에서 위로 떠받치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양력이라고 한다. 양력과 상반되는 힘이 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력은 비행기를 당기는 힘이다. 즉 양력이 중력보다 크면 비행기는 상승하고, 양력과 중력이 같으면 일정한 고도로, 양력이 중력보다 작으면 비행기는 하강한다. 또한 비행기가 일정한 속도로 날게 되면, 항력(공기저항)이 생긴다. 비행기는 이러한 항력을 이기기 위해 설계 시 기체를 유선형으로 하고, 헬리콥터나 전투용 헬기에 프로펠러가 달아 제트 엔진으로 받는 추력을 항력보다 증가시킨다. 이러한 내용을 처음엔 익히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이해하면 그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활동이 모두 끝나고, 우리는 약 1시간을 달려 숙소로 도착하였다. 숙소는 한옥이었고,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TV와 와이파이였다. 각 방마다 설치된 TV와 와이파이는 이번 캠프에 있어 크게 평가되는 요소이다. 짐을 풀고,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또 버스를 타고 저녁 장소까지 이동하였다. 저녁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였으며, 학생들 모두 좋아하는 음식이었던 것 같았다. 그렇게 모든 일정이 마무

리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야식으로 치킨이 배달되었다. 그 부분 또한 인상 깊었다. 치킨을 먹고, 잠 잘 시간이 되었지만 당연히 쉽게 잠에 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다. 숙소에 설치된 TV와 와이파이를 사용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잠자리에 든 학생들도 있었다.

둘째 날, 우리는 버스를 타고 경상남도 사천시에 위치한 KAI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로 이동하였다. KAI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에는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항공기 공장이 있다. 건물에 들어가서 먼저 강당으로 향했다. 역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반으로 나뉘 받은 비행기 공장을 견학하고, 나머지 반은 강당에서 간단한 교육을 받고, 건물 내에서 각 기관을 견학하였다. 비행기 공장은 실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정보가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절대 금지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첫 번째 훈련용 비행기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전투기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다. 대표적으로 '수리온'이라고 하는 군사용 헬리콥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활동이 끝나고,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큰 마당에 다양한 비행기들이 실제 크기로 전시



돼있었는데, 원하는 사람들은 구경하고 사진도 찍었다.

마지막 활동으로, 비행기 모형 만들기를 하였다. 비행기 모형이라고 해서 비행기 모양만 흉내내는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속도를 내게 하여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재료가 종이이다 보니 까고장이 나기 쉽고 조금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만들 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형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밖에서 직접 날려보았다. 비행기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륙하기도 전에 고꾸라지는 비행기를 만든 학생들도 있었다. 그 학생들은 다시 비행기의 날개의 위치를 조정해 방향을 잡고, 고도를 맞춰서 재도전을 했다. 마침내 대다수의 학생들이 비행기 비행을 성공시켰다.

모든 활동을 마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짬뽕집에 들러서 점심을 먹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이동하고 활동하느라 피곤한 기색을 보이던 학생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에도 피곤해보였다. 점심을 먹고 약 2시간 더 이동해 학교에 도착하였



다.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 들어가 야간 자율 학습을 하고, 대부분은 해산하였다.

이번 항공캠프는 희망하는 전공이나 진로가 항공과 관련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나 또한 항공운항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비행기와 관련한 전공분야가 추상적으로 느껴졌었다.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 비행기를 직접 보고 몸으로 겪는 체험을 하고 나니 더욱 실제적으로 그 직종을 느낄 수 있었으며, 희망하는 학과에 가기 위해 학업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강한 동기 부여를 얻게 되었다.





엘 시스템아 인터뷰

20102 김경민



PLAYBOIN 김경민(이하 K)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 PlayBoin 2학년 부원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서울 시청광장에 찾아왔습니다. 공부만 하는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아닌 예체능도 잘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동아리를 취재했는데요. 바로 음악봉사 동아리 엘 시스템아입니다! 인터뷰에는 부장 이영균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균 부장(이하 L) 네! 안녕하세요 엘 시스템아 부장 이영균입니다.

K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엘 시스템아 이름의 유래는 무엇인가요?

L 동아리 이름이 자주 바뀌었는데, 엘 시스템아라는 이름은 2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름의 유래는, 저희가 음악으로 봉사를 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어린 마약하는 친구들을 모아 만든 오케스트라 팀 엘 시스템아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K 아하!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는 유명한 사례죠? 그런 좋은 오케스트라 팀의 이름을 따온 것이었군요. 그럼, 부장님이 동아리에 지원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L 저는 보인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자소서에서 사회복지서를 희망한다고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봉사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직업이고 중학교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서 노래 부르는 것으로 음악 봉사동아리에 들어가 보면 진로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K 멋진 진로를 가지고 계시군요. 부장을 맡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L 부장 선거를 마지막 동아리 시간이 20분 남을 때 실시합니다. 부장선거에 나간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친구들이

나간다고 하니깐 저도 한 번 나가보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가보고 싶어서 당시 1학년 친구들이 모두 나갔는데 제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선출되었습니다.

K 엄청난 지지를 받으셨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엘 시스템아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L 마천동 은빛요양원에 음악봉사, 곡은 주로 찬양가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동요 같은 것들을 연습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찾아갑니다.

K 아하 지난번에 사진을 보았는데 그곳이 바로 요양원이었군요. 엘 시스템아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L 일단,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고 음악으로 합을 맞추니까 다른 동아리들보다 유대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K 예체능동아리들이 유대감의 형성 정도가 높은 것 같네요. 엘 시스템아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L 보인고등학교 대표 예체능 동아리이죠. 춤추는 쪽은 OCN, 기악 쪽에선 탐을 찍는 우리 엘 시스템아가 있는데 예체능 쪽에서는 대표주자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K 지난 OCN 인터뷰 때 자신들이 예체능 탐 동아리라고 했는데 혹시 누가 더 탐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L 탐이라고 하는 기준은 학교에서 그 동아리를 얼마나 밀어주고, 홍보해주는냐인데 물론 OCN도 학교 내에서 춤추는 것이 액자에 많이 걸려있지만, 엘 시스템아는 한송이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교에서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K 아주 재밌는 의견이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OCN 학생분들께 같은 질문 드리고 싶네요. 엘 시스템아가 마음에 드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L 오디션을 통해서 음악적 실력도 보지만 기본적인 인사나 예의 등을 따지고 뽑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활동 할 때도 친구들도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K 면접을 통하여 인성까지 고려하니 실력도, 인성도 좋은 학생들로 구성될 수 밖에 없겠네요!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L 이렇게 큰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아무 곳도 아닌 줄 알고 왔는데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서울 시청 광장에서 공연 해서 가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호응도 잘해주셔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K 실제로 처음에 도착했을 때 무대가 너무커서 저도 놀랐는데 성공적으로 공연 잘 마치신 점 축하드립니다. 오늘 복장이 상당히 특이한데, 이렇게 입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L 저희 노래 제목이 멋진것인데, 포크송 비슷한 신나는 노래를 하기 때문에 신나려면 단정한 복장도 좋지만 활동성 있어 보이는 농부 복장이 관객분들의 호응과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여 멜빵바지에 셔츠를 기용한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K 저도 처음에 이영균 학생을 버스정류장에서 만났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을 정도로 상당히 주목받는 농부 복장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평소 공연하실 때 곡 선정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L 제가 대화방에 들어가서 '애들이 뭐할래?'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선 말도 안되는 노래들을 우선 말해요. 예를 들어 저희는 인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OST

같은 인원이 많이 필요한 노래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노래들을 우리가 소화 가능한지 확인해서 가능성을 판단해요. 그 다음, 부원들과 다수결 투표를 진행해서 곡을 선정합니다.

K 상당히 민주적인 곡 선정 절차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연은 무엇인가요?

L 우선 보인천년제도 좋지만 110주년 기념으로 많은 선생님들과 동문분들 앞에서 강당에서 노래를 할 때 이 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 가끔씩 혼나거나 칭찬 받는 선생님들 앞에서 학습적인 면 말고 음악적인 면도, 실력도 보여드릴 수 있었고 하고나서도 선생님들께 정말 수고했다고,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서 정말 뿌듯한 무대였습니다.

K 저는 그 공연을 보지 못했는데요, 정말 보고 싶네요. 사실, 오늘 공연은 크로스로드 부원들과 같이 오셨는데, 크로스로드와의 엘 시스템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L 우선 작년에 크로스로드가 기존 1학년, 올해 2학년 부원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동아리를 바꾸는 바람에, 크로스로드가 엘 시스템아의 밑에 들어간거죠. 제가 엘 시스템아의 부장으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엘 시스템아와 크로스로드의 오디션을 같이 진행해야 해야 하는데 1학년 때 크로스로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아서 참 난감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로드가 엘 시스템아의 하위 동아리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크로스로드까지 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괜찮아져서 이제는 미워할 수 없는 쌍둥이 같은 동아리입니다.



K 다른 동아리 친구들을 전혀 모를 동아리 사정이었군요. 부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L 내년, 내년입니다. 올해는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지도 하에 제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떠난 이후에 봉사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세를 이어 가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K 내년 부원분들! 잘 들으셨죠? 꼭 실천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활동 중 가장 뿌듯하셨던 때는 언제인가요?

L 은빛요양원으로 봉사를 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3주간 연습해간 곡을 박수치시면서 좋아하시면 정말로 저는 말로 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K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면서 뿌듯함을 느끼시군요. 이번 년 활동 중 부원들한테 고마웠거나 안타까웠던 점이 있나요?

L 110주년 기념 행사를 연습할 때 연습시간을 맞추어야 하는데 시간조차 잘 맞추지 못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냈는데 부장으로서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조율함으로써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이 나쁘지 않았습니.

K 그러면 준비 시간을 잘 맞추지 않은 부원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L 생각나는 이름은 윤진우 학생과 반현승 학생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생겼고, 한 명은 클라리넷이고 다른 한 명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친구인데 참 생각이 나네요.

K 이 친구들 때문에 좀 골치 아프셨겠네요. 조금 어렵지만, 엘 시스템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L 저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김과 열정,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공연하는 것 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섬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오늘 인터뷰 키워드가 섬김입니다. 섬김을 하려면 아무 감정도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우선 기초적인 음악을 하려는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엘 시스템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섬김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K 오늘 인터뷰 동안 섬김, 봉사 정신 등의 말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그 이유를 알겠네요! 마지막으로 홍보 한 번 해주세요.

L 엘 시스템아, 음악 봉사하는 동아리입니다. 처음 음악봉사를 할 때 그저 생활기록부,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텐데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음악을 그다지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음악을 전공하는 동아리도 아니고 음악봉사동아리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하고 제가 이 동아리로서가 아니라 다른 동아리였어도 정말 추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K 네! 공연도 하고 힘드셨을텐데 이렇게 취재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interview



OCN 인터뷰

20102 김경민

K 안녕하세요, 보인고 교지편집부 부원 2학년 김경민입니다. 보인고 하면 공부만 하는 딱딱한 이미지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을텐데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 때에는 마음껏 우리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여러 학교의 행사도 다니면서 멋진 응원을 펼쳐주고 있는 보인고등학교 응원단 OCN이 있습니다. OCN 학생들이 올해 '송파 놀자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멋진 공연을 펼쳤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K 안녕하세요, 보인고등학교 응원단 OCN에 들어오면 무슨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

석호 응원단으로써 큰 학교 행사가 있을 때 무대를 장식하고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외부 행사나 다른 학교로 찬조공연 나가는 것입니다.

세훈 저런 공연 활동 말고도 평소에도 점심 시간에 따로 연습실에 모여서 땀이 많이 흐를 정도로 열심히 합을 맞춥니다.

K 그렇군요. OCN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중훈 OCN의 역사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인고 본관 지하 1층 복도에 있는 게시물을 보면 '응원단'이라고 써져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응원단이 지금의 OCN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저희 2학년은 15기, 1학년 부원들은 16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보인고에서 가장 오래된 동아리죠!

K 대단하네요. 자신이 생각하는 OCN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훈 응원 문화는 워낙 옛날부터 발전되어 왔고 사회를 결속시키고 구성원의 의지를 다지게 하는 의미를 지닌 중요한 문화인데 그런 점에서 학교에는 응원의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욱 아마도 실적도 매우 좋고 활동량도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성욱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성문 선생님께서 먹은 것도 많이 사주시고 저희를 잘 챙겨주시는데요.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이유인 것 같습니다.

K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군요.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OCN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성욱 함께 연습을 하면서 부원들과의 협동심, 우애가 생기는 것 같고요. 단장을 하면 리더십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고 1학년 후배들이 들어오면 3학년 선배 형들이 내려오셔서 회식을 하는데 아주 잘 챙겨주셔서 보인고의 '참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태민 같은 부원들과 최고로 친해질 수 있고, 응원단 같은 경험은 살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쉽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 경험 같은 것을 또 언제 해볼까요?

K 제 생각에도 이런 경험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무대를 마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성욱 조금 실수도 많았지만 관중들의 함성소리와 환호 덕분에 신나게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괜찮게 한 것 같아서 아주 아주 기쁩니다. 좋아요!

태민 저는 처음 펼치는 공연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연습 많이 한 만큼 공연을 잘 끝낸 것 같고 관객분들이 호응을 아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K 제 생각에도 관객분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OCN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적은 언제였나요?

성욱 저희가 여고 공연을 갔는데 거기에 있던 여자 학생들만



interview

데 sns로 친구 추가 요청이 왔을 때 아주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세훈 안 오지 않았나요?

성욱 조용히 하세요. (다들 웃음)

형욱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오디션을 보고 통과를 해야 무대에 설 수 있었는데, 작년에 많이 활동한 덕분에 학기 초에 요청이 들어와서 오디션 없이 바로 공연을 했어요. 그만큼 OCN과 학교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뿌듯합니다.

K 아마 저였어도 참 뿌듯했을 것 같네요. 활동을 하면서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보니까 견디기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성욱 응원 안무 중에서 기본기 스텝이 계속 반복되어서 많이 힘들거든요. 첫날에 동아리에 알도 배겼고 힘들었는데 이런 기본기를 잘 다져 놓아서 그 뒤로 동작들을 배울 때 수월해졌고 빠르게 동작들을 익힐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형욱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아마도 다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처음 들어왔을 때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었을텐데 처음에는 다들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힘들어 했어요. 그 때 탈퇴할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버텨 내고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해낸다는 것은 당시에 기본기를 잘 익힌 것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K 멋진 공연의 비밀은 기본기였군요. OCN을 어필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형욱 보인고 동아리 중에 가장 활동 많이 하고 실적도 많이 올리고 비교과는 1등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찬조금도 받고 학교에서 지원도 잘 해주어서 활동을 막힘없이 잘 한 것 같습니다.

세훈 이야 완벽하네요. 동감합니다.

K 정말 많네요.. 주변 사람들이 OCN에 가지는 편견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욱 공부는 안하고 그냥 놀려고만 하는 동아리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다른 동아리들보다 훨씬 나은 동아리 같아요. 저희 활동 참 열심히 합니다. 진정한 참 동아리는 OCN인 것 같아요. 생활기록부도 쓸 내용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빼곡이 정리해 알차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노는 동아리 아니고 생기부 부족한 동아리 아닙니다. 이런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K 많이 역울하셨을 것 같네요. OCN을 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 어준 경험이 있나요?

형욱 공연 준비를 하는 동안 단복 수선, 세탁 등의 잡다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때마다 부단장 세훈이가 마다하지 않고 부탁을 잘 들어주고 협조를 해주어서 동아리 운영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어요.

K 최세훈 씨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친구가 있으신 것 같나요?

세훈 저는 제가 제일 고마운 것 같습니다.(웃음)

K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OCN에 들어간 계기는 무엇인가요?

석호 저는 색다른 학교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성욱 저는 BBS를 넣었다가 떨어지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동아리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아.. 이제 학교생활 큰일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들어와서 활동을 해보니까 보인고에서 그 어떤 동아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동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후배 관계도 너무 좋구요, 지금은 그냥 OCN에 미쳤습니다. 너무 좋아요.

세훈 아마 여기서 제가 유일하게 OCN 부원을 모집할 때 지원을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춤을 추는 것을 좋아했는데 보인고등학교에 응원단 동아리가 있다고 해서 들어왔고 전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종원 1학년 때 실수로 동아리 신청 시간을 놓쳐서 동아리들을 둘러보다가 OCN이라는 동아리에 한 자리가 남아서 막 신청했는데 응원동아리인 것을 확인하고 좌절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활동을 해보니 너무 괜찮은 것 같고 항상 열심히 하는 형들을 본받아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K 역시 결국에는 다 만족하게 만드는 좋은 동아리인 것 같네요. 활동하면서 아쉽거나 서운했던 적은 없었나요?

종원 항상 공연이 끝나면 서로에게 아쉽죠. 자신은 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보면 실수한 것이 티나고.. 그런 것을 보면 살짝 아쉽지만 모두 끝나치고 난 후에는 다 잘했다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것이 참 따뜻해요.

형욱 연습할 때 다 같이 있어야지 연습이 되는데 그럴 때 다 따라줬으면 좋겠는데요, 개인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못할 때 조금 아쉬워요.

성욱 하나 아쉬운 점은 저희 단복이 15년 쯤 같은 옷이라는 것이예요. 새로운 단복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무대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K 단복에 대해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군요. 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OCN을 도중에 나간 친구들에 대해 느낀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태민 아 너무 배신자다. 저렇게 나가서 얼마나 잘되는지.. 조금은 패씹하고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훈 '우리는 고생하고 있는데 저렇게 나가서 얼마나 잘되나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형욱 직책까지 다 배정된 친구가 동아리를 나간다고 하니 어려움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큰 무대가 있을 때는 와서 함께 도와주니까 고맙고 용서가 되네요. (웃음)

세훈 여담인데, 단장이 동아리를 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섭게 노력합니다.

성욱 단장이 OCN을 사랑해서 OCN이랑 결혼을 할 것 같아요.

K 동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난 것 같네요. OCN (Original Cheerleading Number one) 동아리 이름에는 만족하십니까?

종원 저는 만족합니다.

세훈 아니요, 다른 학교 춤이나 응원동아리는 괜찮은 이름 같은데 저희는 조금 대충 지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형욱 OCN이라는 단어가 대중성 있고 외우기 쉬운데 약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

세훈 이 글을 보시는 독자분들이 생각나는 좋은 이름이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성욱 저희가 이름 때문에 영화 채널이냐고 조롱을 받았는데 이름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K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나 학교에 바라는 점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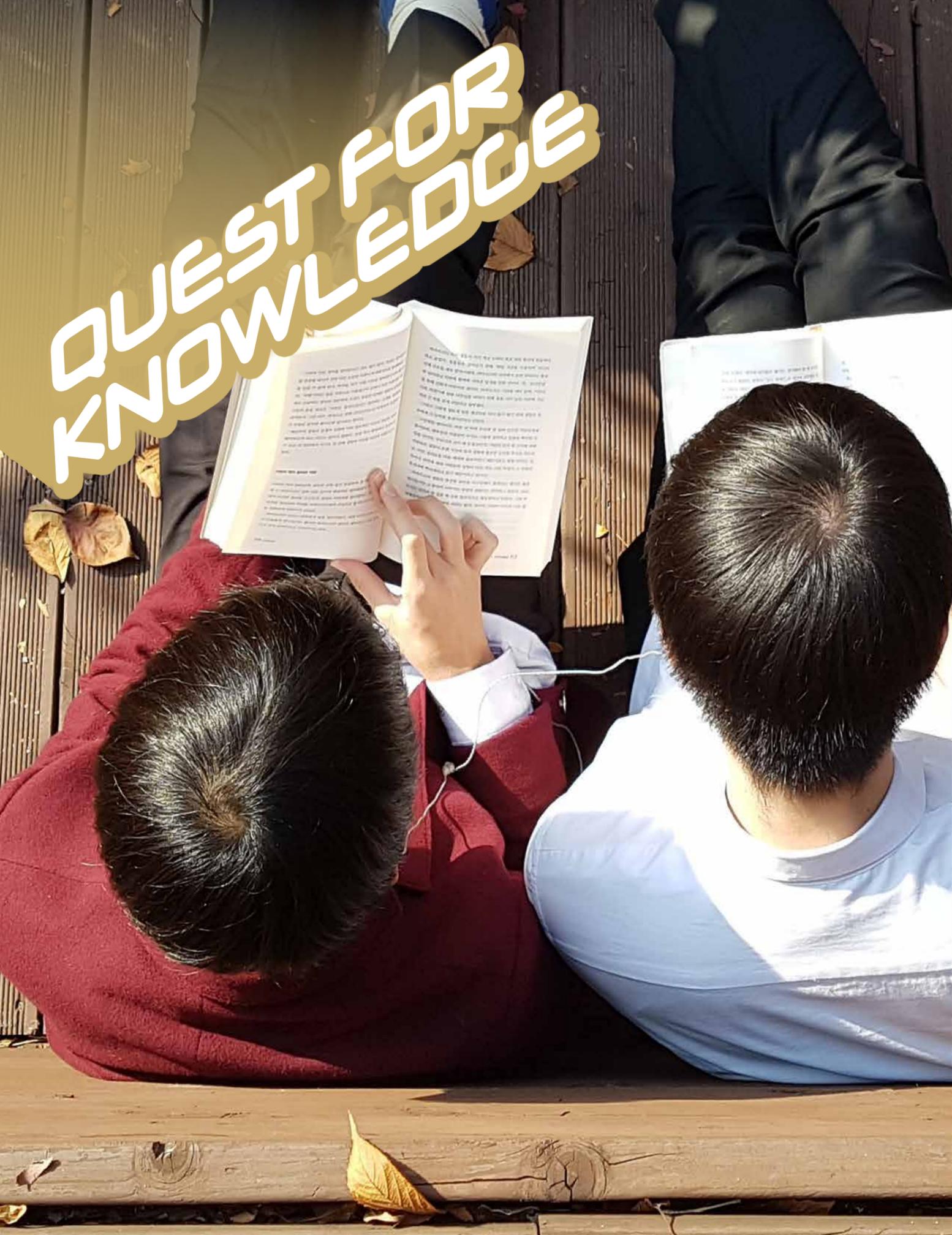
성욱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단복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저희 동아리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훈 저희 동아리 활동 매우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 OCN 분들 오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UEST FOR KNOWLEDGE



QUEST FOR KNOWLEDGE

우리 학교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숨은 재능과 역량을 이끌어 내고 있다. 창체 활동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입에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시행되기도 이전에, 인문계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생들이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했던 우리 학교. 보인의 역사 깊은 창체 활동의 중심에는 김영만 선생님이 계신다. **김영만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시작과 끝을 다루며, 중요한 정보를 쑥쑥 얻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진행되었던 각종 대회와 보고서, 수기, 백일장 우수작을 통해 학업 역량과 이를 표현해 내는 능력을 두루 갖춘 보인의 **스마트 브레인(Smart Brain)**을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1908

보인고 창체 프로그램의 성장 동력, 김영만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창체 이야기

1. 초창기 창체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

1) 학교생활기록부와 창의적 체험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기 전부터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기획 및 구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창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2010년도부터 교육계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이전부터 학교에서 이러한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자사고가 되기 이전부터 제가 담임한 학급의 반 아이들을 데리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시도하곤 했었죠. 그 땐 ‘창체’라는 명칭도 없었고 금요일 6,7교시에 배정된 ‘특별 활동’이 전부였지만 당시 제가 시도한 그러한 활동들이 현재 보인고 창의적 체험 활동 체계의 초석이 되었던 것 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행, 독서, 공연 관람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 이예요. 특히 배낭여행을 좋아해서 대학 시절 유럽 여행을 다니며 여행의 묘미를 알게 되었죠. 또, 대학에서 ‘답사 학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러 지역을 답사하며 그 지역만의 역사와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 에도 많은 즐거움을 느꼈어요. 이러한 활동의 즐거움을 학생들에게 알 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기에 학교 현장에서 이를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여행을 간다’가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 각 지역 속에 스며든 문화와 역사를 학생들이 경험하면서 인문학, 예 술 분야의 가치를 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이죠.

2) 제일 먼저 기획하셨던 창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2010년 6월에 1박 2일로 다녀온 컬처로드 문학기행으로, ‘남도 기행’이라는 프 로그램이에요. 전라남도 나주시(과거 금성시)와 나주군의 일부를 포함하는 행정 구역을 옛날에는 ‘나주목(羅州牧)’이라고 불렀는데, ‘해남, 광주, 진도’ 지역을 여행하는 일정이 었죠. 저는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 답사기’를 꽤나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책의 1권 1장 1절이 ‘남도 답사 일번지’이죠. 그 책에 매료되어서 ‘남도 기행’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 것이 첫 번째 창체 프로그램이 된 셈이죠.



3) 그 때 시행착오라든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고 그 이 후로 어떤 것이 개선이 되었나요?

● 컬처로드 문학 기행을 가기 전에 지금과 마찬 가지로 사전 보고서를 받았었어요. 그 지역을 가기 전 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더 많이 보고 느끼고 배 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사전 보고 서를 작성하며 조사한 내용이 충분히 학생들끼리 공유 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현 장 발표를 시작했죠. 마치 가이드가 여행지에 관한 정 보를 주는 것처럼 이동을 할 때 버스에서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풍성한 문학 기행 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또, 일정이 너무 빠빳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 어디’를 다녀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어떻 게’ 느끼고 왔냐인 것이죠. 한 곳을 가도 그 곳에서 친 구들끼리의 여행에서 오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재미와 추억을 쌓는다면 성공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깨달았 어요. 그 이후로는 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죠. 마지막으로, 날씨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가 오는 경우나 겨울에 다녀오는 경우 너무 추웠기 때문에 다른 대안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경험을 축 적하며 개선하게 된 사항이에요.

2. 보인고 창체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

1) 보인고 창체 프로그램이 가지는 차별성과 방향성이 무엇인가요?

● 솔직히 우리 학교의 창체 프로그램과 인근 학교들의 창체 프로그램을 비교하며 프로그램을 기획 한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비교보다는 객관적 이고 냉정하게 우리 학교만의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진 행하고 있죠.

우리 학교만의 차별성과 방향성은 ‘지속성’이라고 생 각해요. 입시와 관련하여 ‘보여주기 식’으로 일관하는 창체 프로그램은 어느 순간 그 명맥을 이어나가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창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좋 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게 만드 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보인고 창체 프로그램의 방향성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진 학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2) 선생님께서 가장 애착을 갖고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인문학 관련 컬쳐 로드와 소록도 봉사 활동, 글로벌 프로그램이 제일 제가 애착을 갖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컬쳐 로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 나머지 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네요.

소록도 봉사 활동은 보인고등학교만의 특색 프로그램으로 명성이 나 있죠. 제가 소록도를 가게 된 것은 봉사 활동을 통해 소위 말하는 ‘학생들의 스펙 쌓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컬쳐 로드의 첫 번째 여정이었던 ‘남도 기행’을 ‘나의 문화 답사기’라는 책에서 감명을 받아 진행한 것처럼, 대학생 때 이청준 작가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을 읽고 소록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소록도의 역사를 소재로 실제 인물을 모델로 창작된 이 소설에 깊이 매료되어 어느 날 밤 혼자 배를 타고 소록도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소록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대화를 하며 그곳이 지닌 역사와 의미에 대해 감동을 받았죠. 또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과도 잔잔한 추억이 있는 곳이죠. 저에게 소록도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담긴 곳을 이제는 학생들과 함께 매년 봉사활동을 하러 가고 있으니 제가 애착을 더욱 갖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세계화 프로그램으로, 중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등을 다니며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체득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행했었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을 많다’는 말이 제 가슴을 울렸죠. 우리 학교가 자사고로 전환이 되던 해에는 ‘백두산 고구려 유적지’를 다녀오기도 했어요. 초반에는 매년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 3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중단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심기일전하여 시도를 했고, 지난 1월 겨울 방학에 일본으로 글로벌 프론티어를 다녀왔습니다. 애착을 갖고 있던 프로그램



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실행되어서인지 더욱 벅찬 마음으로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3. 학생 활동 과정과 결과물에 관한 질문

1) 오랫동안 창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들과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조금 전 말씀드린 글로벌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이야기예요. 미국 공항에서 입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한 학생이 여권을 분실하는 사건이 있었죠. 결국 그 학생과 인솔자 한 분을 워싱턴 공항에 남기고 돌아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아찔했고 난감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제 1회 컬쳐로드 남도 기행을 가기 전에 부서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사전 답사’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인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체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셔서 교사 10명이 함께 했었어요. 마침 그 해에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는데, 답사 중에 그리스전 경기를 보며 함께 응원했었어요. 나주목에서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축구를 응원하는데 박지성 선수가 시원한 골을 넣어 주었죠. 그런 짜릿한 기억때문인지 더욱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2)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학생들에게 창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학업과 창체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어요. 이 활동 저 활동이 좋다고 해서 교과 성적을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창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향은 진로를 정하고 기본 베이스가 되는 교과 성적을 다지면서 이와 관련된 창체 활동을 찾아서 참여하는 것이죠. ‘학종 = 창체+교과’인데, 이 교과는 수행평가와 내신 성적이니까요. 본인의 스케줄이 창체 활동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진로를 빨리 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에 맞는 활동을 찾아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10개 했느냐, 진로와 관련된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포함해 20개 했느냐 등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단,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창체 프로그램의 참여 비율은 각 분야별로 ‘5:3:2’의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인문학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이라면, 인문학 프로그램 ‘5’, 인문학과 연관되거나 융합된 프로그램 ‘3’, 전혀 관련성 없는 과학이나 리더십 분야 프로그램 ‘2’가 적절한 참여 비율이지 않나 생각해요.

학년별로 이야기를 한다면, 1학년 때는 내신 성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창체 활동을 많이 찾아서 해야 하고 2,3학년 때는 창체 활동보다는 내신 성적

에 더욱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때 그 때 갑작스럽게 창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3월에 우리 학교 1년 교육계획서와 학사력을 꼼꼼히 살피며 전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홈페이지에 작년도 가정통신문을 찾아보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3) 학생들이 사전 보고서와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 ‘꿀팁’이 있다면 전달해주실 수 있나요?

: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사전 보고서에 너무 많은 공을 들여 여러분의 시간 활용에 실패하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사후 보고서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기장 같은 메모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활동한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가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활동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쓰고, 전공과 관련하여 덧붙일 부분을 조사하여 쓰고, 사진을 함께 첨부하면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어요. 매 활동이 끝나고 보고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잘 된 보고서의 공통점은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완성된 형태이며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두 녹아져 있는 보고서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인터뷰가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과학 창의 탐구 보고서 대회 우수작

과학 창의 탐구 보고서 대회 우수작

30915 신영수

I. 탐구주제

여러 가지 물체의 회전관성과 각변수를 간의 관계 탐구

II. 탐구동기

회전 운동은 우리가 사는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원만한 기계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타고 다니는 자전거나 자동차의 바퀴에서도 회전 운동을 볼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의 대부분은 모터를 활용하고, 심지어는 음료수 병을 탈 때도 회전을 이용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걸작 <인생선>에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중 하나인 평이 모양의 '토포'이 회전하는 장면에서도 회전 운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하려면 회전 운동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사람들에게 회전 운동에 관한 지식을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 또한 평진 운동에 대해서만 고민해왔지만, 회전운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헛갈렸다. 이를 계기로 회전 운동에 대해 공부해 보았고, 실험을 통해 여러 이론들을 눈으로 확인해보기도 했다.

회전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다 회전 운동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직선 운동에서 사용되는 변수와 완벽히 대응한다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중에서도 직선운동에서의 '질량'이라는 값에 대응되는 값인 '회전관성'이라는 물리량을 정의한 과정이 흥미로웠는데, 어떤 물체의 회전관성을 구함으로써 그 물체의 회전운동을 간단하면서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전관성을 구하는 과정은 꽤나 중요해 보였다. 그런데, 회전관성에 대해 공부하며 볼 수 있었던, 연속적인 물체의 회전관성을 적분으로 표현한 식인 $\int r^2 dm$ 이라는 적분 식은 적분 구간도 표현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로 회전관성을 구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어떠한 물체의 회전관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착안하여, 정서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물체의 회전관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을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 내에서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 후, 유도한 공식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실제 물체들의 회전관성을 구한 후, 물체에 임정한 크기의 토크를 줄 때 회전관성과 각가속도의 관계에 대해 실험해 보기도 했다.

보고서에 작성한 공식 중 몇몇 공식은 기존에 있던 식이고, 몇몇 공식은 필자가 새롭게 정의한 식이지만, 기존에 있던 식이라고, 보고서에 작성한 모든 공식은 그것을 유도하는 과정과 증명하는 과정이 기존과 방식과 다르고, 필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보고서의 어느 한 구절도 핵심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좋겠다.

III. 탐구과정

[탐구 1]

회전관성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회전관성과 관련된 여러 공식들에 대해 살펴보자.

> 뉴턴의 운동 제 2법칙을 회전관성 변수가 포함된 식으로 표현해보자.

> 물체의 운동에너지와 회전관성 변수가 포함된 식으로 표현해보자.

[탐구 2]

연속적인 물체의 회전관성을 구하는 식을 정적분의 정의를 사용하여 유도해보자.

[탐구 3]

병행축 정리에 대해 탐구해보자.

[탐구 4]

[탐구 2], [탐구 3]에서 구한 식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물체의 회전관성을 구해보자.

> 두 평면의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 밀도가 균일한 원기둥의 회전관성을 구해보자.

> 막대에 수직인 회전축을 갖는 가늘고 밀도가 균일한 막대의 회전관성을 구해보자.

[탐구 5]

물체에 작용하는 알파 토크가 일정할 때 물체의 회전관성과 각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실험을 통해 파악해보자.

[탐구 6]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의 대응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 1차원 병진운동에서의 선변수와 고장속을 갖는 회전운동에서의 각변수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 1차원 병진운동방정식을 고장속을 갖는 회전운동방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IV. 이론적 배경

1. 뉴턴의 운동 제2법칙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기 때문에 질량은 운동의 변화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며,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의 질량 및 가속도 사이에는 '힘 = 질량×가속도'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즉,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한다.

2. 질량중심, 무게중심

질량중심의 정의는 '물체를 구성하는 질량을 가진 모든 입자들의 평균적인 위치'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어떤 물체의 질량중심이란 그 물체의 모든 질량이 그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물체가 움직이는 점이다. 무게중심이란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개념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총 중력이 마치 한 점에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데,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총 중력의 작용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언뜻 보면 무게중심과 질량중심은 같은 점인 것 같지만 조건이 있다. 물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 중력가속도의 값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물체의 각 부분마다 중력가속도 값이 다르다면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다르므로 무게중심의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력가속도는

[참고 3]

병행축 정리에 대해 탐구해보자.

#탐구 목표

1. 물체의 질량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회전관성을 아는 경우 그 축에서 병행축인 회전축에 대한 회전관성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회전축 정리를 어떤 물체의 질량중심을 지나는 축 I_1 에 대한 회전관성 I_{cm} 을 알 때, 그 축과 평행한 다른 어떤 회전축 I_2 에 대한 회전관성 I 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리이다. 물체의 전체 질량을 M , 평행한 두 회전축 I_1 과 I_2 사이의 거리를 h 라고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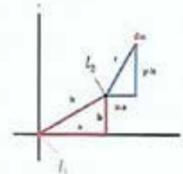
$$I = I_{cm} + Mh^2$$

이 성립한다. 다음 절에서 이를 증명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질량중심이 원점에 위치하고 두 회전축이 모두 z 축에

평행하도록 물체를 공간좌표에 위치시킨다. 물체를 구성하는 어떤 입자의 좌표를 (x, y, z) 라고 할 때, 입자와 회전축과의 거리는 $r = \sqrt{x^2 + y^2}$ 이다. r 의 최솟값을 r_0 , r 의 최댓값을 r_1 이라고 하자. 회전축과의 거리가 r_0 이상 r_1 이하인 입자들의 질량의 합을 $m(0 \leq m \leq M)$ 이라고 하자. 이때 I_{cm}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_{cm} = \int_0^M (x^2 + y^2) dm$$



4. 실험 준비물

공차물체 3개, 샤프트 3개, 풍차 헤드 3개, 풍차 기둥 3개, 풍차 받침대 3개, 정보, 레이 드라이기, 전자저울, 중자, 빨간색 유성매직, 순간접착제, iPhone 6



3) 파란색 정보로 질량이 50.5g, 밀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5cm인 원기둥 모양을 만든다.



7) 풍차 받침대, 풍차 기둥, 풍차 헤드를 왼쪽 그림과 같이 조립한 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을 갖은 샤프트를 헤드에 끼우고 샤프트의 반대쪽 끝에 공차물체를 조립한다.



9) 풍차A를 풍차헤드와 레이드라이기 사이의 거리가 4cm가 되게 아래와 같이 위치시킨 후 레이 드라이기를 들어 일정한 바람의 세기가 나오도록 유지한다. iPhone 6의 슬로우션 기능을 사용하여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을 240fps의 영상으로 촬영한 후 24frames 간격 (0.1초 간격)으로 회전체A의 각변위를 측정한다. 풍차B와 풍차C도 같은 방법으로 각변위를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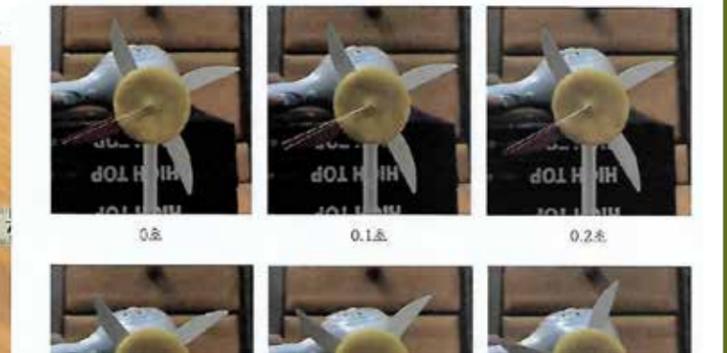
- > 풍차의 회전체에 기어지는 토크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 샤프트와 풍차헤드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무시한다.
- > 회전체의 각속도가 항력을 무시할 만큼 충분히 작을 때의 현상을 관찰한다.



6. 실험 결과

<A의 사진>

- > 각 사진마다의 시간간격 0.1초
- > 각 사진에 달려있는 캔션은 회전하기 시작한 후 경과한 시간을 뜻함.
- > 그림의 두 흰 선분의 사이의 각은 0.1초 전으로부터 회전체의 각변위



V. 느낀 점

일단 회전운동에 대한 오랜 여정을 끝마친 나 자신에게 짧게나마 박수를 쳐주고 싶다. '회전관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생각했던 분량보다 많은 분량이 나와서 놀라기도 했다. 실험사진이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 같다. 사실 회전관성을 쉽게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스스로 생각해 낸 방법에 관해서는 적년부터 보고서를 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과학탐구대회를 통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어서 기쁘다.

[탐구5]에서 한 실험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힘들었거나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다. 먼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회전체의 각속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였다. 가장 처음에 했던 생각은 풍차를 발전기로 만들어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한 다음 전류의 변화 양상을 통해 회전주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전기에너지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존재하며 회전체에 작용하는 일퍼트크가

경제 보고서 대회 우수작

30417 손민준

주제	현대 사회 도시의 역할을 통해 알아보는 Walkable City의 경제적 가치
선정 이유	70년대 도시 설계의 핵심은 효율적인 교통-운송 시스템의 구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애초에 자동차를 생각의 중심으로 두고 설계한 도시가 사람들의 공간이 될 수는 없었다. 자동차는 갈 수 있지만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 많아졌다. 이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걷기 좋은 도시'가 떠오르고 있다. 걷기 좋은 도시의 가치를 경제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공부해보고 싶어 결정했다.

1.서론

우리는 도시에 산다. 도시에서 식사를 하고, 도시에서 잠을 잔다. 누군가에게 도시는 돈을 버는 공간일 수도 있고, 혹은 돈을 쓰거나 여유를 즐기 위한 공간일 수도 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터전인 도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명료하다.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가진 도시를 사람들은 대개 원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도시, 하면 떠올릴 만한 공간은 위와 같이 여유로운 공간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자동차가 뿔뿔이 지나가고, 고층 빌딩들이나 아파트들이 뿔뿔이 몰려있고, 갖가지 환경 문제에 시달리는, 그런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도시를 떠올리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도시의 모습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도시는 이미 부동산 사업을 통해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며, '사람이 자동차를 배려하는' 이상한 공간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도시건설계획자 Jeff Speck은 도시에서 이러한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도시가 사람이 아닌 자동차를 위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기존의 도시들을 Walkable Cities, 이른바 걷기 좋은 도시로 개선하는 것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Walkable City란 무엇일까?

Walkable City는 위에 거론된 도시 디자이너 Jeff Speck이 제시한 개념으로, 걷기 좋은 도시라는 뜻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도시 문제인 Urban Sprawl, 즉 도시의 불규칙적 확산에 대한 신개념적인 대응책인데, 기존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2.경제적 유인

사람들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의사 결정을 하므로, 편익이나 비용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진다. 유인이란 편익이나 비용에 변화를 주어 사람들의 행동 및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을 말하는데, 특히 경제적 유인이란 사람들의 '경제적' 행동이나 선택을 유도하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을 말한다. 인센티브라고도 한다.

경제적 유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상이나 이득처럼 편익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를 더 하게 하는 긍정적 경제적 유인과, 벌금이나 손실처럼 비용이 증가하여 어떤 행위를 덜 하게 하는 부정적 경제적 유인이 있다. 긍정적 경제적 유인의 대표적인 예에는 인센티브, 승진 혹은 장학금 등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제



3.경제적 유인으로서의 걷기 좋은 도시

그렇다면 걷기 좋은 도시는 왜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우연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았다.

서울에 살고 있는 당신이라면, 테헤란로와 명동 거리를 알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두 거리 모두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거리'이다. 이는 높은 유동 인구나 부동산 가치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밑의 두 사진을 한 번 비교해 보자.



어떤 거리가 더 걷고 싶은 거리일까? 답은 당연하게도 밑의 명동 거리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왜 테헤란로를 걷고 싶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똑같은 아파트와 고층 빌딩들만이 줄줄이 이어진 공간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대답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유와도 일치한다. 테헤란로에는 바로 우연성이 부족하다.

우연성이 높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매일 보는 공간일지라도 다른 기본으로 마주할 수 있으며, 공간에 대한 예측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우연성의 정도는 접근 가능한 임구의 개수와 연관이 있는데, 다음 식처럼 표현된다.



-상점의 수가 n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2 개다.



5.활동을 마치며

이번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 성격의 도시를 원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미래의 선택으로 걷기 좋은 도시가 대두할 것이라는 것까지 알아보았다. 또한 걷기 좋은 도시의 우연성이라는 성질이 이 도시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고, 그것이 경제 개념 중 '경제적 유인'과 관련있다는 것까지 생각 해볼 수 있었다.

1.2학년 때 경제에 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경제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도시'라는 소재와 수업시간에 배운 경제 개념을 연결시켜보는 생각을 계속 했고, 결국 주제를 결정할 수 있었다. 평소에 좋아하던 주제에 대해서도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면서, 이를 경제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백일장
1학년
은문 부문
장원

젯빛 가을 (제시어:가을)

10120 이석주

남들은 가을이
좋다고 한다
서늘하고 붉은 계절인

계절의 붉고
누런 잎들이
나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까닭은
내가 회색인 탓이요
내 마음이 젯빛인 탓이다

젯빛 계절이 오는 것은
곧 내가 푸름을 잃고
천천히 침체하는 것이다

그들은 곧 울
고독을 준비하지만
이쁘다고만 한다



푸르름을 잃는 것이
얼마나 슬픈것인지
모르는 이들은

그 앞을 모르고
한없이 한없이
푸르려져 가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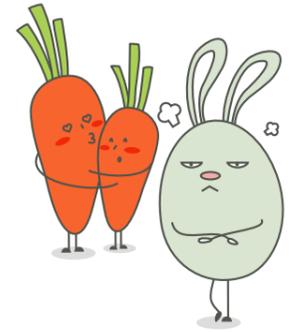
곧 그 앞에서
푸르름을 잃고
젯빛으로 변한다

나도 그렇다
항상 침체한다
그들이 그랬듯이

항상 푸르던 그들이
젯빛으로 변할 때
나는 함께 고독을 준비한다

백일장
1학년
신문 부문
장원

누구의 문제 (제시어:따돌림)



10330 조기호

나는 오늘도 혼자이다. 멀리서 소위 '인싸'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바라본다. 언제부터인가 익숙해져온 혼자만의 생각과 혼잣말.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께 아무리 말해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어야 한단다.

오늘부터 난 적극적인 아이로 변해야겠다. 잘나가는 아이 옆에 서서 매점 음식도 사주고 PC방 비도 내주었다. 무슨 일이든 같이 움직이고 무슨 감정이든 공감해주었다.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난 후회하지 않는다. 내일은 수학여행이고 친구들끼리 조를 짰다. 나와 짝이 된 친구들은 노는 친구들, 인기 많은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도 아닌 나와 같이 선택 받지 못한 친구들이다. 다들 싱글벙글하고 기대심에 부풀어 오를 때 나는 절망에 빠지고 좌절했다.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들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기대심에 차서 밤에 잠에 들지 못할 때 나는 설움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 하고 첫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은 다 나를 무시하며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본다. 어김없이 버스 안에서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담임 선생님. 선생님은 학교생활은 괜찮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사실 너무 힘들고 죽을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지고 망가졌지만 그렇게 슬며시 손목 위에 그어진 자국 하나를 움켜쥐었다. 수학여행에서 다른 친구들은 밤을 제일 기다리는 눈치였고 밤

이 되자 모두 방을 옮기고 파티를 준비했다. 나도 파티에 끼려고 과자도 사고 음료수도 샀지만 그러지 못했다. 사실 그럴 줄 알았다. 나는 이 익숙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혼자'가 되기로 했다.

수학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날 나는 혼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누구를 위하지도 않고 나대로 지낸다. 외로움은 내 마음 속에 품고 충실히 내 생각과 마음을 갖고 나를 위해 산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도 사라지고 기쁨만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둠의 바다에 갈매기만큼 조그만 기쁨이 있는 거였다. 나는 다시 어둠에 집어 먹히고 삶의 의욕도 잃었다. 괜스레 눈물이 났다. 난 노력도 하고 관심도 받고 싶었지만 자꾸만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나의 성격이 문제일까? 아니면 나의 담임 선생님이 잘못일까? 친구들의 잘못일까? 땅을 치고 거울도 부수고 화도 내봤지만 망가지는 건 나였다. 누구라도 탓하고 싶어서 실컷 남의 탓을 하면 나의 잘못이 더 커져가는 것 같다. 단 한 명의 친구가 나에게 말을 걸어 주었다면, 조그만 관심이라도 가져 주었다면, 나의 성격이 이렇지 않았다면, 또 후회하며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한 줄을 내 손목에 긋는다. 사람의 문제일까? 아니면 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다. 그래서 난 결심했다. 계속 나 혼자가 되기로.

백일장
2학년
신문 부문
장원

자화상 (제시어: 추억)

20217 이민서

여름날의 버스는
조용히 앉아 잠을 청하는
어린 소년을 싣고 갑니다
의자를 겨우 채운 몸집의 소년은,
유리차창과 에어컨 냉기에 의지하여
잠을 청합니다.
책가방을 메고 교통카드를 움켜쥔
소년의 행색은,
어찌선지 낮이 설지 않습니다.

나는 소년이 목적지를 놓치지 않았을까,
부채질을 시늬하며 무릎을
툭, 다시 툭, 쳐봅니다.

소년은, 잠에서 문득 깹니다.
노래로 맘을 흠칩니다.
창밖으로 급히 시선을 옮깁니다.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내 정거장에서 황급히 내립니다.



나는 소년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버스 밖에 소년의 모습을 지켜보려 합니다.
버스의 문이 닫히자
소년은 이내 사라집니다.

저상버스 유리창은
소년의 모습을 비추기엔
너무 높은가봅니다.

아니, 소년은 키가 저상버스의
유리창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어린가봅니다.

백일장
2학년
신문 부문
장원

시간에 대한 의식의 흐름 (제시어: 시간)



20328 최정환

시간이란 말을 한자 뜻으로 풀이하면 때와 때의 사이
를 말한다. 하루라는 시간은 해가 뜨고 지는 때의 사이
에서 정해졌다.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시각이라는 사
람들 사이의 약속한 때의 사이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시간이 기준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
는 사실이다.

한 시간(1 hour)은 서양의 시간 개념이다. 그들 사회
는 24개의 구분점을 기준 삼았기에 한 시간이 하루의
24분의 1이다. 하지만 동양의 시간 개념은 12개 구분
기준 삼아서 서양의 것보다 딱 두 배되는 시간을 가진
다. 그리고 이 같은 시간 개념의 차이는 극명히 드러난
다. 동양은 식경, 다경, 춘각을 말하고 서양은 시, 분,
초를 말한다.

문명 간의 시간 개념도 이토록 차이가 난다. 그렇다
면 행성 간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면 어떨까? 외우주
로 우리 인류가 진출했을 때, 지구의 자전과 태양의 뜨
고 짐을 기준으로 한 하루의 개념은 통하지 않을 것
이다. 미국이 원자시계를 이용해 1초를 새로 정의했
지만, 우주 어디서나 세슘-133 원자가 진공상태에서
9192631770번 진동한다고 해서 우리 인류가 그 시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상대성 이론
에 의해 분석되는 거시우주는 시공간의 왜곡으로, 양자
역학에 의해 분석되는 미시우주는 불확정성으로, 인류
가 관측하고 기준 삼을 '때'를 제시하지 못한다. 다시 말
하자면, 인류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준 삼을 '때'가 없기

때문에 시간도 통일되지 못한다.
같은 행성에서 태동한 덕분에 수 천 년간 부분적이
나 유지해온 시간의 통일성이 더 이상 보편적이지 못하
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그 미래의 인류는
시간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
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대답도 있다. 인도의 순환관과
서양의 직진관이다. 같은 행성인 덕에 '시간'의 통일성
은 있었지만 인도인들은 윤회 사상 같이 순환하는 것을
시간으로 여겼다. 서양인들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시간으로 여겼다. 둘이 가진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랐
던 것이다.

이러한 시간 개념의 차이는 오늘날에도 알 수 있듯
이 굉장한 문화적 차이를 낳았다. 단순히 인식의 차이
가 사상, 예술, 사회, 정치, 경제 방면에서 전면적인 영
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진데 우리 시대에 나아가 시간
의 통일성도 틀어진다면 여기서 비롯되는 다양성과 또
다시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인류 문화의 발전이 기대된
다. 새로운 사상과 종교가 출현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은
하 건너의 인류와는 다른 시간대를 살면서 진화의 분기
가 나눌 가능성도 없다고 하진 못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공간에 대해
그랬듯이 시간을 정복하려 할 것이다. 시간의 초월을
향해, 니체가 말했듯이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 영원이
여!"

자기주도학습
수기 공모전
우수작

자신의 언어로 셀프 테스트와 필기 동시에 하기

20309 김준혁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공책에 필기를 많이 합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은 분명히 암기에 훌륭한 효과가 있죠. 하지만 암기에 더 유용한 방법을 찾자면 바로 셀프 테스트입니다. 셀프 테스트는 자신이 외운 것을 바탕으로 잊었을 때 쯤 스스로 시험을 봐서 무엇을 암기했고 무엇을 암기하지 못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암기해야 할 부분을 그대로 공책에 필기하는 것은 그저 베껴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난잡한 정보들을 깔끔하게 모아 정리하는 것은 분명 암기에 유리하지만 그런 깔끔한 정리는 사실 자습서를 보면 훌륭하게 정리되어 있죠. 저는 셀프 테스트와 필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필기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필기법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언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나 자습서에는 가장 간결하고 효율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선택하여 기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암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자습서보다 노래 가사나 시 구절이 더 외우기 쉬운 이유는 우리가 익숙한 구어체 사용 때문일 것입니다. 즉 자신의 언어란 교과서나 자습서의 단어들을 자신이 쉽게 기억할 만한 언어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아편전쟁을 예로 들어볼까요?

제 1차 아편전쟁: 영국이 무역 적자 해결을 위해 아편을 청에 밀수출, 은 유출로 인한 청 제정 파탄. 임칙서가 아편 몰수, 영국의 공격으로 청 패배, 난징조약(홍콩 할양, 5개 항구 개항) 호문 추가 조약(최혜국 대우, 영사 재판권 상실)

이것이 자습서에 쓰여져 있는 제 1차 아편 전쟁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공책에 적어 쓴다면 또 다른 자습서를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공책에는 여러분의 언어와 셀프 테스트를 위한 아주 적은 정보만이 필요합니다. 우선 원인과 결과를 찾아보죠. 영국이 청을 공격해서 이겼다. 왜? 청이 아편을 다 몰수했거든 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왜? 영국이 아편을 밀수출했잖아.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을 구어체로 치환해봅시다. '몰수'는 '빼앗다'로 '밀수출'은 '몰래 팔다'로. 한자를 우리말로 바꾼 것뿐이지만 조금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공책에는 이렇게 적으세요.



영국이 돈 좀 벌려고 아편 때문에 청이랑 전쟁함. 청은 뽕을 뜯기고 한번 더 뜯김. 중요한 내용은 들어있지도 않고 아주 간략한 줄거리만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셀프 테스트를 할 때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문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통해 난징 조약과 호문 추가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답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약의 내용을 나의 언어로 치환해보겠습니다.

홍콩 할양 > 땅 뺏기, 항구 개항 > 문 열기, (전쟁에 의한 뽕뜯기)

최혜국 대우 > 서비스 무료 업그레이드, 영사 재판권 상실 > 로마법 무시 (한번 더 뜯기)

치환된 단어들이 유치하고 억지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이 단어들을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관'할 수만 있으면 성공입니다.

최종적인 노트 필기를 써봅시다.

영국이 돈 좀 벌려고 몰래 판 아편 때문에 청이랑 전쟁해서 뽕을 두 번 뜯음. 청은 땅 뺏기고 문이 열렸는데 그걸로도 부족한 영국은 서비스 무료 업그레이드랑 로마법까지 무시함

이 한 문장으로 1차 아편 전쟁의 필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저의 언어로 썼기 때문이죠. 저는 영사 재판권 상실 이란 단어를 보고 '로마법은 로마법대로'라는 문구가 생각났기에 '로마법 무시'란 단어를 연관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통해 구체적 암기의 지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필기법의 장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 필기법 최고의 장점은 효율에 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연관 정보만을 작성하기 때문에 필기 시간을 줄일 수 있죠. 또한 필기된 문장을 활용하여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셀프 테스트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기와 셀프 테스트의 비중을 따지자면 3:7이 적당합니다. 구체적인 용어나 내용은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면적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적은 페이지에 아주 많은 정보량을 압축시켜 넣을 수 있으며 시험 날 여러분은 그 공책과 교과서를 가지고 우선 공책을 보면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교과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서술형 답을 할 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서술형 답을 작성할 때 제 공책의 문장을 그대로 시험지에 적어놓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이 필기법을 설명하면서 저의 필기법에 대한 특징과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력이 좋지 않더라도 상상력만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탐구과목의 방대한 정보량에 답답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이 글을 읽고 더 쉽고 편하게 암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수기 공모전
우수작

교과서 내용을 기초로, 확장 조사하는 학습 태도

20212 남건

사회문화 교과서에 실린 “성 불평등은 가부장제적 가족 제도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 온 결과이다.”라는 토막글은 제가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저는 성별이 아닌 능력에 따라서만 사람이 대우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를 공부하며 성 불평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저는 사회문화 시간에 ‘유리천장’에 대해 발표하며 교과서의 내용을 실제 통계와 설문조사를 보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이러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더불어 “페미니즘이 좋은 이론이라면 왜 논란이 많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현재의 급진적 페미니즘을 넘어 남녀 간의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속한 동아리 ‘보인시사부’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부원들과 상의하여 메일을 보내 저자분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자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성차별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 정신을 실현해야한다는 것과, 전통적인 남성상에서 비롯된 차별적 인식과 같은 페미니즘이 다루지 않는 남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의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로 인해 여성이 차별을 당해오기는 했지만, 남성도 동일한 사회 구조 속에서 역시 차별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남녀가 공존의 관계로 나아가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과서에서 나온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던지고 답을 해결해나가는 태도를 갖추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웠던 개념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사회학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의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회학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싶습니다.



STRIVING FOR DREAMS

STRIVING FOR DREAMS

교육, 경영, 어문, 언론, 국제, 홍보, 물리, 생명공학, 산업공학, 인공지능, 건축, 의예, 음악, 스포츠... 우리들의 **진로와 적성**은 매우 다양하다. 교육과정 상의 교과목만을 무작정 공부하고, '점수 맞춰'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와 적성을 발견하고,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관심 분야**로 진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현 교육의 방향이다.

교지편집부 19명의 부원들은 이러한 교육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적성을 고민하였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였다. 여러분의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 다양한 읽을거리를 통해 색다른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1908



4차 산업혁명 속 살아남을 학과는

10128 정지민

전국의 대다수의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인고 학생들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꿈꿀 것이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무슨 대학에 가는지 보다 무슨 학과에 가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단순히 대학만으로는 취업도 잘 되지 않아 학과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미래 유망 학과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글을 통해 미래 유망 학과에는 무엇이 있는 지 알아보자.

(1) 항공정비학과

요즘 YOLO 등을 외치며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여가,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그 중 특히 해외여행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어 지난 해에만 해외 출국자가 2,650만명에 달할 만큼, 항공산업은 매년 10%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여러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우거나 항공편을 확대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정비사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항공기 정비에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항공정비학과의 취업률은 매년 올라가고 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직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10년 후 제조업종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항공정비사가 고용 안정성 1위, 임금 및 보상 영역 1위를 차지할 만큼 전망 역시 좋다. 만약 자신이 비행기에 관심이 많다면

항공정비학과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2) 컴퓨터공학과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되면서 직업 세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IOT, CPS, 인공지능 등을 개발하는 IT산업은 끊임 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래서 이러한 IT 기기의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컴퓨터공학과에의 전망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컴퓨터공학과에서는 프로그래밍,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을 배우게 되는데 이 과목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모의해킹전문가,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자 등 새롭게 창출될 IT산업 관련 일자리에 쓰이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사이버수사대와 같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금융, 은행 등 많은 대기업 등에 채용될 수 있어 실력만 있다면 미래가 보장되는 학과로 불린다.

(3) 사회복지학과

많은 사람들이 문과 관련 학과들은 이과 관련 학과들에 비해 취업이 힘들어 전망이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 학과를 생각지 못하고 내린 판단이다. 바로 사회복지학과이다. 사회복지학과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사회 계층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학과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평균 수명 역시 높아지는 등의 원인으로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접어

들고 있고 장애인,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사회 계층들을 위한 복지 체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어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복지관, 생활시설, 아동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고 사회복지관련 직업들은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우리의 일자리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10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 속에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직종을 볼 줄 알아야 하며, 그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관련 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것이 현명한 진로 설정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커리어넷, 세계경제포럼, 네이버 블로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11231 최호준

1,2,3차 산업혁명이 하드웨어시대라면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시대다. 단순히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자원 없이도 상상력과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1차), 전기(2차), 디지털(3차)의 세 차례 산업혁명과는 다르다.

18세기의 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인간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19세기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자동차의 보급으로 인류에게 대량생산과 편리한 생활의 혜택을 가져 왔으며, 20세기 제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출현으로 자동화와 인간의 두뇌 노동력을 융합하여 현실세계와 인터넷 세계라는 두 개의 세상을 만들어 주는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의 기반 위에 가상의 세계가 융합되고 여기에 인공지능, 3D프린팅, 무인자동차, 로봇, 바이오테크놀로지 등이 융합되어 차세대 기술혁신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첫 바둑대결은 인공지능(AI)과 인간의 대결로서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충격과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

이는 곧 산업에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함으로써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며, 인간의 두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



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기업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인 미국과 비교하면 인공지능은 26년, 빅 데이터 플랫폼은 1.6년 정도 격차가 난다. 선진국 기업들은 인공지능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의료 인공지능 '왓슨'의 경우 암 진단 정확률이 무려 96%로 전문의보다 정확하다. 우리 한국은 3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이 완벽하여 노력만 하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은 노령인구가 많고 저출산 국가이기에 한편으로는 매우 뒤쳐질 수 있는 요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속도를 자각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히 연구해 나가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직업, 정보 보안 전문가

10219 안준영

인류는 산업 혁명 이래로 급격히 발달을 거듭해왔다. 여러 변화들이 생겨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멜서스 트랩의 붕괴'이다. 멜서스 트랩이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경제 체제의 변화로, 인류는 생산성을 극도로 향상하는데 성공했고 식량 생산은 과거와 달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는 더 큰 변화가 따를 것이고, 이에 대비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인 4차 산업 혁명은 대체 무엇일까? 4차 산업 혁명은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 모바일 첨단 정보 기술통신이 사회 및 경제에 융합되어 과거와 달리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 혁명이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딩을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다. 정부조차 대비를 하는 4차 산업 혁명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굴까?

날로 갈수록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갈, 총으로 싸우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느냐는 것이 힘이자 경쟁력이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바로 정보 보안 전문가이다. 4차 산업 혁명에서 다루지는 운영 체제,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관리,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아무래도 정



보를 지키는 일인 만큼 실력이 뛰어나고 경력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미래에는 더 많은 해커들이 날뛰고 기업과 정부는 정보를 악착같이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보 보안 전문가이다. 정보 보안 전문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보 보호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보안 제품 개발자', 악성코드를 분석하여 악성 코드의 종류와 특징을 분석하고 악성 코드에 대한 치료 데이터를 만들고 기존에 있던 백신 프로그램에 악성 코드를 치료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하는 '악성 코드 분석 전문가', 고객의 업무와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정보 자산에 대한 위험과 취약점을 진단하여 보안 관점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고 만들어진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고객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설계하는 '보안 컨설턴트' 등이 있다. 정보 보안 전문가는 연봉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망이 가장 좋은 직업이다. 정보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학과/정보보호학과를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일반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를 나와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각종

운영 체제 / 하드웨어 / 프로그래밍 / 서버 / 데이터 베이스 / 네트워크 보안 / 서버 보안 / 어플 보안 / 웹 보안 / 리버싱 등 보안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요구로 한다. 여러 학과 중 가장 어렵지만 명성이 가장 높은 0.1퍼센트의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는 정보 보안 각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이 있으며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빛내고 미래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어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사람들인 정보 보안 전문가,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직업인 것 같다.



국내 유일 외국인 한의사 그는 누구인가?

10906 류호승

우리들은 한의사 하면 대부분 동양인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여기 그 통념을 깨는 이가 있다. 그는 배낭여행 중 한의학이라는 신비한 매력에 꽂혀 한의대에 입학 후 "독일에선 침술도 의료보험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한의학을 할데하는 부분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그의 이름은 라이몬드 로이어(46). 어느덧 10년차 한의사다. 그는 강남 오당 한의원 부원장 및 강남 인 한의원 원장을 거쳐 5년 전부터는 자생 한방 병원 국제 진료 센터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외국인 환자를 주로 담당한다. 국내에 중국이나 대만 출신 한의사는 여럿 있지만, 서양 출신 외국인 한의사는 그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그러한 관심 덕분인지, 그의 진료실은 언제나 환자들로 붐빈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에서의 현재 삶이 무척이나 행복하다"며 "한의학의 우수성과 효능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며 웃었다.

그가 한의사가 된 건 '우연'이 '필연'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동방'을 동경했던 그는, 애초 3개월 일정의 한국 배낭여행을 계획했고 대학 졸업 후 다니던 번듯한 직장에 불쑥 사표를 던지고, 1987년 가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굳이 한국행이었던 건 '전혀 모르는 나라'였기 때문이었고 이것은 첫 번째 우연이 되었다. 이 때는 88 서울 올림픽을 치르기 전이었기에 그뿐 아니라 유럽인들에게 '한국'은 생소한 나라였다. 그의 가족



들이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나라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느냐?"며 한국행을 반대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 두 번째 우연은 그가 한국에서 태권도를 배우다가 발목을 삐었고, 그로 인해 한의원에서 침을 맞게 된 것이다. 그는 "아픈 곳은 발목인데 손, 발가락, 귀 뒤 등 여러 군데 바늘만 꽂더라고요, 군데 신기하게도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침술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뽕' 뚫리는 느낌이었죠."라며 한의학의 신비에 대해서 말했다. 이 순간 한의학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 약초의 향기, 침과 뜸의 효능 등 한의학의 모든 것이 궁금해졌다. 그

가 말했다. "참으로 특이한 의술이에요. 병의 원인균만 죽이는 치료가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특성에 따른 맞춤 치료를 하니까 말이죠."

결국 그는 한의학을 직접 배워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배낭여행을 마친 뒤 오스트리아에서 다시 한국행 짐을 쌌다. 1989년 연세대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 이듬해 강릉대 철학과에 입학해 동양 철학과 한문학을 전공했다. 1991년 2년의 준비 기간 끝에 대구한의대(옛 경산한의대)에 입학했다. 그는 과거 한의사 협회 홍보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국제 약침 학회 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학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지금의 인생에 아무런 후회도 없다. 한국 생활 역시 그렇다. 정 많고 생기 넘치는 한국 사람들이 무척 좋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다.





세계 축구 클럽들의 브랜드 가치 순위는?

11202 강완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축구,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 해외 축구에 대한 애정도 엄청난데요, 2019 교지의 앙케트(스포

츠)에서는 영국 브랜드 평가 기업 '브랜드 파인낸스'가 발표한 2018년 전 세계 축구 클럽 브랜드 가치 TOP10을 알아봤습니다.

과연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팀이 브랜드 가치 TOP10에 속해있는지, 속해있다면 몇위를 차지했는지 확인해보시죠.

10위는 \$7억6400만(8289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토트넘FC가 차지했습니다.

토트넘은 10위권에 있는 클럽들 중 유일하게 한국인 선수(손흥민)가 속해있는 클럽이기도 하네요. 현재(11월 14일) 토트넘은 리그(프리미어리그)4위와 챔피언스 리그 B조 3위로 리그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챔스에서 바르셀로나, 인터 밀란을 상대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9위는 \$9억1300만(9905억 원)으로 파리 생제르맹 FC가 차지했습니다. 작년7위에 비해 2계단이 떨어졌네요. 현재(11월 14일)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프랑스 리그)1위를 압도적인 승점차이로 유지하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C조 3위로 리버풀, 나폴리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8위는 \$10억8300만(1조 1749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아스널FC가 차지했습니다. 아스널부터는 클럽 브랜드 가치가 1조원을 넘어가네요. 현재(11월 14일) 아스널은 리그(프리미어리그)에서는 5위를 달리고 있으며 유로파리그에서는 E조 1위를 달리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7위는 \$11억9500만(1조2965억 원)으로 첼시FC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4위에 비해 3계단이 나 떨어졌지만 현재(11월 14일) 리그(프리미어

리그)에서 12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나가며 리그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로파리그에서도 L조 1위를 차지하며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6위는 \$12억400만(1조3062억 원)으로 리버풀 FC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9위에 비해 3계단이나 오른 리버풀은 현재(11월 14일) 리그(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와 마찬가지로 12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나가며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C조 1위를 달리며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는 \$13억3100만(1조1440억 원)으로 맨체스터 시티FC가 선정되었습니다. 작년6위에 비해 1계단 상승한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11월 14일) 리그(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 리버풀과 마찬가지로 12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나가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F조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등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위는 \$14억600만(1조5254억 원)으로 FC 바이에른 뮌헨이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5위에 비해 1계단 오른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11월 14일) 리그(분데스리가)에서는 5위를 하며 불안한 모습을

순위	클럽명	브랜드 가치 (\$)	브랜드 가치 (조원)
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18,950,000,000	189.5
2	레알 마드리드 CF	\$15,730,000,000	157.3
3	FC 바르셀로나	\$15,110,000,000	151.1
4	FC 바이에른 뮌헨	\$14,600,000,000	146.0
5	맨체스터 시티 FC	\$13,310,000,000	133.1
6	리버풀 FC	\$12,400,000,000	124.0
7	첼시 FC	\$11,950,000,000	119.5
8	아스널 FC	\$10,830,000,000	108.3
9	파리 생제르맹 FC	\$9,130,000,000	91.3
10	토트넘 홋스퍼 FC	\$7,640,000,000	76.4

보이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E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우영의 1군 데뷔를 두고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구단이자, 3위는 \$15억1100만(1조6393억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FC바르셀로나가 차지했습니다. 현재(11월 14일)바르셀로나는 리그(라리가)1위와 챔피언스 리그B조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2위는 \$15억7300만(1조 7065억 원)으로 레알마드리드CF가 차지했습니다. 레알마드리드 또한 작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호날두의 이적으로 인해 내년에는 순위하락이 예상되는 클럽입니다. 현재(11월 14일) 리그(라리가)에서는 6위를 하며 다소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G조1위를 달리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18억9500만(2조 559억 원)으로 작년에 이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FC가 차지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클럽답게 모든 팀들 중에 유일하게 브랜드 가치 2조원을 넘겼네요. 현재(11월 14일) 리그(프리미어리그)에서는 8위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H조 2위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야구장 직관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

10909 박준호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다. 지난 3월, 2018 프로야구의 개막을 시작으로 수많은 야구팬들을 설레게 하는 경기들이 펼쳐졌다. 야구는 경기 자체로도 재미있지만 야구장에 직접 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응원하며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야구를 잘 모르는 초보자들도 야구 직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KBO 리그 직관 팁과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각 구단별로 선수들의 응원가가 정해져 있는데 인터넷으로 응원하는 팀의 선수들의 응원가를 사전에 알고 가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라 부르며 응원할 수 있어 경기 관전의 재미가 배가 된다. 개인적으로는 응원가를 외워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손 아프게 손뼉을 치며 응원을 하는 것보다 경기 시작 전에 막대 풍선과 같은 응원 도구를 사서 들어가는 것이 더 낫



다고 생각한다.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파울 볼이 관중석에 날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관중석에 떨어진 공을 줍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밀치며 뛰어가는 행위는 여러 사람들이 몰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야구장 안내 데스크에 가면 무료로 글러브와 헬멧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미리 나가거나 사람들이 거의 나갔을 때 가는 것이 좋다. 또한 관중이 늘면서 쓰레기 또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쓰레기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깨끗한 야구장 관람 문화를 만들기를 바란다.





특이한 해양생물들

10119 이동훈

1. 키메라 (유령 상어)



물고기는 보통 아가미를 통해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통해 호흡을 한다. 하지만 여기 아가미가 아닌 콧구멍으로 호흡하는 물고기인 키메라가 있다. 이 물고기는 철판 여러 개를 붙여 놓은 듯이 프랑켄슈타인처럼 기괴하게 생긴 외모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깊은 심해에 사는 생물이다. 상어처럼 생겼다고 해서 유령 상어라는 이름이 있는데, 단지 생김새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상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일각고래



혹시 바다의 유니콘이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머리에 기다란 뿔 하나가 달린 고래가 있다. 일각고래는 북극에 사는 중형 고래로, 몸집이 5m 정도 자라지만 뿔이 3m까지 자란다. 사실이 뿔은 전설 속 유니콘의 뿔과 같은 것은 아닌 일각고래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이빨 중 하나로, 윗입술을 뚫고 튀어나온 것이다. 엄니라고 불리는 이 뿔은 수컷이 암컷의 것보다 크며, 길이를 찾거나 수컷들이 암컷을 두고 경쟁을 하는데 사용된다. 신비롭게 생긴 외모로 인해 암거래가 많아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3. 살프



투명하고 젤리 같은 생물로 잘 알려진 해파리. 그런데 해파리와 같은 이런 생물이 또 존재한다. 해파리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어야 하기 때문 심해가 아닌 위쪽에 사는 살프는 해파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오히려 멍게와 미더덕의 친척이라고 볼 수 있다. 살프는 플랑크톤을 많이 먹어서 적조 현상을 해결해주지만 플랑크톤을 너무 많이 먹게 되

면 무거워져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죽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죽어서도 거름이 돼서 해양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생물이다. 무거워지면 안 되기에 혼자 다닐 것 같지만 옆으로 붙어서 몰려다니며 이동을 한다.

4. 스타게이지 피시



별을 바라보는 물고기. 이 물고기의 영어 명칭만 봤을 때, 영롱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생각난다.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엄청 무서운 면을 가졌는데 모래 속에 감쪽같이 숨어 있다가 먹이가 지나가면 훅 나와서 낚아챈다. 무서운 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기뱀장어처럼 엄청난 전기 충격은 아니지만 충동이 위협적인 전기를 눈 뒤에서 가할 수 있어서 자신의 먹이를 빼앗는 생물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먹이를 지키거나 자신의 먹이를 전기 충격을 가해 기절시키는데 사용한다. 또한, 독가시도 가지고 있으며 그 크기 역시 매우 큰 물고기로 영어 명칭과는 너무 다른 어종이다.



11028 이준혁

예술과 과학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노래를 들을 때 그리고 실험을 할 때 등과 같이 일상 속에서 예술과 과학을 많이 접한다. 이 둘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접하는 것들이지만 예술과 과학이 서로 관련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예술과 과학이 관련 있는 경우들을 알아보자.

선원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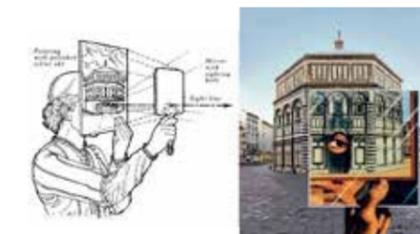
선 원근법이란 간단히 말해서 기울어진 선의 장치가 화면 뒤의 어떤 공간적 깊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읽히도록 하는 방식인데 과학이 예술에 미친 대표적인 영향이다. 선 원근법은 14세기~15세기에 살았던 이탈리아의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다. 이 방법은 건축물의 조감도를 나타내기 위해 쓴 방법인데 비례와 조화에 관한 것들을 따르고 있다. 선 원근법을 좀 더 계량한 방법이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그린 선 원근법이다.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기하학을 모르면 예술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기하학에 충실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랬듯이 이 방법은 좀 더 기하학적인 원리를 근거하고 있다. 선 원근법을 나타낼 때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실제 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얼마나 일정하게 표현하는가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하학의 비례를 가져오게 된다.

선 원근법은 삼차원의 대상물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대상들이 이루는 공간 내에서의 원근

을 표현하기 위해 소실점을 도입했다. 이야기 안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크기와 위치가 배열되는 중세의 방식이 개념적인 배치라면, 과학적인 투시에 따른 원근법의 사용은 시각을 중시하는 사실적인 배치 방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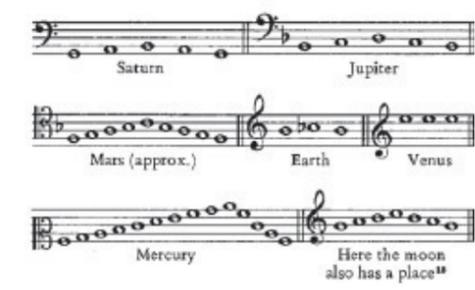
케플러

케플러의 1, 2, 3 법칙은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들이 타원 궤도를 이루며 태양을 돌고 있고 그 행성의 운동 속력은 태양에 가까이 올수록 빨라지고 멀어질수록 느려진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태양을 도는 공전주기와 공전 반지름 사이에



는 특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음악의 영향을 받았는데, 폴란드 천문학자였던 케플러는 작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악에도 진동수와 같이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도 반드시 규칙성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음악의 규칙성을 통해서 세계의 규칙성을 주장하려 했다. 그는 음악의 규칙성을 이탈리아 여행을 하며 만난 악사들과 음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음악의 규칙성에 예를 들면 각각의 음에는 진동

수가 있고 1초에 많이 떨릴수록 고음이 되고 적게 떨릴수록 저음이 되어서 보통 기준 음을 잡는 라음에 경우 440헤르츠, 1초에 440번 진동한다. 더 나아가 음과 음 사이에는 규칙이 있는데 반음과 반음 사이에는 약 1.06배의 진동 차이가 있어서 도, 미, 솔 3음으로 비례를 본다면 1:1.25:1.50이다. 케플러는 이러한 규칙성을 과학에 옮겨왔다. 케플러가 쓴 유명한 책인 '세계의 조화'라는 책을 보면 음표를 통해서 행성을 설명하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에는 행성을 여러 가지 화음처럼 표시했다. 그 당시 알려져 있던 행성은 수성에서 토성까지였고 케플러는 수성과 토성 중 가장 빨리 태양을 도는 행성은 당연히 수성일 것이다. 빨리 돈다는 것을 진동수로 표현하자면 가장 진동수가 큰 것이 수성 그리고 가장 진동수가 작은 것이 토성이 된다. 케플러는 음표가 점차 낮아지는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으로 책에 나타냈고 이것은 음악의 규칙성을 과학에 적용한 대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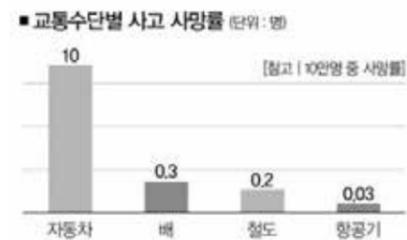




항공사고의 모든 것

10131 풍건우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은 비행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는 여객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말 여객기가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이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맞다. 실제로 통계를 내본 결과 우리가 가장 많이 타는 승용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바꾸어 얘기하면 독자 여러분이 여객기에 탑승해서 사망할 확률은 승용차를 이용했을 시 사망할 확률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 위 자료를 보자. 항공기 사고 시의 사망률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 항공기의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자동차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항공기에 탔을 때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쩌지?' '나 오늘 살아서 집에 갈 수 있는 거 맞지?'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한 번 일어난 항공사고는 너무 끔찍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공항이 아닌 곳에 추락하면 절반 이상의 승객 또는 승무원이 목숨을 잃으며, 살아나온다 해도 많은 곳을 크

게 다친다. 이렇기에 항공사고에 대한 공포는 아무리 발생할 확률이 적다고 하여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항공사고는 한 번에 여러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일단 항공사고를 정의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항공사고로 분류한다. 만약 이보다 조금 못 미친다면, "항공 준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항공사고의 조건 - 국제 협약에 따라 항공사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에 관련해야 함.

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공항에서 차끼리 교통사고가 나면 그건 항공사고가 아니라는 것. 다만, 차와 항공기가 충돌한다면 그것은 항공사고로 분류되어 조사가 들어간다.

2. 비행할 의지를 가진 누구든 탑승한 시점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일어나야 함.

나, 예를 들어, 아무도 타지 않은 정지 중인 항공기에 폭탄테러가 일어나 항공기가 폭발하면 항공사고로 분류되지 않는다.

3. 해당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으며, 항공기에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완전접근 불가여야 함.

나, 비행기가 너무 세게 착륙한 나머지 항공기 바퀴가 부러졌다면 역시 항공사고로 분류된다. 완전접근 불가능 바다에 깊숙이 빠져서 잠수부가 들어가야 접근이 가능한 경우 같은, 사람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항공 준사고 - 사고가 아닌 것으로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어 있으며,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뻔한 것. 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일명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이 있다.

항공사고는 100명 이상의 인명이 오라기락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고를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보통 이렇게 분류한다.

- 항공사고의 분류 - (괄호 안의 것은 대표적인 사고를 말한다.)

1. CFIT : 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의 준말로, 통제가 가능한 항공기를 조종사가 고의성을 띠지 않고 장애물이나 지면, 수면 등에 충돌한 것을 말한다. 조종사 과실이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이는 후술한다.

(이란 아스맘 항공 3704편 추락 사고,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현장. 기체가 전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8명이 사망한 끔찍한 대참사이다.

2. 공중충돌 : 말 그대로 항공기끼리 공중에서 정면, 혹은 측면에서 충돌하는 경우이다. 또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충돌을 면한 경우도 이쪽으로 분류하는 편이다. 일단 사고가 나면 말 그대로 항공기가 공중분해 되므로 니어미스를 제외하고는 공중충돌이 발생했다면 전부 사망이다.

(뉴델리 상공 공중충돌 사건 - 공중충돌로 인한 사고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 두 항공기에 타고 있던 349명이 전부 사망했다.)

3. 지상 충돌 : 말 그대로 항공기끼리, 혹은 공항의 이동수단과 항공기가 충돌한 사건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 전부 사망하기도 하며, 가벼운 사고로 끝나는 때도 있다.

(테네리페 참사 - 이륙 전 활주로를 횡단하는 항공기를 다른 이륙 중이던 항공기가 그대로 날아와서 충돌한 사건. 지상에서 발생한 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 테네리페 참사 당시 현장 상황. 아비규권이 따로 없다. 이 사고로 총 335명이 사망했다.

4. 납치, 피격, 테러, 조종사의 일탈로 인한 사고 : 제목 그대로이다.

① 에어프랑스 139편 납치 사건(공중 납치) - 엔테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다. 이 사건을 동기로 한 영화도 개봉되었다.

② 9.11 테러(공중 납치)(폭탄테러) - 4개의 테러 사건이 함께 있는 대표적인 참사로 세계에서 최대의 사상자를 낸 항공사고. UA011, UA175, AA077, UA093편이 테러에 사용되었다.



▲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쌍둥이 빌딩에 충돌한 직후의 사진.

③ 저먼윙스 9525편 추락 사고 (자살추락) - 조종사가 고의로 항공기를 추락시킨 대표적인 사건. 기장이 화장실을 가자 안에 있던 부기장이 조종실 문을 잠그고 기수를 내려버렸다. 실제로 이 부기장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 추락 당시의 현장 파편 사진. 비행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사망자의 온전한 시신 하나 찾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④ 말레이시아항공 17편 공중폭발 (공중격추) - 마른하늘에 날벼락의 대표적인 사례. 날아가던 항공기가 미사일에 맞아 공중폭발해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



▲ 격추된 항공기의 파편을 다시 모아 재구성한 기체의 모습.

5. 항공기 결함, 고장, 파손 등의 사고 : 역시 제목 그대로이다.
(유나이티드 항공 811편 사고, US 에어웨이즈 1549편 불시착 사건 - 허드슨강의 기적)



▲ 비상착수에 성공한 US1549 항공기 날개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 이 사고에서 사망한 승객은 없다.

6. 조종사 과실 : 조종사가 단추 조작이나 조종을 잘못하여 벌어진 항공사건. CFIT와는 다르게 멀쩡한 항공기의 조종을 잘못하여 벌어지는 사고이다. CFIT는 계기는 잘 조작했는데 엄한 곳에 몰고 가는 것을 말한다.

(아시아나항공 214편 사고, 콜간 항공 3407편 추락 사고)



▲ 214편 사고의 진해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 옆에 나동그라져 있다.

7. 이착륙 실패 또는 활주로 이탈 : 이착륙 실패는 조종사 과실로 보지 않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보지 않는 편이다.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있으니 어떻게든 조종사는 이/착륙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OZ214편 사고가 여기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조종사가 착륙 길잡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조사 중 드러나서 조종사 과실로 분류된다.



▲ 사고기의 잔해.

(에어프랑스 358편 활주로 이탈사고, 터키항공 649편 사고)

8. 화재 : 어떤 원인인든 내/외부 어디든 항공기에 불이 붙은 것을 말한다.

(대한항공 2708편 화재 사고, 중화항공 120편 화재 사고)



▲ 대한항공 2708편 화재 사고의 현장 사진.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된 소화액들이 활주로를 덮고 있다.

9.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 태풍이나 여러 악천후에 의한 사고로, 대부분 돌풍(전문용어로 윈드시어)에 휘말리거나 벼락에 맞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델타항공 191편 추락 사고)

10. 연료 문제 : 연료가 누출되거나, 비행 중 소진되거나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이다.

(아비앙카 52편 추락 사고, 튜넨터 항공 1153편 비상착륙 사고 - 준사고)



▲ 추락한 아비앙카 52편의 잔해. 비행기에 고장이나 연료를 잘못 넣거나 한 게 아닌데도 그냥 공중에서 연료가 떨어진 사건이다.

11. 기타 등등 : 너무 특이한 경우라 딱히 분류를 못 하거나,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사고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건 몇몇을 소개하겠다.

① 트랜스아어로 312편 이륙지연 사건 : 이륙 직전인 비행기에서 승객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내리겠다고 소란을 피웠는데 진짜 중대한 결함이 엔진 쪽에서 발견된 사건이다. 날개 쪽에 문제가 있었으며 대체할 항공기가 필요하다는 결론까지 내려졌다. 참고로 이 사건의 주인공은 22살의 일반인 대학생으로, 유월절을 보내고 집에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한다.

②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 강제 하기 사건 : 승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멀쩡한 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보낸 사건. 오버부킹 때문이라는 기사가 한때 나온 적이 있으나 이 사건은 오버부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데드헤딩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데드헤딩이란 일종의 직원 수송이다. 어떤 사정으로 항공사가 해당 항공사의 소속 승무원을 회사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것을 말한다. KTX나 고속버스 같은 교통체계가 잘 발달하여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으며, 주로 미국에서 일어난다. 다시 말해, 이 데드헤딩 때문에 정상적인 탑승 절차를 밟고 탑승해 있는 멀쩡한 승객 4명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은 항공사고, 항공사나 국가가 이런 상황을 잘 대비해두어야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주에 대하여

10110 박윤서

‘우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한 문장으로 간추려서 ‘모든 천체를 포함한 전 공간’이다. 우주에 대하여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우주의 탄생과 관련 2가지의 이론이 뒤를 따랐다.

첫 번째는 ‘천동설’이다. 천동설에 따르면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천구와 주전원으로 되어 있는 유한한 우주이며, 하늘과 땅은 절대적으로 구별된다는 이론이다. 두 번째 의견은 16세기 중엽 천체 운행의 규칙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지동설’인데, 이 이론은 17~18세기에 걸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아이작 뉴턴에 의해 천체의 운동을 지상의 운동 법칙과 동일한 법칙으로 기술하는 근대 과학의 개막을 알렸고, 이로써 하늘과 땅의 절대적 구별이 없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우주에는 지구 말고도 행성의 단위로서는 경단위의 행성이 존재한다. 우리 은하군은 10의 23 승개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조 단위의 별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숫자가 의미가 있을까? 아마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러한 숫자의 개념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상상하던지 그 이상이다. 우주의 끝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우

주의 크기 또한 가늠조차 하지 못한다. 이 넓고 광활한 우주 안에, 우리 눈에 크고 밝게만 보였던 행성들이 드넓은 우주에서는 빙산의 일각조차 되지 않는다. 18세기 말에 허셜과 당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시작된 연구와 관측의 발달로 광대한 우주공간에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와 비슷한 은하가 무수히 산재하고 있다는 우주상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우주를 둘러싼 여러 이론 중, ‘빅뱅 이론’에 이어 우주에 있는 행성은 그대로이고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이론과, 우주의 크기는 변해 되, 계속해서 새로운 행성과 왜소행성 등이 생겨난다는 이론이 존재하였다. 현재의 우주상으로서는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빅뱅 이론’을 잇는 ‘팽창하는 우주’이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던 의견 중 하나는 ‘허블 법칙’이다. 광활한 우주공간에서 은하들은 평균 약 200만 광년의 거리를 두고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은하의 소집단

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지만 150억 광년 정도 되는 우주의 구조를 고려할 경우, 그것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우주의 중심이나 경계는 전혀 없으며, 어디나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하는 정지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각 별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평균 초속 수백 Km의 속도로 무질서하게 운동하고 있다는 이론이다.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별들과 더불어 우주의 크기는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게임을 하고, 잠을 자고 있어도, 우주는 끝없이 지금도 팽창하는 중이다. 그러한 우주를 인간들이, 행어나 훌륭한 과학자라고 한들 깨우칠 수 있을까? 언젠가 우주의 정확한 크기와,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날이 올지라도, 그에 따라 우주 또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어쩌면 우주 또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진 않을까?





드루킹 게이트는 무엇일까?

20301 고정훈

2018년 1월 1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에 민주 당원 5명이 추천수를 조작한 정황이 밝혀졌다. 범인 중 한 명은 친노 친문 파워 블로거인 드루킹으로, 평소 문재인 정권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사람이라 더욱 충격을 주었다.

범인들은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 문재인 옹호를 위해 댓글 조작을 해왔는데, 인사 청탁 거부에 대한 반감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정부적 댓글에 공감, 추천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하지만 이런 행위보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댓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었으며, 주범인 드루킹이 댓글 조작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경남 도지사인 김경수라 밝혀 더욱 논란이 되었다.

논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김경수 지사가 사건 연루 여부이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일일이 보고했고,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직접 보여주며 활동을 했다는 주장은 경찰의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서로 교신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시점 역시 드루킹의 주장과 동일하게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이란 점이 밝혀졌다. 김 지사 역시 채팅방에 기사의 URL 주소를 보내며 댓글 관리나 홍보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이 사용했다는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역시 사건 발생 훨씬 이전인 2014년에 이미 구축되었고, 김 지사가 이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린 것을 본 사람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두 번째 쟁점은 대가의 지불 여부이다. 만약 문재인 캠프 측에서 드루킹 일당에게 자금이나 모종의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는 공직 선거법 위반이므로 당선 무효가 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댓글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느릅나무 출판사'의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했느냐다. 느릅나무 출판사는 월 500만원 정도의 임대료, 직원 5명의 인건비, 30명 정도의 댓글 조작 요원, 170대의 휴대전화 비용을 합한 월 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했을 거라고 추산되었다. 이에 대해 드루킹 일당은 자신들의 운영비는 11억 정도의 강연료와 비누 판매 수익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월평균 강연료가 9만원이고, 2018년 3월 20일에 입금된 강연료는 175만원으로 24회 강연 기준 4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추산되며, 비누 판매 역시 부진하여 활동 자금을 스스로

충당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턱없이 모자란 이 활동 자금을 누가 도와줬는지가 쟁점이며, 정치권의 개입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 논란이다.

송만순 회고록 사건의 댓글을 조작해 문 정부에 유리하도록 바꾼 드루킹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이며, 드루킹 게이트로 인해 노회찬 의원이 투신 자살하는 등 여러 사건들이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다. 2018년 8월 25일자로 특검의 수사는 끝이 났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번 사건이만큼 정부의 압력이 가해져 특검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댓글 조작이 대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선거법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기사 목록
*기사 제목은 기사 제목만, 링크는 기사 제목과 일치함

기사 제목	발행일시	댓글 수	베스트 댓글 추천 수
19대 대선 문재인 전 대표 후보의 한 아이돌의 '빅'과 '황금만 만원'과 '보통학교' 사진은 매우 김기영(이시진)	2016년 11월29일	1	0
빈가문 문화재단 친노 불완전 사상 '정치의 이름' 비판	2017년 1월18일	1	0
'주무 62억 비용' 문지진, 여정표시 '물안' '내가 제일 잘 믿었는데'	2017년 3월9일	1	0
문지진 '속' '치바살' '유저' '광복' '수사' '광복' '광복'	2017년 3월10일	3163	2410
[다산후보 합동보좌진] 문지진 '19대 대선' '대한민국' '홍준표' '오세훈' '김문기'	2017년 4월15일	1088	1880
문 '정부가 일가' '합동' '합동' '합동' '합동' '합동'	2017년 4월29일	3646	4916
지진 '합동' '합동' '합동' '합동' '합동' '합동'	2017년 5월2일	145	138
문 '합동' '합동' '합동' '합동' '합동' '합동'	2017년 6월11일	1056	615
문 '합동' '합동' '합동' '합동' '합동' '합동'	2017년 10월2일	247	606

출처: 김경수 의원실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한국

20102 김경민

미중 무역 전쟁은 매우 큰 경제적 전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 보 시절부터 보호 무역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 흑자를 창출할 경우 그 국가는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무역 안보론'이 숨어있다. 실제로 미국의 무역 적자 5,660억 달러 중 중국이 3,752억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미국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기도 한다. 이는 1980년에 미국이 자국을 상대로 큰 무역 흑자를 이뤘던 일본에 1976~89년 기간 동안 '통상법 제 301조'를 근거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20여 차례 조사를 실시했고,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 평가 절상을 강요하는 조치를 통해 일본의 시장과 산업, 경제 분야에 힘든 시기를 주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중국은 일본과 달리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이는 중국 경제의 체질이 일본과는 다르다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선 중국 경제에서 수출의 기여도가 20%밖에 되지 않으며 경제 정책 또한 내수 위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위안화 환율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복성 조치를 들이민 적이 없는 과거의 일본과 다르게 중국은 바로 대담한 맞보복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과 미국이 과거 인도와의 무역 전쟁에서도 '통



상법 제 301조'로 위협을 가했지만 인도의 협상 거부로 승리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G2간의 무역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며 우리나라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이 두 나라와의 수출입 물량 비중이 62.1%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무역 상대국 1,2위간의 무역 전쟁으로 피해가 큰 나라 6번째로 선정되었으며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보호 무역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예상된다. 한국 무역 협회는 "미국, 중국과 EU가 관세를 10%씩 올리면 우리 수출은 367억 달러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에 주는 직간접적 피해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1차로 받는다.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석유 화

학 제품, 기계류 등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 기업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구조다. 작년 우리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의 비중은 78.9%에 달한다. 또한 미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 중국산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지 생산하는 제품들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공기를 견제하려고 꺼내든 칼에 영동하게 한국 기업이 베일 상황"이라 말한다. 이 외에도 중국이 수출용 부품 수입을 10% 줄이면 한국의 성장률은 0.9%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대중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282억 6,000만 달러(약 31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

로 전망한다. 관계자는 이 무역 전쟁에 EU까지 합세하여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일어날 시 매우 큰 일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무역 전쟁에 맞설 수 있는 방안으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송원근 한경원 부원장은 "아세안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 협력체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과 부합하며 아세안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 현재의 무역전쟁

의 대안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였고 오경수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산가능 일 반균형 모형 분석 결과 현재 한중일 3국이 각자 아세안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다자 간 무역 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국내 총 생산이 약 2.3%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무역 전쟁의 영향권에 든 나라들 간 협력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수출 전략을 다시 짜거나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안들이 있다. 물론 가장



최선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협상해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아이가 본 금연 광고

20323 유대건

광고란 기업이나 개인·단체가 상품·서비스·이념·신조·정책 등을 세상에 알려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투자하는 정보활동을 일컫는다. 광고의 종류에는 TV광고, 신문광고, 옥외광고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광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첫 번째로 광고가 공개되면 대상을 쉽게 한정할 수 없다는 점, 두 번째로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즉, 누가 볼지 모르는 광고가 만들어지고, 그 광고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광고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이런 광고는 요즘 날 목적 달성을 위해 많은 사람이 광고에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소비자 기억에 남아야 한다. 그래서 광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 밀접해지고

더 자극적이게 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광고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나타내지는 않다. 금연 공익 광고를 살펴보자. 물론 흡연은 안 좋지만, 공익 광고는 흡연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한다는 명목 하에 자극적인 문구와 사진을 사용한다. 그런 광고가 아직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 적합한가? 나는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보자. 금연 공익 광고를 본 어린 아이들은 담배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런 경각심과 두려움을 통해 아이들



이 커서 흡연을 멀리 할 수 있다면 광고는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말하는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말한다. 대부분의 초등



학교 저학년들은 흡연하지 않는다.

즉, 학교 측에서 이뤄지는 금연 교육까지는 인정하되, (이마저 조사 결과 실질적이 금연 교육은 중학교 때부터 이뤄진다고 한다.) 담배 갑에 사진 인쇄 혹은 TV로 이뤄지는 앞서 말한 흡연에 부정적 인식을 줌이 주목적인 금연 광고는 어린 아이들에게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고의 특징으로 인해 자극적인 광고가 아이들에게 제한 없이 노출될 수 있다. '노출

됨'에 의미를 살펴보자.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시각, 청각 등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신도 모르게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것이다.

솔직히 흡연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암에 걸리거나 죽지는 않는다. 만약 그렇담 국가에서 흡연을 법적으로 금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조절을 통한 흡연은 자신의 권리이며 흡연에 있어서 최소한의 나이 제한만 지킨다면 자유를 주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이를 모를 것이고, TV 광고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은 확실적임을 알려주어도 자료 해석이 부족할 것이다. 만약 이런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가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을 과잉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이유로 제한 없는 금연 공익광고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미래 자동차,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다.

20507 김중헌

현재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을 지나 4차 산업 혁명을 이루고 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AI), 핀테크, 융합 현실(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꿔놓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것들이 모두 미래 자동차에 응용된다는 사실이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미래 자동차는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미래 자동차는 크게 엔진의 종류로 나

눌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인데, 주행 시 배출되는 배기가스, 이산화탄소등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내연기관의 대체 수단을 개발해왔다. 대표적으로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이 있다.

전기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발전된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 즉, 휘발유와 전기를 둘 다 사용하는 자동차로 단거리 주행에

는 전기를 사용하고 장거리 주행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전기 자동차는 휘발유 없이 오로지 전기 배터리만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무공해, 친환경 자동차로 유명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전기 자동차중 가장 발전된 차는 BMW i8 으로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한다.

수소 자동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개발 중인 자동차로 전기자동차의 경쟁 상대로 볼 수 있다. 수소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와 결합시키면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무공해, 친환경 경적인 자동차이다. 현재 현대 자동차에서 5분 충전으로 600km 주행 할 수 있는 넥쏘(차 이름)를 개발했으며 도요타(일본 자동차 기업)에서는 3분 충전으로 7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전기차보다 높은 효율을 보였다. 하지만 충전 비용이 싸다는 점과 수소 연료 전지팩이 차지하는 부피가 크다는 점에서 전기차에 비해 조금 밀리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미래 자동차에 응용되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을 알아보자.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자율 주행,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등이 있다.

첫 번째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인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워치 등으로 차를 운전하거나 시동을 걸고, 또 차량을 찾는 기술이나 운전자의 건강과, 행동 패턴들을 기록하는 등에 쓰인다. 이것은 자율 주행과 더불어 굉장히 혁신적인데 예를 들어 직장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스

마트 폰으로 명령해서 집으로 차를 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히려 센서가 발달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멈추고, 속도 제한을 자동차 스스로 맞춰서 주행하는 등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증강현실 디스플레이가 있다. 공상 과학 영화에서 많이 나왔듯이 자동차 전면 스크린에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띄우는 기술이다. 증강현실은 실제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나 영상을 겹쳐서 보여주는 것으로, 증강현실 HUD는 전방 카메라와 GPS, 각종 센서를 통해 실제 도로 배경에 속도와 내비게이션 안내, 주변 위험 요소 및 장애물 감지, 차선이탈과 끼어



들기 감지 등 각종 주행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홀로액티브 터치 시스템이 있다. 홀로액티브 터치란 물리적 터치 없이 공중에 손을 움직여 화면을 컨트롤하는 기술이다. 그래픽을 투영하는 원리는 반사를 이용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같다. 여기에 허공에 떠 있는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디스플레이를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인식한다. 손끝이 프리플로팅 디스플레이에 접촉될 때마다 미세한 전류가 발생하고 이는 곧 디지털 명령어로 바뀌면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의 무한한 발전

20712 신우엽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격변의 시대는 어느 순간의 확 터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아주 느릿 느릿 진행되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 중요하게 대두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정보를 주려고 이 글을 적게 되었다. 필자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

아 이 글을 쓴 것이 전문가가 아님으로 부족한 정보이지만 너그럽게 봐주었으면 한다.

인공지능은 발전 단계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약인공지능(ANI: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이라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특정 분야에서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는 인공지

능을 의미한다. 그예로 GOOGLE에 AlphaGo나 IBM에 Watson이 있는데 이들은 정해진 규칙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사물을 분석하고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인간처럼 자아와 지성은 없지만 알파고와 이세돌에 바둑 대전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특정 업무에서 인간보다 우월한

업무능력을 지니고 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가지고 없어 이들을 인공지능이란 표현 대신에 '인지컴퓨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사영화를 보았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바로 이 단계이다.'강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라고 불리며 모든 영역에서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이고 인간만이 지닌 자아를 가진다거나 자유의지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세 번째 단계는 '초인공지능'단계인데 이들은 모든 인류의 지성을 다 합친다고 해도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레이커즈 와이일은 이 3가지의 인공지능 단계가 오는 시점을 예언하였는데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9년에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고 자아를 가진 강인공지능 단계에 인공지능이 발전 될 것이고 2045년에는 "특이점이 온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온다는 것은 전체 인류의 지성의 총합을 뛰어넘는 즉 초인공지능이 등장하여 스스로 진화에 갈 수 있는 초인공지능이 나타난 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들은 더 편리한 세상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사람보다 더 높은 지성을 갖고 감정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들이 끼칠 영향도 고려해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발전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인공지능에 발전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된다. 먼저 일자리가 대부분 대체 될

것이다. 단순 육체노동이나 머리를 싸야하는 일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약 인공지능에 개발 단계로 볼 때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일을 처리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평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강,초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된다면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발전된 인공지능은 미리 프로그래밍,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인다는 장점으로 불필요한 실수 없이 정확히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 점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다.

도덕, 비도덕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처럼 도덕적인 면을 사고하기 힘들 것이며 그에 따른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른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그들을 설계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도

덕적인 부분과 비도덕적인 부분을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점차 발달되고 고도화 되면 언젠가는 인간의 존재까지도 위태로워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이 아마 인간들이 인공지능의 발전에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인공지능에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극도의 첨단 능력과 정확함이 물질문명 시대의 편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 일어나는 각종 부정부패라는 비효율을 견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도 개인정보는 더 이상의 유출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유출상태는 심각하다. 정보제공의 무의식 적으로 동의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통해서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범죄를 저지르면 100% 잡혀간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의 의식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AI시대를 통해 물질만이 아닌 인간의 의식들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무한도전

10129 진현승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리며 지난 13년간 전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MBC의 간판 예능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지난 3월 31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무한도전 전성기 때에 있었던 멤버 7명 모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 스타의 반열에 올랐을 정도로 방송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고, 매 방송마다 시청률을 기본 10% 이상씩 기록하고, MBC의 최고 프로그램상을 거의 매년 차지할 정도로 시청자들의 지지와 응원도 대단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주요 멤버들의 노쇠화와 방송 아이템의 부진, 결정적으로 멤버들의 이탈로 인해 2015년 정도부터 점점 하락세를 걷기 시작하여 프로그램 재방영 여부를 알 수 없는 채, 일단 무한도전은 13년 동안, 563회의 방송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무한도전'은 2005년 4월 23일,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발을 했다. 당시에는 '황소와의 줄다리기'라던가, '기차와의 달리기 시합' 등 프로그램 이름처럼 무모한 도전의 콘텐츠를 보여주었고 2006년 5월 6일, 마침내 현재의 이름인 '무한도전'의 첫 방송을 하게 된다. 이 이후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무한도전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됨과 동시에 매년 다수의 상을 거머쥐게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시청률이 30%가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으며, 멤버 모두가 대한민국 예능계에서 최정상급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시기였다. 하지만 2014년 멤버 길과 노홍

철의 잇따른 이탈로 인해 점점 인기와 시청률이 하락하게 되었고, 이후에 추가 멤버 영입이 있었지만, 이미 하락세의 인기와 함께 결국 반등하지 못한 채 종영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한도전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감동과 함께 많은 사회적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여드름 브레이크' 같은 무한도전의 역대급 추격전에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숨은 뜻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에피소드는 철거민들에 대한 박해를 비판하는 장소 선정과 자막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에서도 독도와 관련된 내용과 물건이 많이 나와 이 당시에 있었던 독도 관련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무한도전은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보통의

3,40대의 남성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도전을 해내기도 했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조정 특집'이다. 프로그램의 취지처럼 평균 이하의 멤버들이 조정 경기에 도전하여 멤버들의 노력과 스토리가 잘 짜여서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만들었고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처럼 무한도전은 지금까지 13년 동안 수많은 감동과 재미를 안겨주면서 대한민국 대표 TV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무한도전은 MBC 역사상 가장 장수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으며,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 광복 이후의 최고의 프로그램에서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예능의 역사에서 무한도전은 가히 최고라 여길 만 하다.

이렇게 역사상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이 다시 방송될 수 있기를 바란다.



광고

10129 진현승

우리학교의 모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사람이라면 태어난 후에 한 번쯤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심지어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앞에서라도 광고를 한 번씩은 봤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광고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보인고등학교가 세워지기 22년 전인 1886년, 한성주보에 우리나라 최초로 광고라는 것이 게재되었다. 하지만 그 주체는 우리나라의 회사나 개인이 아니라 독일의 무역회사인 '세창양행'이라는 회사였으며, 당시에 '광고'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고백(告白)'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광고의 역사가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여, 현재에는 대부분의 tv방송국과 신문사, 그리고 이하 여러 언론사들의 주요 수입원이자 자본주의의 꽃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 방송국인 3사와 신문사의 '조종동' 또한 광고 없이는 회사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광고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우리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 앞서 말했듯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그리고 택시의 문에 붙어있는 광고들이나 건물 옥상에 있는 옥외광고판,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보이는 광고 등 우리는 광고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개중에는 과장, 거짓 광고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광고들

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과 시스템이 잘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광고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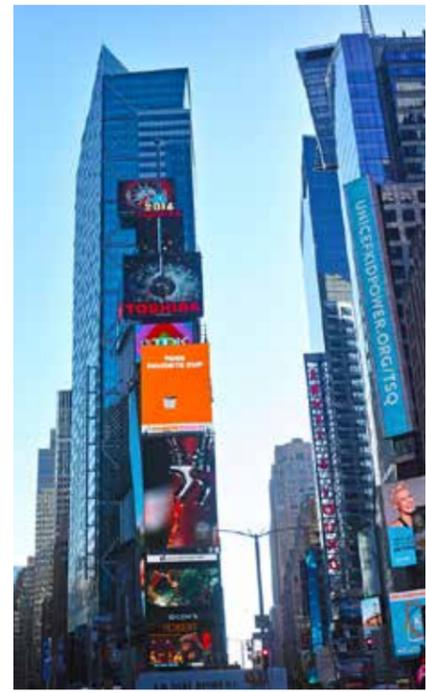
또, 광고는 그 광고가 성공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 광고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차두리 선수가 광고했던 '간 때문이야~'라던가 SK텔레콤의 광고인 '생각대로 T~' 같은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광고는 웬만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유행어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강했다. 또 공익광고나 기업광고 같은 경우, 사회적 캠페인으로 이어지는 광고도 있었다.

하지만 광고가 우리 삶에서 좋은 영향만 끼칠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광고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 그 예로, 유튜브에서 보고 싶던 동영상을 본다고 하자. 이 때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15초를 광고에 빼앗긴다. 물론 그러한 광고 중에 흥미를 유발하거나 필요했던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여러 번 보게 된다면, 광고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시청자들의 심기만 건들리게 된다. 사람들이 광고 때문에 짜증나 하는 것을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업들도 알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 중에는 그 게임의 광고 차단 기능에 대해 유료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서술한 대로 광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장점과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회적인 캠페인과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에, 과장, 거짓

광고가 활발해지면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신뢰가 깨질 수도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기도 하고, 광고에서 나오는 소재가 저급해서 시청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광고에 대해 신중을 가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거짓, 과장 없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와 신뢰를 줄 수 있는 광고만을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광고를 분별 있게 받아들이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돈은 어제의 것과 다르다 (경제성공학에 대하여)

2016 신현민

만약 당신이 복권에 당첨되어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가지는 것과 1년 후에 가지는 것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 대부분은 당장 갖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몇몇은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사람들은 10억을 바로 갖는 것이 1년 후에 가지는 것 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느 곳에 그 돈을 사용하던 간에 하고 싶은 것을 1년 후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물가가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미래보다 현재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는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다들 제품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본 적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일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즉 화폐의 구매력이 미래보다 현재가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화폐의 현재가치가 미래보다 높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10억 원을 받아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 1년간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막상 1년 후에는 그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미래에는 다양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위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피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10억 원의 시간적 가치는 1년 후보다 현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는 학문 분야가 경제성공학이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경제성을 다른 말로 하자면 경제적 효율성이고 또 비슷한 말로 하자면 가성비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경제성공학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예시와 같은 상황처럼 경제성공학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와도 관련이 있다. 경제성공학은 산업 공학의 일부분으로서 공학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해당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경제성공학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경제성공학은 그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학문에 흥미를 느끼고 이것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라의 발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다.



최저임금 공방

20324 이석희

현재 대한민국에는 최저 임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이 한창이다. 최저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일정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최저임금이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 임금 인상에 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며 2019년에는 시간당 8,350원로의 인상이 결정되었다.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16.4%의 인상률을,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10.9%의 인상률을 보여준다. 이런 급격한 인상 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찬성 측은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 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 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저 임금을 10% 인상 시 전체 임금은 1%, 물가는 겨우 0.3% 가량만 상승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저임금은 구직을 유도할 수도 있다. 높은 최저 임금은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실제 시의 생활 보호에서 얻는 수당보다 높게 될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우선 높은 최저 임금이 노

동자에게 득이 되려면 고용주 모두가 최저 임금법을 정직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2017년 한국의 최저 임금 미준수율은 OECD 평균의 3배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 임금을 상승시키게 되면 정직하게 최저 임금을 지키는 사업주들은 인건비 상승의 곤란을 겪게 되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만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최저 임금의 인상이 미치는 효과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55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 및 근속년수 1년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5월 25일 최저 임금 개정안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최저 임금 개정안의 골자가 월마다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최저 임금에 포함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2020년까지의 최저 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위 개정안대로 매해 해당 법안 개정이 적용될 경우 2020년까지 최저 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최저 임금 인상률이 15.2%여야 하나, 위 법안으로 인해 매년 임금이 12.7% 정도 삭감되기 때문에 이를 역산할 경우 실제 인상폭은 0.5696% 정도로

사실상 오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다른 나라의 최저 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호주는 2018년 기준으로 시급 18.93A\$(한화 약 15,000원)이다. 독일은 8.84€(한화 약 11,000원)이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 임금이 다른데 전국 가중 평균으로 848円(한화 약 8,500원)이나, 일본은 현재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최저 임금만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최저 임금 제도가 없는 국가들도 존재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최저 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최저 임금제의 장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최저 임금의 긍정적인 점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면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음원 사재기, 건전한 음악문화 속에서 뿌리 뽑아야 할 골칫거리

21035 한찬영

많은 아이돌 노래가 각종 음원 사이트를 장악하고 있을 때, 대형 팬덤을 거느린 인기 아이돌 그룹들이 컴백하기만 하면 높은 순위권을 꿰차다. 이렇게 음원을 계속해서 반복재생하며 순위를 올리는 '스트리밍' 문화 속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오르게 된 음악들이 있다. 이를 하여 '역주행곡'이라고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슴깁 문화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떠오르게 한 음악이기도 하다. 이미 많은 누리꾼들은 역주행곡이 보여준 성적이 대중음악의 가장 큰 힘인 '음양성'이라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역주행을 인위적으로 이루어낸 음악들 또한 존재한다. 음원 사재기를 통해 비정상적인 순위 집계를 나타내는 음악들 또한 존재한다. 바로 '음원 사재기'라는 이름을 안고 높은 순위를 독점하는 경우이다. 음원 사재

기안 마케팅 업체를 이용해 음원 사재기, 즉 소속 가수의 음원을 반복 재생해 음원 사이트에서 인기 순위를 높이는 조작 행위를 말하는데 음원 사이트의 순위 입력 기준에 해당되는 스트리밍을 악용한 예시이다. 조작을 통해 음원 순위가 높아지면 언론에 노출되고 방송 출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악용한다는 말이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각 유명 음원사이트에서 순위 집계를 매기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사항은 슴깁과 다운로드 횟수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합계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사용한다. 가령 '멜론'에서는 슴깁과 다운로드를 40:50 비율로 나누어 합계 순위를 매기고 '지니'에서는 50:50 비율로 정하는 것 처럼 대부분의 음원 사이트는 적절한 비율로 순위를 매기는 반면 '벅스'처럼 20:80으로 한 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이는 음원 사이트도 존

재 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브로커들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해 1만 개 정도의 아이디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음원을 스트리밍을 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역주행 곡과 사재기 의혹 곡들의 차이점을 무엇일까?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일단 역주행이 시작된 곡은 일정 수준 이상 음원 성적을 기록할 경우 노래방 순위가 따라붙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래방 차트는 해당 음원을 일반인들이 직접 따라 부름으로써 그 노래의 인기를 체감 또는 실감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는 곡들은 노래방 차트 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노래방 T사는 그 곡을 등록조차 하지 않았으며 K사에 의하면 뒤늦게 추가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순위 변동을 일으킨 곡들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역주행 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적인 역주행 곡의 특징을 따라하며 이미 계획이라도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순위 변동 폭을 조작하여 급격한 순위변동을 피하는 등 갈수록 불법 음원 사재기에 대한 명확한 진위 여부가 어려워지고 있기도 한 것이 현 상황이다.

나날이 늘어가는 사재기 의혹에 공공기관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되면 저작권료를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2016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음반제작업자가



음원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릴 경우 대가를 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해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실제로 존재 한다. 그러나 음원 사재기는 의혹만 계속될 뿐 실체가 제대로 드러난 적은 없다는 것이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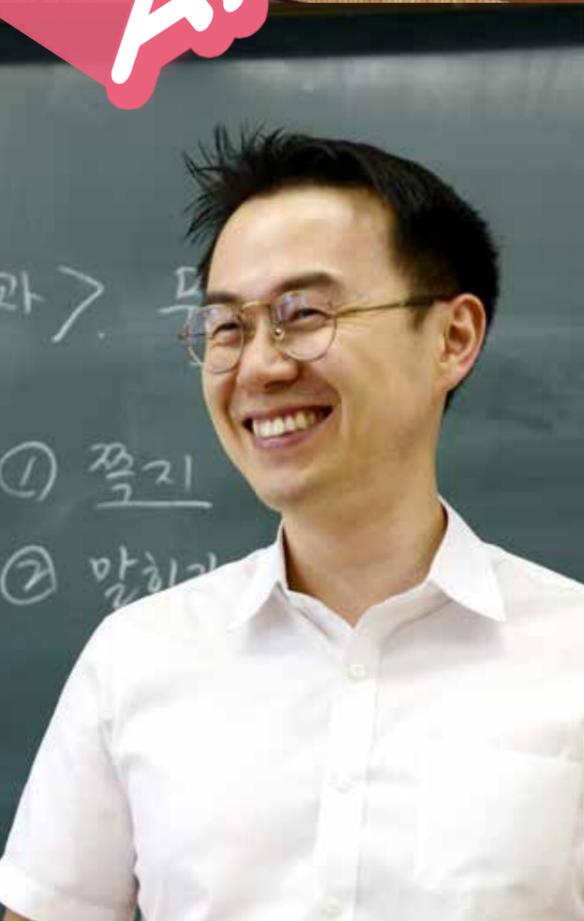
원 사이트에서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멜론은 "불법 음원 사재기의 방식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 방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아이핀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핀 불법이용으로 인한 악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부정이용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이핀 인증방식을 수일 내 폐지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불법 음원 사재기의 싹을 자를 수 있는 단체는 음원 사이트 본 회사 임을 강조한 바가 있다.

역주행 곡처럼 자신의 순수한 노력과 음악성으로 대중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음악이 있는 반면, 불법 사재기를 통한 급격한 순위변동으로 대중들을 혼란시키고 질타를 받는 일들

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논란은 앞으로도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진 가요계 고질적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과 노력을 양심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음악 산업에 큰 발전이 기대되며 음악의 다양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TEACHERS AT BOIN



TEACHERS AT BOIN

2018년도의 키워드 중 하나인 '워라벨(Work-Life Balance)'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사용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 만큼 퇴근 이후의 생활에서도 취미 활동을 통해 만족을 찾고, 이 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도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이러한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있다. 학생들이 참채 활동을 위해 하는 동아리 활동이 단순히 대입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우리 학교의 '워라벨 선생님'**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서정민, 채기석, 한유림 선생님 인터뷰를 함께 소개한다.

1908

영어 스테디

우리는 아직도 영어가 고프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영어 그 자체를 배우고 즐기기 위한 영어 번역 스테디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영어 선생님하신, '오양욱, 이성문, 이윤주, 이지예, 정지연, 채성민' 선생님을 소개한다.



1. 영어 스테디를 하시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 채성민 선생님 :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배우는 걸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어라는 게 항상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함께 하시고 자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 분들과 함께 올해 초부터 공부해오고 있어요. 교직에 있으면서 항상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이렇게나마 서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옆에 계셔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적도 많았어요. 스테디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공부한 건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업이 본인들의 영어실력 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매일 공부하면서 이런 학생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어요.

2. 어떤 것을 함께 공부하시나요? 함께 공부하시는 내용이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 채성민 선생님 : 저희 모임의 이름은 '한영번역연구모임'이에요.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2주에 한 번씩 영어로 번역해서 서로 침삭해보고 더 좋은 영어 표현은 없는지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참고로 번역은 엄청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A4용지 한 장을 번역하는데 대략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단순 직역이 아니라 한국어의 뉘앙스를 살려 영어로 표현해 보는 게 저희 스테디의 목표였으니 항상 더 좋은 표현을 찾고 또 찾다보면 3시간 이상 걸린

3. 과제를 안 하거나 참석을 안 하시는 선생님께 부여되는 패널티가 있나요?

● 채성민 선생님 : 당연히 패널티가 있어요. 선생님들 공강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저희는 점심시간에 스테디를 진행했어요. 메뉴는 대부분 김밥과 라면^^. 스테디 과제를 안 해 오시는 선생님들은 점심 식사비를 찬조하도록 했어요. 덕분에 가끔씩 풍성한 점심 식사도 몇 번 했어요.

4. 채성민 선생님께서는 취미 활동으로 마라톤에 대한 애정이 크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라톤과 영어 스테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실 건가요?

● 채성민 선생님 : 질문을 바꾸면 안되요? 왜 마라톤을 뛰고

영어공부를 하는지?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성적을 잘 받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스펙을 쌓고, 취직을 위해 스펙을 쌓거나 봉사활동을 하고...저는 보인고 학생들이라면 조금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즐겁지 않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공부하다보니 성적이 좋아지고 결국에는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똑같이 생각하고 살면서 우리 미래는 남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더 이상적이지 않나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질문으로 돌아와서...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제 몸이 건강해졌어요. 몇 년 전부터 대회에 나가서는 입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전 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운동이 힘들고 지겨워져요. 전 영어가 좋아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즐겁게 공부하다 보니 저의 영어실력도 늘었고 대학원에서 좋은 성적도 받았어요. 학위나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긴 싫어요. 그러면 공부가 힘들고 지겨워져요. 전 과정을 충실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바뀔 거라고 믿는 사람이예요.

5.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 하셨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더 재미있거나 더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 오양욱 선생님 : 솔직히 학창 시절에는 영어 공부 안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sports를 '스포츠'라고 발음 했다고 당시 정년을 앞둔 영어 선생님께 죽순으로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그 때 영어는 완전히 손 놔요. 그런데 제가 영어 교사를 하고 있다는 건 인생의 아이러니. 당시 영어 공부는 저와 비슷한 세대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로지 문법 공부였죠. 성문 기본, 성문 종합, 맨투맨 종합과 같은 문법서들을 책상에 쌓아두고 너털너털 해 질 때까지 외우는 게 영어 공부의 전부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원어민들도 모르는 문법을 줄줄 외우고 있으니까요. 재미가 있을 리가 없죠.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스테디는 훨씬 재밌죠. 채성민 선생님의 제안이 있기도 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부이고, 콩글리시와 진짜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해요. 우리끼리 보는 시험에서 풀듯하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확실하고요.

우리 학생들도 영어가 됐건 다른 공부가 됐건 스스로 찾아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으면 좋을 텐데 대부분 수능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고,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암튼, 쌤들과 함께 열공해서 우리 보인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6. 스테디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거나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을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지예 선생님 : 사실 처음에는 영어 스테디를 하는 게 살짝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매번 스테디를 진행할 때마다 심도 있는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면서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스테디 내용은 평소에도 헛갈리고 어려웠던 관사에 관한 학습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각자 기사에서 올바른 관사사용에 대한 퀴즈를 준비해 오셨거든요. 예를 들면 고유명사 앞에 정관사가 오는 경우라든가 관사의 쓰임에 따른 의미 변화 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여전히 정확한 관사 사용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채성민 선생님이 팁을 많이 주셔서 알게된 내용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7. 학교에서 바쁜 와중에 스테디를 지속하시는 게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에너지원은 무엇인가요?

● 이성문 선생님 : 저는 채성민 선생님의 강권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번할 때마다 다음에는 꼭 빠져야지 다짐을 하죠. 학생들만큼이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매학기 참여하면 꼭 얻는 게 있더라고요. 수능 지문에 간혀 있던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다고나 할까요.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기본적인 영어 표현도 몰라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창피할 때도 있지만, 공부 모임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께는 사기(?)를 복돋아 드리는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웃음)

8. 정지연 선생님께서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스테디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독서 활동도 같이 하시고 싶은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 정지연 선생님 : 저는 채성민 선생님과 같이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선생님 중 한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순간을 경험한다, '마라톤'

안정적이고 평탄한 생활이 가져올 수 있는 권태를 경계하며 스스로를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에서 오는 짜릿한 성취감이 마라톤의 매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류신형 선생님'. 선생님의 마라톤 철학을 들어본다.



1. 마라톤을 하실 때 몇 미터쯤에 한계점을 느끼시나요?

● 42,195M 풀코스를 달린다고 할 때, 대부분의 러너들이 일반적으로 35km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점인가 하면 이제까지 말도 안 되게 많이 달렸는데, 아직 목표점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점이죠.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지점인거죠. 그리고 보면 거리의 문제이긴 하지만, 심리적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2.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완주하시나요?

● 속도는 늦어져도 되니까 절대로 서거나 걷지는 말자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 뛰자는 유혹을 느끼게 되는데, 경험상 쉬게 되면 다시 페이스를 끌어 올리기도 힘들고 이후에 이제까지 밀어 두었던 다양한 이유(주로 다양한 다리 통증)를 제시하며 반복적으로 또 쉬게 됩니다. 사실, 이제까지 말한 것은 달리기 시작 전 임하는 각오에 가까운 것이고, 어쩌면 한계점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몸의 피로와 고통만을 느끼게 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때 이러한 느낌이

달리기의 매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저의 육체에만 집중하게 되고, 미세한 하나하나의 느낌까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데 이때, 복잡한 어떤 것들에 얽혀 있는 내가 아니라 온전한 나, 하나의 육체인 나만을 느끼게 되거든요.

3. 완주에 성공하시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 뻔한 이야기이지만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요. 저의 생활은 평탄한데,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지도, 환희에 온 마음이 젖지도 않는 평범한데, 이것은 안정적이기에 지속가능함을 선물해서 좋은데 때로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달리는 인위적으로 인생의 부침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부침에서 느낄 법한 감정을 압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야기 구조 중 재미있는 구조가 잘나가는 주인공이 망했다가 다시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것인데, 풀코스 완주는 평범한 사람이 별 생각 없이 달리다가 피로와 부상을 온몸으로 느끼며 망했다는 생각을 하다가 경기장 트랙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결승점을 지나는 순간 모두 해결되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격차를 달리기에서 느끼는 거죠. 어때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아요?



Music Is Our Life, '기타 동아리'

우리 학교의 명불허전 음악 선생님이신 **한송이** 선생님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함께 기타를 배우고 계시는 '**강호준, 구자운, 김영두, 김영찬, 김현화, 한송이, 한유림**' 선생님의 기타 동아리 활동을 소개한다.

1. 선생님들과 함께 기타를 배우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좋은가요?

● 강호준 선생님 : 성인이 되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언제나 핑계가 생기죠. 사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일상의 틀을 깨는 일 같아요.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건 어지간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렵죠. 그럴 때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한다면 서로 독려하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점이 좋아요. 물론 좋은 것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니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죠.

● 한유림 선생님 : 함께 배우면 역시 여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을 서로 물어가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김현화 선생님 : 개인적으로 따로 배우는 것보다는 함께 배우면 동기 부여도 되고, 즐겁게 수다떨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구자운 선생님 : 교사 동아리로 기타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하게 되었고, 혼자 배우는 것 보다 같이 배우면서 내가 취약한 점에 대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2. 어떤 곡들을 배우셨나요?

● 강호준 선생님 :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입문 단계여서 곡 위주로 배우기보다도 코드 운지법이나 주법들을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물론 기타 강사님이 저희들의 동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 '지금 배운 코드로는 이런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하고 알려주시긴 했어요. 윤종신의 '본능적으로'나 10CM의 '봄이 좋냐' 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등 많은 노래를 들려주셨어요. 아직은 한 곡을 완주하기에는 부

족한 점이 있지만 참여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정도는 연주하자'를 목표로 바쁜 보인의 일상 속에서도 틈을 내서 연습하고 계시죠.

● 한유림 선생님 : 저는 아직 곡까지는^^;; 코드 배우는데도 벅합니다^^

● 김현화 선생님 : 완전 초보라서 아직 전체 연주할 수 있는 곡은 없어요. 코드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지요.

● 구자운 선생님 : 아직 곡 연주보다는 코드 잡는 방법과 오른손 주법 등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3. 어떤 선생님이 제일 잘 치시나요?

- 강호준 선생님 : 아직은 실력으로 우열을 가릴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마다 기타 연주에 있어서 장, 단점이 있죠.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파여서 누가 제일 잘 한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웃음)(웃음) 같이 배우기에 경쟁의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보다는 서로 도와가면서 어려운 코드나 주법 등을 서로 가르쳐 주면서 함께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 한유림 선생님 : 역시 한송이 선생님이 제일 잘 치시고 김정한 선생님도 엄청 잘 치십니다~ 이미 중급자 실력!!
- 김현화 선생님 : 구자운쌤~
- 구자운 선생님 : 한송이쌤과 김현화쌤이 제일 잘치세요

4.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매력 발산할 수 있는 기타 연주곡이 있으시다면?

- 강호준 선생님 : (웃음)(웃음)(땀)(땀)질문에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건가요?(웃음)(웃음) 사실 아직 연주할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연주를 하며 불러보고 싶은 노래는 있어요. Tori Kelly의 'Paper Hearts'라는 노래예요.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이긴 한데 애절한 가사와 귀에 감기는 멜로디가 마음에 와 닿는 노래예요. 물론 그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지만요.
-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매력 발산은 구애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 구애에서 가장 중요한건 진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보다도 진정성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노래가 좋다고 생각해요.

5. 기타를 배우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구자운 선생님 : 학창 시절에 기타를 잘 치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고 다른 악기는 휴대하기가 힘든 반면에 기타는 휴대가 쉬워 언제 어디서든 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배우야지 배우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가 교사 동아리로 기타를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6.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이 기타로 작업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도 기타를 이용해서 작곡을 하시나요?

- 한송이 선생님 : 기타보다는 아무래도 피아노가 더 익숙해서 피아노를 이용해 코드 진행을 만들고 그 위에 흥얼거리는 식으로 작



곡을 많이 해요. 요즘은 미디어음악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디어 장비를 하나씩 장만하여 차곡차곡 준비 중에 있으며, 트랙을 먼저 만드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코드성 악기들을 먼저 찍어놓은 상태에서 리듬을 덧붙이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작업을 한답니다 :)
작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음악에 담은 메시지입니다. 가사가 없는 곡이라도 음악들 듣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이요. 그래서 음악을 듣거나 학생들에게 보컬지도를 할 때도 가사 전달과 감정 전달에 더 치중하여 수업하는 경향이 있어요.

7. 기타를 배우시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김영두 선생님 : 보통은 학교 업무와 수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거나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두지는 않았습니. 단지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순간만은 다른 생각 없이 전념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8. 기타를 배우시면서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 한유림 선생님 : 최종목표이자 저의 희망사항이지만~ 역시 노래를 듣고 기타로 칠 수 있을 정도? 그 전에 코드나 빨리 외워야겠습니다^^

9. 김현화 선생님께서는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선생님께 음악은 무슨 의미인가요?

- 김현화 선생님 : 노래를 잘 부르지 않고, 자주 부릅니다.^^ㅎ 음악을 잘 하지는 않고, 평범하게 가요 즐겨듣습니다. 학생들과 다르지 않아요~~

10. 대학교 MT에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기타 연주곡을 추천 하신다면?

- 김정한 선생님 : Eric Claton의 Tear in Heaven 또는 Narciso Yepes의 Romance de Amor, 그리고 Bread의 If 같은 곡들이 분위기 있는 기타 연주곡들을 추천합니다^^





서정민 선생님 인터뷰

20323 유대건

Play Boin (이하 P)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정민 선생님 (이하 S) 2009년에 교사를 시작해서, 올해 교사 9년 차네요. 그렇겠네요. 지금은 홍보기획부에서 보인고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38살이고, 결혼은 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3명 있어요.

P 회사에도 다니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담 지금의 직업 선생님을 하시게 된 계기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S 저는 회사를 나오고, 2005년도에 삼성물산에 취업했어요. 처음 99년에 사범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교사를 할 마음을 가지고 사범대를 간 게 아니라 점수를 맞춰서 사범대를 간 거죠. 그래서 교사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 당시에 제 동기들이 25명이었는데 대부분이 교사할 마음이 없었어요. 어쩌면 교육의 문제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대학

내내 다른 공부를 했어요. 취업 준비를 많이 했었고,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되었어요. 졸업이 8월 이었는데 5월에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5월 에 교생을 나가게 돼요. 교생 실습을 한 달 나가게 되는데 그 한 달이 끝나는 날 다짐을 하게 돼요. 교사를 해야겠다. 교사가 나랑 잘 맞구나. 그런데 이미 회사가 붙었으니까 그럼 회사 생활을 하되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 교사로서 보니까 실제로 사회 경험도 필요한 거 같고 선생님이 된 이유는 교생 실습을 통해서 교사라는 것이 나랑 맞는다는 점을 느끼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고, 혹시 학생 여러분도 교사를 꿈꾼다면, 교육 관련 경험을 많이 해보기를 권해드려요.

P 오랜 시간 3학년을 맡으신 이유와 1, 2학년을 가르치실 의향은 없으신지가 궁금합니다.

S 제가 3학년을 많이 맡는 이유는 과목의 특성 때문이에요, 사회 탐구 과목은 1, 2학년 과목도 있지만 3학년 과목도 있고, 사실 제가 가르치는 주된 과목이 경제랑 사회문화인데 이 과목이 2학년에 개설되면 2학년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1학년에 통합사회 과목도 3개 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P 선생님의 취미 생활에 대해 듣고 싶어요. 이야기해주세요.

S 저는 취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중, 고등학생 시절에 다양한 걸 경험하기를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수많은 활동이 인생의 소중한 취미로 남는 거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운동해본 적이 없어요. 체육 시간에도 공부하고 게임도 안 해봤고, 책도 안 봤고 오로지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별다른 취미가 없어요. 유일하게 취미를 따지자면 음.. 일하기? ㅎㅎ 일하기가 취미일 수 있나요? 일하기가 취미고 별로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 음악도 안 듣고 영화도 안 보고 게임도 안 하고 드라마도 안 보고 취미 하나있네요. 신문보기!

P 교직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S 이상하게 가끔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점심시간에 어떤 학생이 경제에 대해 멋진 질문을 해서 대견한 마음에 나를 칭찬을 한다고 '너 어느 동아리야? 경제 동아리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건네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하길 '저..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경제 동아리원인데요'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학생에게 정말 미안했죠. 그 뒤로는 조금의 인연이라도 있는 학생이라면 이름과 얼굴을 꼭 기억하고 다짐하고 있어요.

P 보인고 선생님 중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S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No'라는 말을 잘 못 하며 자라왔고,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상황에도 "Yes"만을 하는 소위 에스맨으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다르게 어떤 상황에서 'Yes'보다 'Why'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 중 'Why'를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 중 한 분이 박희원 선생님이예요. 어느 공동체이든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박희원 선생님은 우리 학교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보인고등학교 홍보기획부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 교사 서정민입니다.



P 홍보부 선생님이 보인고만의 장점이 있다면?

S 보인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과 진로를 향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보인고의 장점이예요. 우리 학교는 자사고이다 보니 학생들이 상당히 균질적이예요. 즉, 무언가 열심히 해보자는 의지와 열정을 가진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 동아리 등과 같은 학생 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교과 수업 시간에도 모둠 학습·토론 수업 등과 같은 학생 중심형·과정 중심형 수업이 잘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바로 학생 여러분이 보인고의 보배입니다!!!

P 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보인고를 택하실 건가요?

S 저는 남고를 나왔고 보인고보다 더 엄격한 교칙의 적용을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남고인 보인고가 아니라 남녀공학을 가고 싶어요. ^^ 농담이고요. 보인고는 힘든 학교예요. 그렇지만 그 힘들이라는 것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을 견뎌내야 하는 힘들이라면 안 되겠지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면서 감내해야 하는 힘들이라면 보인고를 택하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느끼는 보인고의 아쉬운 점들 저도 알고 있어요. 보인고가 학생 여러분들이 다시 택하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학생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는 학교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의 역할일 거예요. 10년 20년 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보인고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보아요!!

P 선생님으로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이신지요?

S 보람을 느낄 때,, 현실적으로 보인고등학교는 대학 입학의 목적으로 하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목표를 위해서 준비한 아이들이 꿈을 이룰 때 보람을 느껴요. 특히 대입이죠. 그리고 최근에 대입의 특성이 수능 시험은 당일 한판 싸움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3년에 걸친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오랫동안 가르친 나와 함께 학생부를 만들어 가고 자기소개서를 점검해가면서, 같이 노력한 학생이 대입에 합격했을 때 보람을 느낀답니다.

P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S 음..., 제가 학생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존경스럽다는 말이었어요. 존경스러운 존재로 남고 싶어요. 어쨌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 엄청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존경스러울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P 마지막으로 보인고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S 보인고등학교는 쉬운 학교는 아니예요. 다른 학교보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소중한 어떤 장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보인고 생활이 힘들다는 생각보다 이곳에서 내가 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런 실천이 어떤 학교 내에서 쌓이고 쌓인다면 아마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유익한 말씀해주신 서정민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채기석 선생님 인터뷰

11231 최호준

나 선생님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학생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쌤 체육교사 채기석입니다. 1학년 학급 담임과 교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선생님을 보면 평소에 참 모범생이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학창 시절은 어떠셨나요?

쌤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아하는 활동, 주어진 일을 즐기며 최선을 다했던 학생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일 수 있는 고등학교 수험생 생활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웃고 즐기며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 선생님은 원래 대기업을 다니시다 교사를 하게 된 걸로 들었어요. 선생님을 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쌤 교육자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외향적인 성향으로 줄곧 교직 생활보다는 스포츠 행정가라는 또 다른 꿈을 품고 있었습

니다. 저는 졸업 후 대기업 회사원 생활을 시작했고 많은 선, 후배 및 동기들은 교편을 잡았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는 동기들을 통해 살아있는 학교 생활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저 또한 이 길에 흥미를 느꼈고 회사를 나와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 많고 많은 학교 중 보인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쌤 저는 자라면서 줄곧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사립 학교가 무척 궁금했고 흔히 말하는 명문 사학에 더 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분당)에서 근무할 수 있는 명문 사학을 찾던 중에 강동/송파에서 가장 유명세를 떨치던 이 학교 소문을 들었고 때마침 채용 공고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 선생님이 생각하는 보인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쌤 보인고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자질을 갖춘 동료교사와 뛰어난 지성과 인성을 지닌 학생들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학생간, 교사간, 학생-교사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학교 문화가 보인을 명문으로 만들어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학교 생활을 만족스럽게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다보니 교사가 해야할 일들이 주변 학교에 비해 많습니다. 평일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은 부분은 약간의 애로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인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급 담임과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체육교사 채기석이라고 합니다.



나 선생님 많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하시는데,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쌤 제가 인기가 많았나요? 말씀이라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생들과 가까운 위치에서 소통하고자 노력합니다. 학생 문화를 존중하고 개별 성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을 넘는 언행을 저지르는 학생에게는 따끔하게 혼을 내지만 감정은 상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신분이 학생에게는 마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먼저 대화를 시작하고 인사를 해주는 작은 언행들이 학생과의 벽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런 선생님도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으신가요?

쌤 저도 감정에 충실한 한 사람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들은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담임 학급아이들이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만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업 중 운동장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날은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쌓여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선생님은 가족을 참 사랑하고 아끼시는데, 선생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쌤 제게 가족은 보물입니다. 제겐 아이 두 명이 있는데 이태리어로 보물과 보석을 칭하는 말들로 아이들의 태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이었지만 가족을 위

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다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선생님에게 보인고란 무엇일까요?

쌤 제게 보인고는 신선함입니다. 교육 경력이 정말 길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침 출근길마다 살아 있음을 느낍니다. (워낙 일찍 출근해서 그럴지도요...) 여전히 매일매일 예상치 못했던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며 그 안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을 마주할 때 신선한 느낌을 받습니다. 학교의 신선한 에너지를 매일 누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쌤 예비 신입생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보인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학창 시절과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 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가치를 보다 높여 미래에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유림 선생님 인터뷰

20126 전승원

나 안녕하세요. 인터뷰 흔쾌히 승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쌤 안녕하세요. 보인고등학교에서 2학년, 3학년 일본어를 가르치는 한유림이라고 합니다.

나 교사가 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쌤 선생님이 원래 꿈이 되게 많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쪽 살펴보면 사실 교사가 원하는 순위 다섯 번째 정도였어. 여러 가지 하다가 교사를 꿈꾸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때야. 원래 소설을 하다가 통번역 쪽이 하고 싶어서 그 때 언어 공부를 시작했어. 학교에 외국어 반이 따로 있었는데 그 반에 들어갈 정도로 외국어를 좋아했어. 선생님 사촌언니가 일본어 통번역 쪽에서 일하는데 언니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난 통번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어. 그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대학교 강사였는데 우연찮게 공짜로 듣게 돼서 방향 때 열심히 들었어.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교사가 되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지. 대학교 때도 그 꿈이 유지되어서 언어 쪽으로 간 거야.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선생님이 낮을 엄청 가려. 대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애들한테 가르칠 때 엄청 떨었어.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되잖아.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 난 항상 아는 사람 뒤에 숨었어. 낮을 너무 가려가지고 다들 걱정 많이 했어. 근데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걸 선생님이 극복하려고 엄청 연습한 거야. 사실 제일 계기가 된 건 교생실습이지. 교생실습 때 너희들 만나고 했을 때 너무 재밌는 거야. 얘기들 너무 예쁘고, 가르칠 때 막 빵긱웃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사가 된 거야.



나 지금까지 보인고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쌤 첫 번째는, 선생님이 첫 번째 있었던 데는 예술 고등학교였고, 사실 그건 강사였고, 두 번째로 있었던 곳은 저기 밑에 쪽이었는데 여고였어. 거기를 다니다가 보인고로 올 때 남고라서 걱정을 많이 했지. 자사고라는 말 자체만으로 사실은 '아 학생들이 공부만하고, 그 외에 것은 너무 안하지 않을까? 선생님 말 안 듣지 않을까?' 막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무슨 소리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착한거야. 두 번째로, 선생님들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진짜 열정적이신 거야. 같이 일하고 할 때 너무 재밌었어. 만약에 수업 안에 있는 내용이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거를 시키면서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뭐 그런 걸 해요 귀찮게. 그냥 수업하세요." 이랬을 거야. 근

안녕하세요. 보인고등학교에서 2학년, 3학년 일본어를 가르치는 한유림이라고 합니다.



데 우리랑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오히려 더 피곤할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한테 그게 도움이 될 거야. 대학교 땀 더 심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 학교에 와서 너무 재밌어.

나 전에 근무하시던 학교와 보인고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전엔 예술고등학교와 여고에서 근무했었어. 우선 이것만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니? 예술고등학교는 인문계나 자사고와 달리 학업보다는 예체능 쪽이니까~ 우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태도가 전혀 다르지~ 물론 체력관리나 자신의 미래에 유리한 과목을 중시하는 것은 똑같지만~ 여고는 남고랑 아주 똑같아. 우리 보인고 학생이 하는 행동을 여고에서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저 남학생은 체육을 아주 좋아하고 여학생은 미술이나 음악을 더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 겉으로 봤을 때 가장 다른 건 역시 보인고에서 자랑하는 학습 방식이나 아이들의 수준, 진학을 정도. 아 가장 큰 건 다른 학교랑 비교해도 같지만 역시 오수시간과 체력단련시간이 있다는 거~ 이걸 다른 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이랄까. 그 외에는 역시 우리 학생들이 모든 일이든 열정적으로 또 예의가 바르다는 거야. 처음에 여기 와서 너희들이 추워서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다가 선생님 보고 손을 빼고 큰 소리로 허리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하는데 솔직히 놀랐어. 지금은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보인고 학생들의 기본 인성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시 되었지만~

나 선생님이 힘드실 때는 언제고 선생님의 수업철학은 무엇인가요?

난 수업할 때 좀 힘든 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수업방식이 있는데 그게 학교라는 틀 때문에 막히는 부분에서 힘들어. 너희들이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거든. 수업할 때 앉아가지고 "네 네 네" 이런 거 되게 싫어해. 다 같이 나가서 얘기도 하고, 음식 얘기가 나왔으면 음식을 진짜 만들어 보고 싶어. 왜냐하면 나는 그게 진짜 참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걸 직접 해봐야 너희가 기억에 남아. 실제로 그렇잖아. 뭐 직접 일본어를 하니까 일본 감시다! 이거까지는 현실적이지 않아서 못하겠지만 음식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나가서 너희들처럼 얘기도 하고, 사실 한국어, 그러니까 국어 잘하는 애들, 중국어 반, 일본어 반, 또 다른 영어 반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자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하고 싶어. "이거 공부하다보면 난 이게 어렵던데 넌 어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활동적이고 독특한 걸 많이 하고 싶는데 그걸 못할 때가 제일 슬프고 힘들어. 저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앉아가지고 문법 가르치고 있어야 하는 게 너무 슬픈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 영상 보면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해. 노래 부르는 거, 영상 보는 게 진짜 기억에 남거든. 너 눈의 꽃 지금 불러봐 하면은 나올 거 아냐. 거기서 하나하나 하나 하면 모든 언어가 다 적용돼. 사실 포노 대본도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자세히 조금씩 하나하나 나랑 같이 하면 아마 다 외울 거야. 영어 지문 그렇게 공부하는 법 알잖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 그냥 그 한 줄을 그대로 쓸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하는 수업도 하고 싶고, 선생님이 게임도 좋아해서 게임같은 것도 하고 싶어. 그런 부분에서 힘들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수업철학이기도 하지. 저절로, 재밌게.

나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일본대학원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취업하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왜 한국에 와서 취업하셨나요?

일본 대학원을 간 이유가 교사가 되려고 간 건 아니야. 사실 선생님이 되기 위한 밑천을 닦기 위해서 간 거거든. 일본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간 건데, 운 좋게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러면 너희들한테 일본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얘기를 같이 하면 비교할 수 있어



서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 거거든. 사실은 이미 대학교 4학년 때 선생님 꿈이 교사로 결정이 된 거라서 대학원은 그냥 더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간 거야.

나 일본어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본어를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책 등 주로 문화 쪽으로 접하기 시작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화로 시작한 아이들이 이론으로 공부한 아이들보다 접근 속도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걸 알 수 있어. 반대로 이론으로 시작한 학생들은 너무 딱딱하게 접근한 대신 기초가 아주 탄탄해서 흐름만 잘 타면 언어 능력이 급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만약에 일본어를 전공한다면~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업의 경우 어느 전공이나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기대하는 일본어 가능자의 능력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당한 실력으로는 취직이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일본에 취직하는 방법도 최근에는 좋다고 생각해~ 한국보다 일하는 시간은 많아도 최저임금은 더 세니까~ 아무튼 그 외에 또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니 많이 물어보렴.



나 선생님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영화보는 거, 연극보는 거 좋아하고 노래 듣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사진 찍는 거도 되게 좋아해. 책 읽는 거도 좋아해.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

나 선생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나는 여행을 한 번 더 떠나고 싶어. 그것도 유럽 여행. 비록 독일에서 살면서 여기저기 다녔지만 그 때는 학생 신분이고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견문을 넓히는 경험 정도?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즐기고 싶어. 그거랑 제대로 된 운동 하나 다시 시작하는 거? 항상 운동을 했었는데 최근 2년간 하지 않아서~ 여러 이유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데 내가 지금 가장 느끼기도 하고 너희한테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른들이 너희들한테 꼭 얘기를 했을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 수학 이거 쓸모도 없는데 왜 배워요? 선생님 이거 쓸모없잖아요. 인생에서

평생 안 쓸 거 같은데 이거 왜 배워요?" 이거는 너희도 갖고 있고 솔직히 나도 지금도 갖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어른들이 꼭 하는 말 있잖아. 이거 언젠가 니 인생에 도움이 돼. 솔직히 이거는 나도 항상 들었어. 근데 선생님이 꿈이 많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 느끼는 게 진짜로 다 쓸모가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그냥 우연찮게 배웠던 것, 통번역 자격증 따라 그래서 따고, 뭐 이거 따라 그래서 따고, 이거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하고. 근데 이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내가 원하는 직업,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갖게 된 직업을 선택하는 데 다 도움이 됐던 것들이야. 결국 도움이 되더라고. 대학원 때 해외 나가는 것도 주위사람들이 다 말렸어. 지금 애들 가르치고 일본어만 공부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해외 가서 갑자기 나 혼자 독일어 공부하고 있는 거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선생님이 스펙을 쌓고 그리고 언어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너희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경험도 얻고, 그리고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면서도 너희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애가 나한테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저는 이런 성격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연기하듯이 해봐라." 근데 실제로 맞거든. 선생님도 지금 연극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너희들한테 막 열심히 하고 나면 난 애랑 안 친하고 낯을 가리는데 친한 척 해야 되서 집에서 앓아. 솔직히 어른이라든지 모르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 부강사가 왔을 때, 사람들한테 가르치거나 할 때, 낯을 가리니까 가끔은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다 나중에 가서 도움이 되고, 나중에 너희들이 선택할 때 폭이 넓어져.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라는 소리가 아니야. 너희들 손에 딱 들어왔을 때, 우연찮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이걸 나는 정말로 너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 이걸 진짜 어른으로서, 어떻게 보면 끈대질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인생은 모르는 거거든. 이과생들이 일본어 가르치면 그래. "선생님 저는 도움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보는데요." 근데 모르는 거거든. 갑자기 애네들이 일본 쪽으로 취업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일에 쓸모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쓰이겠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도움이 돼. 언젠가. 죽기 직전에 갑자기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긍정적으로 즐겁게 다 받아들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MOTHERS AT BOIN

MOTHERS AT BOIN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야 아들에게도 책을 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학부모 독서모임 활동을 시작하신 이유를 물었을 때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님의 말씀이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집에서 책을 읽고 학교에 와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학부모 독서모임에 참여하시게 되었다는 것.

류신행, 문지혜, 서정민, 오양욱, 정지연, 채성민 선생님께서 담당하신 학부모 독서모임에서는 소설, 자기계발서, 심리학서, 산문집, 시집 등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함께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모임을 통해 읽은 책에 대한 감상, 비판, 소감 등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책 내용에 관한 단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종착점은 언제나 학부모님들의 **내면으로 귀결**된다. 책을 매개로 서로의 생각과 속마음을 터놓으며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1년을 동고동락(同苦同樂)한 학부모 독서모임. 올해 학부모 독서모임을 통해 느낀 점과 인상 깊었던 책에 관한 수기를 소개한다.

1908

2018학년도 보인고 학부모 독서모임 후기

최성미(1학년 8반 이태훈 학부모)
담당 교사 : 류신형 선생님

제 아들이 보인고에 입학한 지도 벌써 9개월이 되었네요. 아들이 보인고에 입학하였다니까 주위에서 독서모임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평소 책 읽기를 게을리 하였는데 전 요번 독서모임을 통해 제 자신을 위해 책 읽기에 도전 해 보고 싶었어요.

독서모임이 아니라면 제 스스로 한 달에 한 권 아니 1년에 한 권의 책도 보지 않고 지낼 것 같아서였지요. 그런 이유로 독서모임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마지막 독서모임만을 남겨 둔 시점이 되었네요. 독서모임은 한달에 한 권의 선정도서를 읽고 한달에 한번 학교 도서관에 모여서 2시간동안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모임이에요.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독서모임이 요일별로 꽤 많더라고요. 제가 속한 모임은 류신형 선생님 반으로 마지막 주 화요일 1시~3시까지 진행되었어요. 학부모님들은 1, 2, 3학년이 골고루 계시고 독서모임을 꾸준히 해 오셨던 학부모님들이어서 독서모임 시간에 유익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실 새 없이 나와서 저한테는 무지 많은 경험이 되었어요.

저는 그에 비해 책을 평소 읽지도 않아서 책을 다 읽고 갔음에도 제 머리 속은 텅 빈 상태로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던데 다른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럴때면 제 머리 속이 크게 확장되는 느낌이랄까? 그러면서 다음시간은 어떤 이야기로 진행될까 기대감이 커졌어요.

지난 시간에는 박완서 작가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읽었을 때 읽는 내내 글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가의 문맥이며 글 표현이 제 맘을 사로 잡았어요. 독서모임이 아니었다면 전 이 책을 접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모임을 통해 읽고, 제 자신이 박완서 작가의 또 다른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가 읽고 싶어서 열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무엇보다 전 제 자신과의 약속인 책 읽기를 지켰다는 거에 무지 뿌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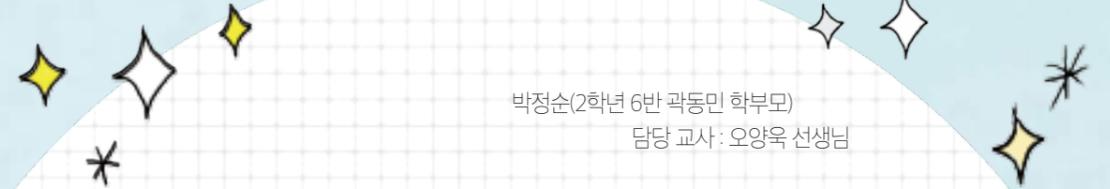
독서모임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있으시다면 고민 마시고 독서모임에 참여하시라고 강하게 추천 드리고 싶어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Happy



박정순(2학년 6반 광동민 학부모)

담당 교사: 오양욱 선생님

오늘은 학교 가는 날!

아침부터 등교하는 아이마냥 몸도 마음도 분주하다. 한 달 동안 끼고 있던 책을 챙겨 들고 아이의 학교로 나서는 길은 가을 햇살이 참 따스하다. 버스에서 내려 학교로 들어가는 골목길에 들어서자 어느새 셋 노랑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화사한 자태를 뽐내며 나를 반긴다.

문득 매일 이 길을 지나 다녔을 아이 얼굴이 떠오른다.

‘녀석, 참 멋진 학교를 다니고 있군!’

작년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시작한 학부모독서모임.

처음에는 뭔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 2년이라는 시간동안 한 달에 한권씩 책을 읽고 또래 엄마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때론 울고 웃으며 생각을 나누는 사이 ‘아이의 학교’는 이제 ‘나의 학교’가 되었다. “우리 집 아이가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 다니고 있는데도 표정이 밝지 않아요. 늘 불안해하고 주눅 들어 있어요.” -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저자 오연호) 중에서 -

우리 사회는 마치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말한다. 심지어 좋은 대학에 가기위한 효과적인 공부방법과 편하게 살 수 있는 좋은 직업을 부모가 정해주고 아이는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정작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나 중에 편하게 살려면 10퍼센트만 승자가 되는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며 아이들을 무한경쟁 속으로 내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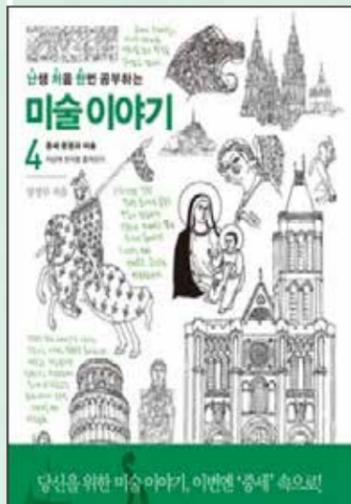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작 10퍼센트가 아닌 90퍼센트의 대부분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른들의 눈치,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을 찾아가길 바란다. 온 정성과 열정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그 무언가를 찾아 한다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지치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일하기에 기꺼이 책임지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교문을 들어서니 운동장에서 교복을 입은 채 축구공을 차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서로 어울려 왁자지껄 떠들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기분이 좋다.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이야기4 -중세문명과 미술」를 읽고

김정연(1학년 8반 백승익 학부모)
담당 교사: 문지혜 선생님



독서모임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그동안 함께 읽었던 소설이나 자기계발서, 과학도서가 아닌 예술에 관한 책을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다.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즐겁게 읽었던 미술책 시리즈가 생각나서 이 책을 추천하였다.

〈난처한 미술이야기4〉는 1권: 원시미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2권: 그리스 로마 문명, 3권: 초기 기독교 문명의 순서에 이은 네 번째 책이다. 흔히 '미술'하면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자는 처음 접하는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썼다. 굳이 순서에 따르지 않고 어떤 책을 먼저 읽어도 재미있지만 특별히 4권을 추천한 이유는 유럽의 대표적 건축물들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건물의 정면사진과 실내사진 뿐 아니라 평면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조감도,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공중사진을 실어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은 시대순으로 로마네스크 미술-노르만 미술-고딕 미술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잘 알려진 건축물들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1세기경 유럽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순례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였다. 우리에게도 '산티아고 순례길'로 유명한 곳이다. Santiago는 성인을 뜻하는 'Saint'와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의 스페인어 'Yago'가 합쳐진 말이다. Compostella는 '별의 들판'이라는 뜻으로 합치면 '야고보 성인의 별이 빛나는 들판'이라는 의미가 된다. 야고보 성인의 유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성지가 된 것이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유럽 각지에서 산티아고로 모여들어 순례길이 되면서 길 중간에 여러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la) 대성당은 고대 로마풍에 기독교 사상이 접목되어 둥근 아치와 두꺼운 벽, 십자가형 건축구조를 이루고 있다.

몽생미셸(Mont Saint-Michel)은 세계적인 프랑스의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만조 때 섬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 섬 위에는 생 미셸(Saint-Michel) 수도원과 암굴의 성모교회가 있다. 이 건축물은 바다에 강한 바위 노르만족이 지은 교회이다. 바닥에서 솟아오른 듯 육중한 기둥과 수도원 내부의 아치 등 당시 유행했던 로마네스크 양식을 노르만족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노르만 미술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건축물로 영국의 더럼(Durham) 대성당이 있다. 더럼은 스코틀랜드 국경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군사 요충지여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요새처럼 육중하고 튼튼하게 지어졌다. 더럼 대성당은 고딕 건축의 특징인 첨두아치, 늑골 궁륭, 공중부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 영국이 고딕양식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피사는 11세기 십자군 원정을 통해 부유한 도시국가로 성장했다. 피사(Pisa) 대성당은 사탑, 본당, 세례당, 세 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양식과 이탈리아 고유 미술 전통이 혼합되어 있다. 피사 대성당은 흰 대리석 바탕에 녹색과 갈색 대리석을 포인트로 사용한 것이 프랑스와는 상당히 다르게 보인다. 이를 이탈리아 중부, 즉 토스카나식 로마네스크라고 부르는데, 이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말해준다.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San Marco)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비잔틴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건축물이다. 아치 모양의 정문은 로마네스크 양식을, 커다란 다섯 개의 돔은 비잔틴 양식을 따른 것이다. 이는 베네치아가 지중해 동서 무역으로 성장하면서 비잔틴 제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기 때문이다. 돔 형식의 지붕 천정 안쪽에는 황금빛 바탕에 수많은 모자이크화로 장식 되어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비잔틴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12세기 후반에 이르러 중세인들은 교회를 천상의 공간

처럼 건축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Notre-Dame) 성당은 천장 높이가 36미터인데 실내는 천장 아래까지 높고 넓은 창이 뚫려 있어 의외로 밝다. 북쪽 날개면의 창은 정교한 문양과 그림이 표현된 스테인드글라스가 꽃잎처럼 모여 있어 '장미창'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한 빛이 성당 내부에 어리게 되면 실내 전체가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게 된다. 이것은 천국이 보석처럼 빛난다는 기독교 교리와 잘 부합된다. 고딕성당의 특징은 청각효과도 빼 놓을 수 없다. 소리를 반사하는 석재와 작은 소리까지 모아주는 뽀족한 아치형 천장에 탁월한 음향효과를 만들어 냈다. 고딕성당 천장은 갈비 뼈 모양으로 생겨서 '늑골궁륭'이라고도 말한다. 늑골궁륭은 천정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무게를 기둥으로 분산시키며, 로마네스크 시대보다 기둥이 훨씬 가늘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노트르담 성당에는 '공중부벽'이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벽이 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없었던 시절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 고안한 이 건축법은 고딕성당의 중요한 특징이다.

지금까지 〈난처한 미술이야기4〉에 실린 유럽의 대표적 건축물들을 통해 중세 유럽의 미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즘 대학 신입생들이 방학 중에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유럽 배낭여행이라고 한다. 여행은 낯선 땅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안목과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단순히 여행안내서나 인터넷 정보만을 따른다면 수박 겉 핥기 식 보기가 되기 쉽다. 너무나 많은 건축물과 박물관, 미술관에 압도되기 때문이다. 유럽에는 모두 비슷비슷한 성당들 뿐이라는 기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미리 책과 사진을 통해 인류의 발자취인 세계문명과 미술에 대해 이해하고 떠난다면 받아들이는 감동이 훨씬 크고 많을 것이다. 보인고 학생들이 재학 중 이 책을 읽으면 재밌는 세계사 공부가 될 뿐 아니라 훗날 대학생이 되어 유럽 여행을 갈 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누가 천재를 죽였는가」를 읽고

김주아(3학년 10반 이재혁 학부모)

담당 교사: 류신행 선생님



제목으로는 추리소설이어야 하겠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 책은 2013년 우리 곁을 떠난 최인호 작가의 진솔한 내면을 엿본 유고 수필집입니다. 1945년 해방둥이로 태어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철저하게 작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자기 글에 영혼을 불어 넣으며 시대보다 한발 앞선 세련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천재 작가 최인호를 알아보고 출판사에 책상을 내어주어 그가 언제든지 와서 글을 쓸 수 있게 해 준, 그를 끔찍히 사랑한 출판사 사장님 덕분에 ‘최인호’라는 사람의 작가정신, 시대정신, 역사의식, 인생관, 사물에 대한 깊은 해안과 통찰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고 나서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자취가 점점 멀어지는데 반해, 작가들은 그들이 남긴 작품들로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책 첫머리글에 작가의 말을 대신한 편집자의 편지가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집자의 편지를 읽은 이상, 이 책을 완독하지 않을 독자는 없을 것입니다. 백아가 자기의 거문고 소리를 알아주는 종자기가 죽자, 더 이상 거문고를 연주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거문고 줄을 끊어버렸다는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가 떠올랐습니다. 최인호 작가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독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후에도 그를 잊지 못하고 생전에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이토록 열렬히 그리워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예술가를 추모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위대한 민족은 예술가

와 더불어 살고 있다. 천재들을 추모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위대한 민족은 천재와 더불어 살고 있다. 이웃으로서 그들의 숨결을 들으며 함께 살고 있다.”

책 제목 ‘누가 천재를 죽였는가’편에서 유럽 인상파의 영향을 받아 천재적인 재능과 독특한 표현감각으로 한국회화의 근대화를 불러 온 조선의 천재 화가 이인성(1912~1950)이 실로 너무나 어처구니없게 통금을 어겼다는 이유로 치안대원에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재 예술가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서 태어나는 것인데, 천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재능을 발휘할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천재에게 방아쇠를 당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수학을 잘한다고 천재 수학자는 아니다. 문재文才가 뛰어나다고 천재 작가는 아니다. 천재를 가늠하는 척도는 곧 인품이다. 그렇다고 인품을 지닌 것만으로 우리는 천재라고 하지 않는다. 인품이 풍기는 재능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를 진정한 천재라고 부른다.”며 진정한 천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 천재가 재능을 발휘하고 꽃을 피우면 우리가 더욱 향기로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변모하는 보름달의 그 아름다운 면은 영원히 앞면에 불과한 것이며, 신비로운 뒷면(우리의 육안으로는 영원히 볼 수 없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물은 양면을 가지고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며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죽음이 있으면 탄생이 있으며 사랑이 있으면 증오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사물의 결면만을 보고 있으며, 그 결면에 치우치는 맹목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의 헤어날 수 없는 늪인 것이다.”

사물의 한쪽면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내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편협한 사고가 스스로 세상을 얼마나 조그맣게 테두리지어는지 되돌아 보게 됩니다. 세대나 성별, 지역, 환경이 다른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독선과 편견이 가까워려는 상대방을 오히려 더 멀리 밀어내고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외롭게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이 글이 크게 도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내가 틀리다는 출발선에서 시작하자 어느 순간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3년간 책속으로의 여행이 종착역에 다달았습니다.

2016년 3월, 짧은 스포츠머리에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잔뜩 긴장한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찍은 사진이 생각납니다. 같은 달 학부모총회 때 우연히 독서모임과 인연을 맺은 후, 한 달에 한 권씩 다양한 책을 읽으며 각양각색의 인생을 만나고 주인공이 되어 울고 웃었습니다. 훌륭한 인품과 교양을 갖춘 선생님들과 어머님들을 만나 독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생각과 새로운 시선을 마주하면서 저 자신이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하지만 최인호 작가의 말처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겠지요. 저는 아쉬운 작별을 고하지만 보인고 독서모임은 영원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명언은 틀리지 않았습니. 이제 혼자 뚜벅뚜벅 걸어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미카엘」을 읽고

이현미(3학년 2반 현재전 학부모)

담당 교사 : 류신행 선생님



독서 감상문을 쓰기로 하고 그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어떤 책에 대해서 쓸 것인가로 고민 하던 중 마음으로부터 끌어 당겨지는 책 한권을 느꼈다.

‘나의 미카엘’

처음 이 책이 다음 달 독서 모임의 책으로 선정 되었을 때 나는, 미카엘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어떤 남자의 달콤한 연서 정도로 생각 했다.

그런데 뜻 밖 이었다.

미카엘은 남자였고 내용은 달콤함이 아닌 씹싸름한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마치 나의 이야기인 듯 빨려들어 한나 고넨에 감정 이입이 되었다.

이 책은 주인공인 한나가 31살 때, 10년 전인 21살, 미카엘을 처음 만났던 때부터를 회상하며 썼다.

한나가 테라 상타 대학에 다닐 때 계단에서 미끄러지려는 한나를 미카엘이 잡아준 것을 계기로 둘은 결혼을 하게 된다.

한나는 결혼을 앞두고, 또 출산을 한 후에 악몽을 꾸다.

꿈이란 미래에 대한 예언일까?

한나의 결혼 생활은 활기차거나 행복 하지 않다.

그것은 꼭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만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

그것은 내가 내 생활의 온전한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너무도 정당하

고 당연한 그 권리를 되찾는 것이 어렵고, 그 일에 남편이 무력함을 알아챘을 때 느끼는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의 간섭 없이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꾸리는 것, 인간의 존엄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어린 나이에 마음의 준비 없이 한 가정을 이끌어 가게 된 한나는 현실을 마주하고 계속 당황 한다.

책의 부분 부분에 나오는 미카엘의 냉소-이럴 때 한나는 타인을 느꼈을 것 같다.

그리고 미카엘도.....

무미진조한 듯 하 지만 안전한 남편, 그러나 결국에는 안전하지도 않은 남편.

이 책의 끝 부분에서 한나는 ‘내 눈은 떠졌다’라고 말한다.

나는 이 짧은 한 문장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한나의 혼돈, 내적 갈등, 격렬한 몸부림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의 결과물 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이 결혼에, 미카엘에 만족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비굴하지 않은 한나의 용기에 박수치고 싶다.

한나의 절망이 옳던 그르던 난 그녀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녀는 고작 21세에 결혼 했다.

모임 날짜에 쫓겨 급하게 읽었던 책을 독후감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읽으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다.

다행이라 생각한다.

깨달은 게 있다면 진부하지만 ‘감사하고 사랑하자.’ 이다.

신은 우리 주위에 보물들을 뿌려 놓았는데 우리는 눈멀

어 하공만을 바라보는 건 아닐까?

26세의 남자로서, 결혼한 여성의 섬세한 심리들을 잘 묘사한 작가가 놀랍다.

나는 이제 며칠 동안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나를 돌아보게 해준 한나, 미카엘과 이별 하려 한다.

아쉽고 슬픈 마음으로.....

삼년동안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신 류신행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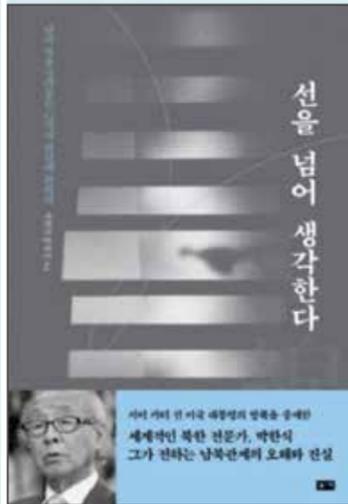


「선을 넘어 생각한다」를 읽고

-북한에 대한 오해를 넘어-

김인숙(2학년 9반 최우성 학부모)

담당 교사: 오양욱 선생님



‘서울 불바다’ 위협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 북미관계만큼 냉·온탕을 오갔던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권력자 하면 ‘뜰이장군’의 사람가면을 쓴 돼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 같은 반공교육 세대에게 지금의 화해모드는 여전히 의심스럽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변하기라고 했던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오해하고 있었는가?

‘학부모독서모임’에서 함께 읽었던 박한식의 <선을 넘어 생각한다>는 북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북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짚어 보며, 북한과의 화해, 평화관계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

북한은 붕괴할 것이다. 라는 오해

1980년대 말 동구권이 붕괴되었을 때,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이 사망했을 때, 그리고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도 수개월 내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이 없어지면 북한 체제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낳은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는 이 ‘북한 붕괴론’에 단호히 북한은 ‘절대’ 붕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개인을 우상화 하는 체제가 맞기는 하지만,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나라가 아니라 ‘김일성 주석의 나라’,

‘김일성 주체 종교가 지배하는’ 종교국가이며 조선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 독재국가’입니다. 조선노동당은 당원의 규모가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거대하고 구심력이 강한 조직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재자 1인이 제거된다고 붕괴되지도 않습니다. 북한 붕괴론은 허상일 뿐입니다.

북한의 핵 집착 배경을 이해하며 비핵화 가능성 진단해보기

저자는 북한의 핵에 집착하는 이유를 다각적으로 설명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원자탄만 있으면 어디 가도 큰소리 칠 수 있다’라는 ‘안보 패러다임’ 관점으로 핵무기를 인식한 것 같습니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구소련과 중국의 핵우산에 기댈 수 없다면, 북한 내부에서 자체 핵 억제력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인식이 생겨난 면도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나 선제공격 천명, 이라크 침공, 리비아 내전 개입 등 미국의 일련의 군사행동이 북한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협력했지만 중국에는 미국에 의해 제거 당한, 사담 후세인(이라크), 무아마르 카다피(리비아) 같은 독재자를 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도 이들처럼 제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이유도 없으며,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 대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북미 간 화해를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전개될 때, 북한이 체제 보장, 종전선언을 즐기치게 요구한 것이 이러한 북한의 불안감을 방증하는 듯합니다.

저자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위협 제거, 즉 북한의 안정보장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합

니다. 북한이 안전만 보장된다면 기꺼이 국제 사찰을 받고, 핵 개발에 대한 야망을 접을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로 나아가 한다고 말합니다.

안보 접근법과 평화 접근법 사이에서 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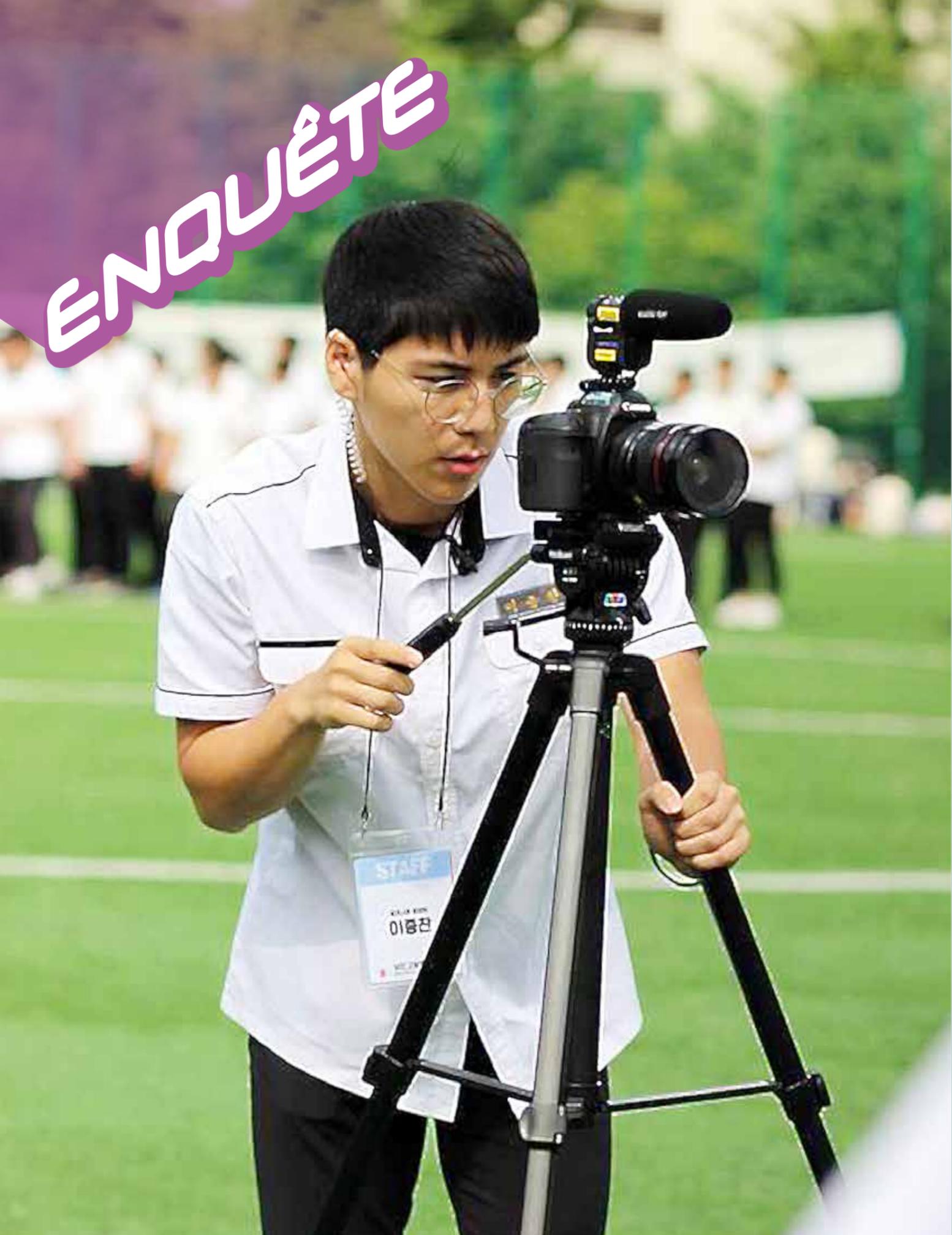
저자는 대북정책의 두 가지 접근법으로 안보 접근법과 평화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안보 접근법은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군비 경쟁에 기반을 두고, 공포와 무기에 의해 유지되는 정책입니다. 반면, 평화 접근법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지 않고, 다양한 견해가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힘에 기대어 상대를 지배하려 하지 않고, 상호 평등을 중시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안보 접근법의 단적인 예입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평화를 담보한다고 믿으며, 침략에 대한 공포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한식 교수는 안보 접근법은 과도한 군비 경쟁, 공포분위기만 조성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남북 모두 경제와 군사력 경쟁이 아니라 조화라는 관점으로, 평화 접근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이외에도 ‘대북 퍼주기’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반박, 탈북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 통일은 곧 손해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나선특별시 등 남북간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줘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형성된 대화모드가 평화와 공존의 관계로 발전되기를 희망하며 저자의 말로 글을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켜 굴복시키는 길은 얼핏 쉬워 보입니다. 반면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를 이끌어 내는 길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ENQUÊTE

ENQUÊTE

다사다난 했던 지난 2018년을 돌아보며 1,2,3학년 각 학년별로 앙케트 조사를 했다. '2018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보인고 사건 사고,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 궁금증, 보인고에 바라는 점, 나에게 보인고란' 등의 질문에 대해 **기발하고 재치 있는 답변, 진지한 답변, 가감 없는 비판적 답변**이 주어졌다.

또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앙케트** 조사에서 '가장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 동료 선생님, 올해 맡으셨던 반 중 기억에 남는 반, 학생들에게 기억되고 싶은 모습' 등의 질문을 드렸고, 선생님들께서도 진솔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1908



1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보인고 행사나 사건사고는?

- 110주년 기념행사의 박 터뜨리기 _ 보인고 짱셔요
- 110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현열쌤 머리에 박이 터진 것 _ EHOO
- 베트남 축구 다 같이 본 것 _ 무명
- 급식 재료가 부족해서 급식시간 늦춰진 것 _ 11229 최용준
- 이지에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저에겐 일주일에 한 번 있던 행사였습니다 _ JBU
- 대주컵 결승전 _ 익명

2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 궁금증 한 가지가 있다면?

- 차한결 선생님 : 미래에 아드님을 보인고에 입학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집이 가깝다는 가정하에) _ 설동하
- 문지혜 선생님 : 다이아몬드?? _ 무명
- 이지에 선생님 : 왜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_ JBU
- 백기곤 선생님 : 차 몇 대세요? _ 김호연
- 김정한 선생님 :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_ 이한범
- 정다희 선생님 : 결혼 하셨어요? _ db
- 김응천 선생님 : 집에 운동기구 몇 대 있으세요? _ T4
- 류신형 선생님 : 전에 공부법에 대해 강의 해주셨는데 공부법이 도대체 뭐죠?ㅋㅋㅋ _ 불주먹 김성원

3 내일 세상이 끝이 난다면 오늘 학교에서 해보고 싶은 한 가지 일은?

-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편지쓰기 _ 에잇!
- 학교 짤기 _ EHOO
- 학교에 왜있어 엄마아빠랑 있어야지 _ 무명
- 도망치기 _ 최은성
- 물아일체 _ 영미
- 안빈낙도 _ 해리포터
- 매점에 있는 음식들 모두 먹어보기 _ 양인규
- 창문 깨고 파쿠르 _ 짱구
- 매점 털기 _ 불주먹 김성원
- 방화 _ 은영

4 보인고에서의 생활 중 '1학년'이어서 다행이었거나 특별했던 일이 있다면?

- 토요일에 자습을 안 해서 다행이다 _ 최은성
- 급식이랑 매점이 가까워 데헛 _ 무명
- 내신을 망친 것 같지만 1학년이라서 별로 반영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_ EHOO
- 아무래도 공부나 성적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것이고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고 2,3학년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다. _ 양인규
- 3학년처럼 자습을 죽을 정도로 빡세게 안한다는 점 _ 김나냥이
- 이제 고3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_ 보인고 박보검
- 모의고사를 다른 학년에 비해 덜 봤다는 것 _ 어와야 조화용..
- 시험을 매번 말아 먹는 데 1학년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_ 불주먹 김성원
- 전학을 고려할 수 있어서 _ 은양

5 보인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야자를 자율로 바꿔주세요 _ 에잇!
- 휴대폰 사용 허가, 금요일 시간표처럼 야자 빼는 날은 7교시 종례 후 귀가 _ EHOO
- 하고 싶은 일 모두 할 수 있음 좋겠네 _ 무명
- 조금만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으로 바꿔길 _ 2952
- 쉬는 시간 휴대폰 자유사용 _ 최은성
- 이 질문이 의미 있긴 해요? _ 설동하
- 급식 좀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_ 11229 최용준
- 급식에 맛있는 반찬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_ 양인규
- 예쁜 선생님 많이 뽑아주세요 _ 어와야 조화용..





1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은 궁금증 한 가지가 있다면?

- 이윤호 선생님 : 2-9반 칭찬을 다른 반에서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2-9반에도 해주실 수 있나요? _ 링링
- 박희원 선생님 : '지금'을 왜 '지금'이라고 발음하시는지 궁금하다. _ 뽀뽀이들의 이상
- 김영만 선생님 : 하루타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_ 20403
- 교장선생님 : 급식 맛있으시죠? _ 보인고를 사랑하는 사람
- 한유림 선생님 : 방사능 일본 vs 미세먼지 한국 꼭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디?? _ 종신두산킹덕주
- 김민준 선생님 : 핸드폰을 자주 뺏으시는데 희열을 느끼시나요? _ 노코멘트
- 김태형 선생님 : 쌤 목소리는 언제부터 허스키하셨나요? _ 김세직

2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수학여행 사건사고는?

- 버스에서 모든 걸 해결했다. _ 미친님
- 승호와 영무가 호텔 체크인 시간 30분 뒤에 일어나서 정지연 선생님께서 폭발한 사건 _ 뽀뽀이들의 이상
- 한손에 병 들고 wi 테니스 한 친구가 있었음. (스파이크 날다 넘어짐ㅋ) _ 핑크빈
- 낙급새를 주문하였지만 낙지와 다량의 파만 나온 사건 _ 허영호
- 김홍민 쌤의 해운대를 가르는 달리기 _ 무명
- 반에서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선생님이 일등 하신 것 _ 노코멘트
- 서X하 씨 해운대 빠트리기 _ 나치잔당
- 친구를 바다에 담근 것 _ 뽀D
- 귀신의 집에서 소리 지른 것! _ 박윤성

3 1학년이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 2학년이어서 좋았던 점은?

- 내가 수시를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_ 링링
- 계단을 더 올라갈 수 있어서 다리근육운동에 도움이 되어 좋았다. _ 뽀뽀이들의 이상
- 밥 빨리 먹는 것 빼고는 없다. _ 핑크빈
- 좋은 쌤들과 함께 2학년에 올라와서 좋았다. _ 최재웅
-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간 것 같다. _ 권민혁
- 끈대가 될 수 있었다 _ 보인고를 사랑하는 사람
- 야자의 자율화, 관촬아진 급식 _ 허영호
- 예쁜 쌤님들이 많아졌다. _ 종신두산킹덕주

4 만약 보인고 이사장님이 된다면 보인고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가요?

- 1,2,3학년 복도를 쉬는 시간 마다 돌아다니면서 편한 복장을 입고 따뜻한 이미지로 친근하게 다가가 학생들과 친한 보인고 이사장이 되고 싶다. _ 미친님
- 급식에 백종원, 경비에 마동석을 고용하여 맛있는 감옥을 만든다. _ 최재웅
- 학생들을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_ 권민혁
- 맨날 막히는 번가를 교체하겠다. _ 노코멘트
- 지하 교실에서 더 이상 바퀴벌레가 나오지 않는 그런 청결한 교실을 만들겠다 _ 허영호
- 등굣길에 레드카펫을 깔고 재킷에 어깨뺑을 추가한다. _ 뽀D

5 오면 안 될 3학년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 아오 XX _ 링링
- 즐거운 정시공부~ _ 미친님
- 그지 같다. _ 뽀뽀이들의 이상
-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주세요. _ 핑크빈
- 잘 해보자ㅠ _ 최재웅
- 긴장되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해온 것에 대한 결실을 보여줄 것이 설렌다. _ 권민혁
- 뛰어내리고 싶다 _ 20403
- 관촬아, 아직 2년 남았는데...? _ 뽀D
- 수능까지 파이팅! _ 허영호
- 살..려..줘 _ 나치잔당
- 야 기분좋다!! _ 종신두산킹덕주





1 나에게 수능이란?

재수의 성공을 위한 발판 _ 보인고 극우파
 가정불화 _ 이정현
 인생 망했다 _ 한계이
 다른학교 체험기 _ 정호
 그냥 속 보고 눈술 all-in _ 무명
 카구팔 1km리드샷 후 샷건 10발 연속 미스(쉬운것만 골라서 다틀림 사기 _ 키큰뽀뽀이
 놀기 위한 의식 _ 흥계이
 도시락 먹는 날 _ 보인고 익명제보

2 수능 끝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집가서 서양, 동양 여행 _ 아밤에닭발
 2020 대성 패스 _ 조현수
 샷건 _ 수학 싫어하는 이과생
 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삼창 _ 키큰뽀뽀이
 친구랑 치킨 뜯자는 약속 깨고 pc방갔다 _ 리후니
 독재상담 _ 무명

3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야자 좀 짤걸 _ 유노이아
 1학년 때부터 정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학종은 2등급 이상만 가능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 _ 무명보인고 극우파
 오줌싸는데 Ms.보인과 눈이 마주친 것 _ 정호
 기숙사 들어간 것 _ 김주현2
 컨셉을 미친놈으로 잡은 것 _ 흔한보인고생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낼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못했다 _ 김단
 비트코인 안 산거 _ 양은성

4 대입을 앞둔 후배들에게 한마디

선배들이 미안하다. 내년 수능 재수생 대거 합류한다. _ 무명
 금방가고, 놀고 싶은 유혹이 엄청난데 대학 좋은데 가려면 버티고 아니면 좀 놀아 추억 많이 생긴다. _ 작년교지편집부장
 뎀벼 자밥들아 _ 딸기
 1년 흑간다. 열심히 해. 급식실에서 선생님이 호루라기 불면 격하게 박수쳐라 _ 정호
 6월 전에 롤접어라 _ 수학 못하는 공대생
 너네는 1년 만에 대학가야겠네 힘내라 _ 리후니
 여중간하게 수시준비하지 말고 정시면 정시 수시면 수시 분명히 하는 게 좋음 _ 오용우
 예비고2면 목숨걸고 내신 챙겨. 진짜로. 아직 실감 안 나겠지만 진짜로 죽어라 챙기고, 예비고3이면 힘내. 진짜 엇그제가 1월 같은데 수능 금방 본다 _ 이경원

5 기억에 남는 선생님과 그 이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류신행 선생님 : 쌤 내년에 못 찾아볼 거 같아요. 2년 뒤에 찾아올게요 _ 무명경희대 탈락생
 항상 웃는 모습이 보기 좋고 담배 피는 것만 빼면 단점 찾기가 어려운 쌤 _ 이경원
 이찬 선생님 : ㄹㅇ참교사 _ 무명
 한만준 선생님 : 딱밤 조심해. 뇌진탕 온다 _ 무명
 보인고 쌤들 : 감사합니다. 먼저 탈보인합니다 _ 심태보(6보짚따)
 강병재 선생님 : 선생님 건강 생각해서 담배 줄이세요 _ 조현수
 강남구 선생님 : "너넨 이미 망했어." 네. 선생님 말이 맞네요. _ 수학 싫어하는 이과생
 김응천 선생님 : 다시 고3 담임 올라와서 애들 좀 뽀뽀하게 굴려봐요 _ 리후니
 손호준 선생님 : 웃음소리가 호탕하고 좋음 _ 보인고 잠만보
 오양욱 선생님 : 강조하신 EBS지문 꽤나 나왔음. 보인고 영어 no.1 영어1타 _ 구분수
 김영만 선생님 : 세계시민학교, 통섭을 포함한 여러 활동을 통틀어 같이 한 게 제일 많은 선생님이셔서. 3년 동안 감사했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_ 킹더جت제너럴다크플레이멜마스터

6 나에게 보인고란?

판도라의 상자 _ 유노이아
 인서울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아웃서울 보내줌 _ 이정현
 내 인생의 약 1/3...하.웃프다 _ 심태보(6보짚따)
 1학년 1학기 때 전학 갈 걸 후회한다 _ 한계이
 화장실 냄새의 극한을 보았다 _ 조현수
 특이한 똥쟁이들의 집합소 _ 정호
 4년제 고등학교 _ 무명
 그래도 공부하게 해준 학교 _ 이민성
 보인하숙집 _ 키큰뽀뽀이
 딱 데로 수능 보러 가보니 운동장은 좋더라 _ 리후니
 축구하는 곳 _ 무명
 다시는 보지말자 _ 고봉이
 군대 _ bhc1017
 힘들었지만 나를 잡아준 학교. 비록 강제야자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덕분에 지구과학 빼고 전부 1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_ 흔한보인고생
 좋은 친구 많이 만났다 _ 무명
 수능 응원 나온 후배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_ 구분수
 40년 타임캡슐이 남아있을까 궁금한 학교 _ 무명

선생님 앙케트

1 가장 수업을 들어보고 싶은 동료 선생님은 누구이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진샘. 연구수업 때 참석을 못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추천해주셔서 - 지하세계 하데스
 박병준선생님. 3학년부의 얼굴을 담당하심 - 최재만 선생님
 저는 류신형선생님 수업 들어보고 싶어요. 자유로운 생각과 수업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담배냄새와 시의 향연.. ㅎㅎ - 정지연T
 체육 이상구, 선생님들도 체육시간이 필요해요 - 오양욱 선생님
 Pike 선생님~ 학생들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것 같아 한 번 수업에 직접 참관하고 싶어요~ 다양한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궁금해요~ - 한유림 선생님
 김영만T. 끝장토론으로 친구관계가 끝장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직관해보고 싶음. - 이영석 선생님
 Mr.Pike~ 참교사라고 생각돼서 - HJ(강호준 선생님)
 전재훈 선생님. 교실 문에도 필기하시며 수업을 진행하시기에 궁금하다. - 김민준 선생님
 강호준T - 툭툭 툭 것 같은 분위기에서 활발한 수업 예상 - 안병후 선생님
 Mr. Pike 샘. 내가 영어 실력이 출중(?)해서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다음 생엔 영어샘 해야지! - 김시중 선생님
 김흥민 선생님. 알고 보면 김흥민 선생님이 고전문학에 조예가 깊음. 특유의 유머를 수업시간에 어떻게 쓰시나 보고 싶어서 - 강이욱 선생님
 모든 선생님. 다들 각각의 스타일이 다를 것 같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함. - 남혜정 선생님
 전재훈 선생님. (책 없이 수업 하시는 모습이 궁금해서) - 성함 없음
 강이욱 쌤~ 창의력 대장이신 듯 - 화학대장
 영상과 교과 내용을 접목시켜 웰메이드 수업을 만드시는 김영두 선생님의 수업 - 의자왕

2 올해 맡으셨던 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은 몇학년 몇반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아이들이 기억에 남아요. 지하세계라 특별히 더 기억에 남아요 - 지하세계 하데스
 3학년 5반. 담임반 - 최재만 선생님
 저는 저희 2학년 4반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친구들이 모두 너무 성실하고 착해서 수업을 할 때 기분이 좋아져요. - 정지연T
 3학년 6반. 많은 에너지가 넘치는 반(재균이 빠고), 수업에 들어가서 좋은 기운을 받아오는 느낌! - 오양욱 선생님
 너무 어려운 질문.. 각 학급마다 개성이 넘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요^^ - 한유림 선생님

3학년 '지역 이해'반.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발표 수업을 너무나 잘 준비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음. - 이영석 선생님
 2-1, 2-2, 2-3, 2-4. 매일 한 시간씩 같이 지내서 - HJ(강호준 선생님)
 2-2. 담임반이라서 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학생들이 많을뿐더러 자신이 목표하는 분야에 대해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 - 김민준 선생님
 1-12. 아이들이 스스로 '야. 조용히 좀 해'를 외치는 경우가 많았음. - 안병후 선생님
 2학년 2반. 항상 학급 구성원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고(나의 착각?) 특히 나를 늘 웃게 만들어준 인태. 태윤, 영우 쫘이 있어서. - 김시중 선생님
 2-6.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 - 강이욱 선생님
 2학년 6반. 밝은 기운이 느껴진다. 예의바르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아는 아이들이다. - 남혜정 선생님
 3-8.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수업시간이 즐거웠음) - 성함 없음
 3학년 6반. 역대급 매너남들 ~ 법없어도 살 친구들 ~ - 화학대장
 모든 기억은 11월 15일부로 리셋되었음 - 의자왕

3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님이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친구같으면서도 나중에 연락드리고 싶은 선생님 - 지하세계 하데스
 이름만 기억해줘도 감사^^ - 최재만 선생님
 따뜻한 선생님. 그리고 정성스럽게 대해주시는 선생님 - 정지연T
 언제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선생님 - 오양욱 선생님
 작게는.. '일본어 수업을 즐겁고 유익하게 가르쳐 주는 교사'? 정도이고, 크게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여러 가지로~) 교사'였음 좋겠네요~ 사실 크게 바라지는 않아요. 저를 통해 일본과 일본어에 대해 좋은 기억과 배웠던 언어들이 떠오른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_^ - 한유림 선생님
 '아.. 그 누구더라..' 하는 선생님 - 이영석 선생님
 인생선배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교사 - HJ(강호준 선생님)
 혼날 때는 혼내고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해주는 선생님 - 김민준 선생님
 포근하고 인자한 선생님 - 안병후 선생님
 늘 자상한 아빠 같은,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놀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쌤 - 김시중 선생님
 핵존멋 선생님. 기도하는 A교사 - 강이욱 선생님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싶다. - 남혜정 선생님
 편하게 다가와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선생님 - 성함 없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참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질 않네요. 열심히 노력하는 쌤이 되고 싶긴 하네요. (상냥한 선생님이 목표이지만, 현실의 벽이 높네요.) - 화학대장
 기억되고 싶지 않아. - 의자왕



4 마지막으로 올해 함께 한 학생들에게 한 마디 하신다면?

-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길!! - 지하세계 하데스
- 규칙준수, 인성함양과 더불어 성공하세요! - 최재만 선생님
- 언제나 스스로의 강점을 생각하면서 자신감 있게 생활하길 바래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세요. - 정지연
-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각자 가는 인생길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 - 오양욱 선생님
- 우리 멋진 형님들과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힘들도 어렵고 괴롭더라도 추억으로, 또 경험으로 삼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보인고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많은 부분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열정 그대로~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 쏟으시길!!! - 한유림 선생님
- 현재가 미래의 빛으로 남지 않기를 - 이영석 선생님
- 현재를 사랑하기위해, 나 자신을 그리고 보인을 사랑합니다 - HJ(강호준 선생님)
- 헛되어 시간보내지 말고 목표하는 분야에 성공을 이루자.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김민준 선생님
- 내 선택에 후회하지 말라. - 안병후 선생님
- 아주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항상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열심히 살도록 하자. 늘 응원할게 쌤이. - 김시중 선생님
-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 나짐 히크메트, <진정한 여행> 中 - 강이욱 선생님
-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너네들에게 좋은 날이 올거라 믿어 - 남혜정 선생님
- 고3. 수고했고 잘 살아라! - 성함 없음
- 끝까지 너무 수고 많았고, 고마워요 ~ - 화학대장
- 언제나, 마지막까지 멋진 모습 보여주렴. 너희들의 고향, 보인고도 마지막까지 멋진 거야. - 의자왕

교지 편집부원 후기

올해 1년동안 교지를 작성한 친구들의 말 한마디

- [20323 유대진] 부장으로서 열심히 뛰었지만 웬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완성된 교지를 보니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한 것 같다.
- [20126 전승원] 작년보다 빠졌지만 그만큼 보람차고 뿌듯했다.
- [20102 김경민] 그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교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오기만 했는데 교지를 구성하는 것,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고 복잡하였지만 만들고 나니까 뿌듯하였습니다. 물론 재밌는 것을 골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이라도 한 번씩 기사를 훑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301 고정훈] 문지혜 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교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20916 신현민]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교지편집부원으로서 기사를 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동아리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주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보인고등학교 교지에 제 이름을 남기게 되어 영광입니다!
- [21035 한찬영] 노는 동아리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한 가지 과제물이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진실된 모습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힘 모아 만든 교지를 보면 아마 더욱 뿌듯할 것이다. 친구들 덕분에 고마운 일도 많았고 즐거웠다.
- [10119 이동훈] 정해진 기준 없이 원하는 것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고, 그것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행사 기사를 쓸 때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막막하기도 했지만, 교지가 나오면, 약간 잘 큰 자식 보는 느낌으로 보람찰 것 같습니다.
- [10906 류호승] 평소애 자주 써보지 않았던 글을 써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한 내가 학교의 역사 한 부분을 채울 교지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었다.
- [11028 이준혁] 1년 동안 교지편집부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행사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사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진로에 더 다가갈 수 있었고 글쓰기 능력도 전보다 향상시킬 수 있었으므로 보람 있는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